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8월 28일) · 주간

제960호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유자효 시인
시와 선은 닮은 형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16 · 17면

금주의 법구-〈증일아함경〉 지주품

계의 향기, 들음의 향기, 보시의 향기는
이 세상 향기 중 가장 훌륭하니라.

조계종 선거 후보들 종책 공약 '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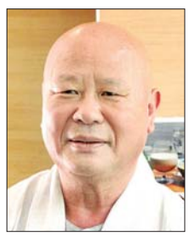
교구 권한 이양·비구니 권익 향상 등



자승 스님



보선 스님



대우 스님



장주 스님



혜총 스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총 5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이로서 조계종은 완연한 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을 진행했다. 후보 등록 결과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기호 1번),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기호 2번)이 입후보했으며, 내장사 벽련선원 대우 스님(기호 3번), 장주 스님(기호 4번),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기호 5번)이 출사표를 던졌다.

금오문도회의 추대로 출마를 선언했던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최종적으로는 입후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또 다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前 화엄 · 법화회 · 무소속을 기반으로 한 불교광장의 후보인 자승 스님과 舊무량 · 무차회 · 백상도량이 연대한 3자연대의 보선 스님이다. 그 만큼 선거 전부터 서로 진영에서 앞 다퉈 종책 토론회를 여는 등 기민한 행보를 이어왔으며 이를 기반한 종책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특히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각각 평소 자신의 소신이 담긴 종책들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스님이 내놓은 공약들 중 가장 큰 공통점은 '교구와의 관계 재설정'과 '비구니 권익 향상'이다.

18~20일 선거 후보 등록

자승·보선 스님 양강 구도

대우·장주·혜총 스님 출사표

각 진영 종책 발표 잇달아

'교구·비구니' 공통 키워드

자승 스님 4년 성과 연계

보선 스님 청정성에 방점

자승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종책 발표에서 교구 중심제 실현을 첫 과제로 내놨다. 교구중심제에 대해 스님은 "우선 교구법을 신설해 교구의 지위와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각 교구에 독자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유기적인 종무행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교구가 가지는 특성과 장점을 장려해 교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선 스님은 중앙과 교구의 '협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교구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중앙은 종단 차원의 대정부 · 사회 종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교구의 공유사업 개발 △인사교류 활성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비구니 권익 향상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자승 스님은 참종권 확대와 특별교구 설립을 통한 권익 향상 등을 제시했으며, 보선 스님은 포교 · 복지 · 종무행정 등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확대와 특별교구 수용 등을 공언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전. 각 후보들의 종책 공약들이 종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종책 선거의 척도 '종책 토론회' 열리나

조계종 선관위 23일 회의서 결의… 이르면 10월 초

각 후보자들간의 종책 검증을 위한 종책 토론회가 빠르면 10월 초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23일 제277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종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원들은 9월 24일 각 후보자 측 관계자를 만나 종책 토론회 일시와 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종책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9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종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자승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로 9월 21일 종책 검증을 위한 토론회에 임할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2년분 이상 사찰분담금 종액을 체납한 스님의 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했다. 신중일 기자



평화의 기운 한반도에 두루 퍼지길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에서 평화의 불이 사부대중의 염원 속에 안좌되고 있다. 평화대회에서는 고불문과 평화선언과 함께 인순이, 이선희, 폴 포츠,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부산 UN기념공원에서는 스님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재가 열려 한국전쟁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명예의 전당' 운영 장기기증 희망등록 UP↑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활성화 주력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신설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 1월부터 주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하고, 100명 넘게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명예의 전당' 제도를 신설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경 스님,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 등 3인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지민 스님은 지난 3월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2장을 전달했으며, 6월에는 197명을 추천했다. 정행 이익수 법사도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지경 스님은 104명을 추천해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특히 이 제도는 이웃종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심정민 사무총장은 "대형교회 같은 곳은 장기기증 예배 시간과 전담목사가 따로 있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천주교는 교구 차원에서 합동 희망등록을 할 정도"라며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타종교에 비해 캠페인 활동은 가장 활발히 해왔지만 불자들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웃종교계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비해 희

올해 1월부터 중점 실시

현재까지 3인 이름 올려

망등록수는 적은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사무총장은 "하지만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뿐 더러, 사람들은 섣불리 희망등록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의 전당제도는 희망등록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지인이나 주변인들의 추천 및 독려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욱 효과적이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동기부여가 돼 희망등록 확대에 기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예의 전당' 코너를 개설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100명 이상 추천한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지민 스님, 정행 이익수 법사, 지경 스님.

그 예로 지민 스님은 명예의 전당 헌액 후, 삼론종 스님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홍보 활동 동참을 권유해 9월 현재 삼론종 차원에서만 등록한 이들이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민 스님은 "스님과 재가불자를 1:1로 만나 장기기증 홍보를 했다. 앞으로 삼론종 소식지를 이용한 홍보와 법회를 통해 교구별로 생명나눔동참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장교후보생과 신도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홍보한 정행 이익수 법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대해 잘 몰라 망설이던 장교후보생들도 지금 당장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라는 점을 이해한 뒤 쉽게 등록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명예의 전당 제도 뿐 아니라 10 · 30 · 50명 단위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추천한 이들에게도 포상해 장기기증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스님과 불자들이 생명나눔운동 홍보에 솔선해 지민 스님, 정행 이익수 법사, 지경 스님 이후로도 제4 · 5호의 주인공이 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960호 INDEX

시방세계 5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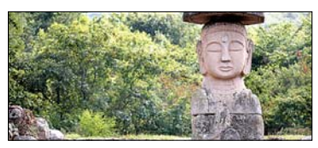


신행 6
전국사찰, 개산대재 맞아 법회 마련

학술문화재 9
구산 스님 재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문화 20
여공 스님 '칼끝장엄' 展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무신' 촬영지 충주 미륵대원지



새연재 14면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신중일 기자
일본 불교 고찰을 가다

불광 창립 39주년 기념 및 불광법당 준공법회

10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신축 불광법당

2년전 불광의 불자들은 '제2의 불광운동'이라는 원력을 세워 불광법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광이 세상에 나툰 39주년을 맞이하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모시고 또 다른 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광이 시작하는 제2의 출발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국제학술포럼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10월 19(토) ~ 20일(일), 신축 불광법당

첫째 날(19일) 오후 1시 30분 ~ 6시, 사회 조은수(서울대)
- 틱낫한 스님과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 틱찬팝캄(플럼빌리지 아시아생활불교연구소 소장)
- 생태적 기업과 나눔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아쇼케 공동체 피쿨 와니차피차트(태국 송클라 국제불교대학)
- 퀘이커 공동체 펜들힐의 정신: 신의 임재와 세상의 치유 스티븐 A. 스미스(클레어몬트 매케나대학 명예교수)
- 떼제 공동체와 젊은이들 희망과 의미를 찾아서 앤써니 수사(서강대 명예교수)

둘째 날(20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20분, 사회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역할- 승가의 현대적 모델을 위한 모색조성택(고려대 교수)
- 한국의 불교공동체와 불교의 미래 유정길(전 예코붓다 대표)
- 성운대사의 인간불교 이념과 특징 먀오광(불광산사 국제부장)
- 승가와 재가의 평등을 지향하는 불광산사와 불광회 먀오판(불광산사 인간불교연구소 연구원)
- 승가와 재가가 함께 만드는 세계적 수행 공동체 마하시 명상센터 담마나나(마하시 명상센터 국제불교포교학교 교수)



대한불교 조계종 | 불광사 불광법회 02-413-6060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www.bulkwangsa.org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선거 종책

‘교구 중심’ vs ‘청정승가’, 한국불교를 짊어질 종책은?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이 선거 종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운영 쇄신 및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종책을 통해 종단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자승 스님 안으로 교구 · 종무행정 혁신
밖으로 불교 사회화 통한 이미지 쇄신

보선 스님 청정성 회복 ‘솔선’ 천명
“제왕적 원장 아닌 봉사자” 누차 강조

대우 스님 비구니 종회의원 10석 증원

장주 스님 선거 직선제 및 분담금 면제

혜총 스님 수행과 전법 중심 제도 개편

자승 스님 “교구 중심이 불교 미래”

가장 먼저 종책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자승 스님이다. 자승 스님은 9월 23일 열린 종책 발표회를 열고 8대 운영기조, 13대 종책, 7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자승 스님의 34대 총무원장 선거의 종책 슬로건은 ‘교구 중심, 한국불교의 미래’로 편중된 중앙의 행정 권한을 지방 교구로 이양해 교구본사가 포교, 교육의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8대 운영기조는 △교구 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 권익향상 △지속적인 자성과 쇄신으로 수행종풍 진작 △총본산 조계사 일대 성역화 완수 △재정기반 구축을 통한 승가복지 △지속적인 승가교육 및 포교 혁신 △불교문화,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서민과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 지속 등이다.

특히 자승 스님이 교구 중심제를 선거 슬로건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간 문제가 됐던 교구 간 행정 불균형과 현장에서 포교와 교육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승 스님은 4년 전에도 교구 특성화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들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자승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해 참종권 확대를 비롯해 비구니부 신설과 특별교구 설립 등을 세부 종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이날 자승 스님 선대위는 △청정수행풍토 진작 △자성과 쇄신의 지속적 추진 △승가복지 확대 발전 △서비스 중심의 종무행정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종단 교육 혁신 지속 △대대적 포교 혁신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현 △불교관련 제법령 개정 △종단 자주성 확보와 교권 확립 등 세부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의 숙원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의 인재를 두루 등용할 것이며 향후 전국 교구본사를 돌며 종단 비전과 미래에 대해 종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겠다. 여기서 의견을 더 수렴하고 보완해 2차 종책발표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보선 스님 “청정승가 구현이 시대 과제”

보선 스님은 교단의 청정성 회복과 중앙과 교구의 협치를 이번 선거의 주요 종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선거 슬로건으로 ‘청정승가 구현으로 위기의 한국불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로 정해 잇따른 범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종단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자승 스님과 차별점을 뒀다.

보선 스님은 9월 24일 종책 발표회를 열고 종책 공약으로 7대 운영기조, 8대 종책, 4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보선 스님이 제시한 7대 운영기조는 △수행종풍 확립과 청정교단 수립 △중앙과 교구의 협치 △공명정대한 종무 행정 △교육의 진흥과 인재양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전법강화 △대승불교의 시대적 구현 △불교문화의 대중화 등이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서 보선 스님은 무엇보다 종단의 청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자신이 솔선해 청정성 회복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될 경우 조계사에서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할 것을 비롯해 △새해에는 종도들과 제방 사찰서 정초 산림 기도 △매월 각지 사찰서 초사흘 기도로 종도와 신도들과 소통 △꾸준한 법회 참석한 통한 법문 등을 약속하며 스스로 솔선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밝혔다.

이날 종책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와의 협치(協治)’ 부분이다. 자승 스님이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 교구로 점진적 이양을 제시한 ‘교구 중심제’를 제시했다면 보선 스님은 중앙과 교구가 역할을 분담하는 ‘교구분권’을 내놓은 것이다.

보선 스님은 “교구 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인식과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총무원장 아닌 하심과 공경으로 교구에 봉사하고 지원하는 총무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비롯해 △직할교구의 독립성와 구역 조정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21세기 한국디지털대장경 사업’ △통일, 환경, 노동 등 종단 내 대사회기구 내실화 등을 당선시 시행할 우선 종책 세부 과제로 소개했다.

대우 스님 “비구니 특별교구 신설”

이번으로 네 번째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대우 스님은 9월 26일 종책발표회를 개최하고 4대 종책 공약을 제시했다.

대우스님은 종책 공약을 △종무수행 부분 △교육포교수행 부문 △재정 부분 △사회참여 부분으로 나눠 제시했다. 종무수행 부분에서는 총무원장 선거의 사부대중 직선제 실시와 임기 5년 단임제 실시, 비구니 스님 3개 특별교구 신설 및 중앙종회의원 10석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분야에서는 상설 행자수행원 신설을, 포교분야에서는 포교원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재정부분에서는 삼보정재 공개와 65세 이상 스님들의 노후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주 스님 “교구본사 중심 및 직선제”

장주 스님은 중앙분담금의 완전 면제를 주요 종책 공약으로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출마인 장주 스님은 △교구본사 중심제 및 중앙분담금 완전 면제 △수행경력 도달 시 전원 원로의원화 △승려 징계제도 혁신 △입법을 통한 대사면 △모든 선거의 직선제 △수행승 우선의 복지불교 등 6대 종책 공약을 제시했다.

혜총 스님 “존경받는 승단이 우선”

혜총 스님은 9월 27일 제34대 조계종 집행부 운영기조로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의 4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혜총 스님은 특히 수행과 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행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원로 중심의 안거수행과 승풍 진작 △일상중심의 생활수행과 제도 마련 △간화선 대중화 위한 법과 제도 마련 △결계 및 포살제도의 발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중장기 수행프로그램 마련 △수행자 대상 평생교육원 운영 △대사회적 봉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전법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과 신도시 거점 포교사찰 설립 △ 교육원과 포교원중심 시스템 개편 등을 약속했다. 또 전문포교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혔다.이어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단 운영에 사부대중을 참여시킬 것을 강조했다. 특히 동진 승가교육기관(영아원, 유치원, 초중고교)을 설립하는 등 동진출가 제도를 활성화해 출가자 감소와 인재 이탈현상을 막고 비구니 스님에 대한 교역직 종무원 증대, 자치책임제 도입 통한 교구본사로의 업무 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적소배치를 통한 인사투명정책 시행 등을 밝혔다. 존경받는 승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임기단임제 실시하고 종교법인법을 도입해 종단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려노후복지제도 마련 추진 계획도 밝혔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비구니 권익 확대 7개 종책안 제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각 선거캠프에 제안서 전달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권익 확대를 위한 종책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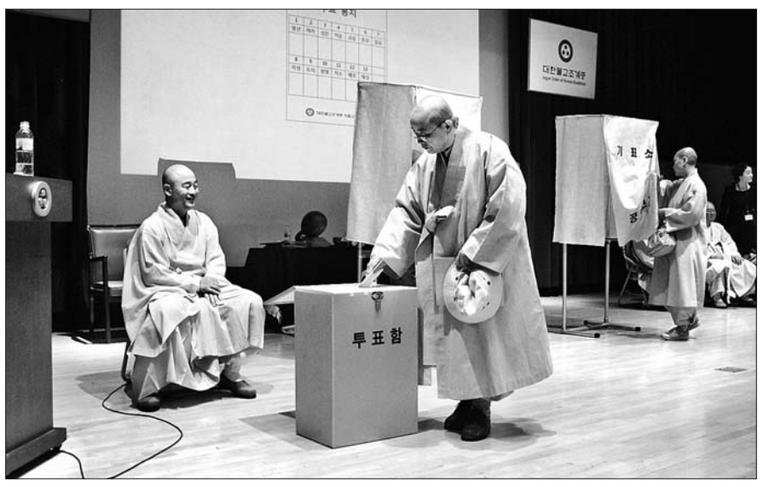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9월 23일 총무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前 중앙종회의원 보선 스님에게 종책 제안서를 전달했다”며 “다른 3명의 후보 스님들과는 시간이 맞지 않아 중앙종회 사무처에 전달을 요청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제시한 종책안은 총 7가지로 주로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종책안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관련법안 통과(비구니 호계의원, 교구종회 30% 할당) △총무원 산하 2인의 비구니부장과 비구니국장 50% 할당 △각 교구본사에 비구니국장 30% 할당 △정부기관이나 종단산하 각종 위원회에 비구니 50% 할당 △(가칭)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의 설립 △전국비구니회를 종단 운영의 정책파트너로 인정 등을 각 선거캠프에 제안했다.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장 일운 스님은 “이번 종책 제안서에 대해 각 후보 스님들께서 정책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드린 후, 비구니 승가가 요구하는 7개항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취임 후 1년 이내 실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후보자를 제 34대 총무원장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교구 선거인단 선출 시작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완료됐다. 조계종 24개 교구본사는 9월 25~29일 교구종회를 통해 교구별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선거인단 인원은 교구별 10명씩 총 240명이다. 종도들의 표심의 가늠자 역할을 해 온 직할교구 선거인단 구성은 자승 스님 측과 보선 스님 측이 5:5로 양분했다.
9월 26일은 2교구 용주사와 6교구 마곡사, 19교구 백양사, 24교구 선운사, 25교구 봉선사에서 27일은 5교구 법주사와 19교구 화엄사에서, 28일은 8교구 직지사, 14교구 범어사, 17교구 금산사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7교구 수덕사와 10교구 은해사, 13교구 쌍계사, 22교구 대흥사에서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가 열렸다. 신중일 기자

“선거 폐단 없애려면 전통기반한 유신 필요”

9월 27일 한일불교유학생회 특별포럼에서 선거개혁 목소리

한일불교유학생회(회장 현해)는 9월 27일 서울 성북구 정법사에서 ‘조계종의 정체성과 지도자상’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단 총무원장 역사상의 제문제’를 발표한 김광식 교수는 총무원장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의 공통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는 “총무원장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모순의 핵심은 선출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총무원장의 권한이 막강함에 따른 귀결이었다. 94년 이후 선거문화가 도입되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광식 교수는 “현행 간접 선거는 세속화, 금권정치, 종단정치, 종단 구성원 간의 대립, 많은 후유증 노출 등 문제를 발생하는 만큼 변화해야 한다”며 율장에 제시된 갈마의 방법을 총무원장 선출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김광식 교수


신규탁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조계종의 종지 · 종통에 나타난 문제점’ 발표를 통해 “법맥 · 문중의식 등 조계종에 남아있는 봉건적 요소를 먼저 없애야 불교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04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 만등불사 · 중악 은빛음악회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가는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04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수행정신과 뜻이 서린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두루 동참하시어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7년 9월

개산대재 대법회 10월 13일(일요일 음9.9)

□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부도전)
11시 육법공양, 개산법요식
오후 1시 30분 보살계 수계식
3시 중악 은빛 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보 살 계

3師 설정큰스님. 혜인큰스님. 법타큰스님

중악(中岳) 은빛 음악회

□ 일시 : 10월 13일 오후3시
□ 출연 : 김혜영, 배일호, 김성환, 장미화, 현숙, 김흥국, 전미경, 박윤경, 박주희, 평양예술단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 종무소 054)335-3318~9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본·말사 www. eunhae-sa.org

부산을 넘어 전국에 울려퍼진 평화의 노래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현장

7만 불자 평화 위한 한 목소리
"공동번영 위해 평화시대 열자"
진제 스님 "분단 터널 나올 때"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대회가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7만여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대오각성하고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 이라는 인류번영의 꽃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 만개시켜야 합니다. 공동번영을 위해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문명' 이라 불러도 좋을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7만여 명의 시민 · 불자들의 간절한 평화메시지가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월 대회선포 이후, 한반도 평화 염원을 위한 7개월간의 불교계의 평화 대장정의 본무대가 9월 27일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원만성료했다.

한반도평화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남구 UN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대회 수륙재' 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의 본대회로 진행됐다.

본대회에서 명고와 명종에 이어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네팔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 을 밝히자, 7만여 대중은 모두 일어나 합장하며 함께 평화를 기원했다. 이어 고불문이 낭독되고 봉행사, 인사말, 영상메시지, 종정법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부산선언 등이 진행되며 평화 염원 분위기는 높아져 갔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나라가 둘로 나뉨에 그 고통스런 암흑 같은 세월이 어언 60여 년에 이름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먼 형제가 되었다. 이제는 분단의 터널을 나와 서로가 마음을 열어 화목한 가운데 평화통일의 기쁨과 자유를 음미해야 한다"며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길 당부했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개최되는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 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완성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인 남과 북 그리고 6자회담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에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민족이 일심단결하는 원동력이 돼온 한국불교가 이 땅에 평화가 뿌리내리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큰 원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각자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 전국의 피난민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도시"라며 "불교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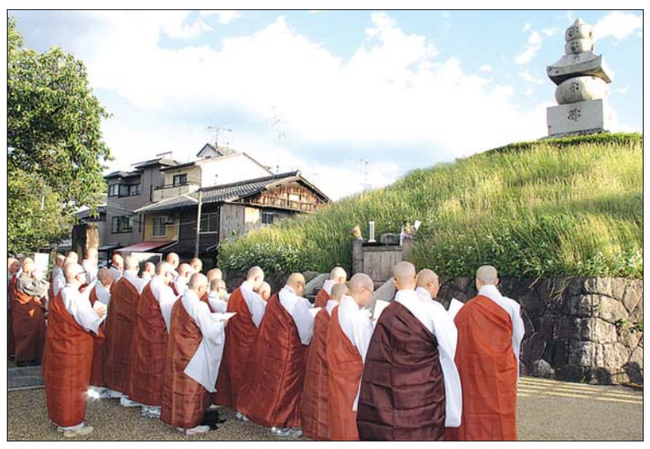
박 대통령 "불교는 평화원동력"
틱낫한 "마음의 평화 찾아야"
오케스트라 등 화합한마당 진행

본대회는 진혼 살풀이, 천도재에 이어 김영동 총감독의 지휘 하에 폴포츠, 바비킴, 인순이, 이선희, 황병기, 이애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등이 출연하는 무대가 진행되며 어울림 한마당으로 꾸며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한국 스님들 임란의 고혼을 위로하다

조계종 교육원, 이총 위령재로 日 사찰 순례 시작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희생당한 조선인 12만 6000명의 귀와 코가 묻혀있는 교토 남선사 인근의 이총(귀무덤)을 참배하는 순례단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위무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 관서지방 일대에서 '보광 스님과 함께 하는 일본 고찰 순례' 를 진행했다,

이들 순례단은 첫 공식 행사로 교토 남선사 인근의 이총(일명 귀무덤)을 찾아 두 번의 왜란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이총은 400여년 전 발발한 왜란으로 희생된 조선인 12만 6000명에게서 베어난 귀와 코가 묻혀 있는 곳이다. 당시 왜군은 전과 보고를 위해 조선인의 귀와 코만 잘라 소금에 절여 본국의 지도부에게 헌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순례단은 이총에 위패를 올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반야심경 봉독으로 넋을 위로했다. 이어 1001체의 천수관음상으로 유명한 '산주산겐도' 절과 청수사를 순례했다. 또한 나라와 오사카의 유명 고찰을 돌며 한일불교 관계사를 새로이 조명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신중일 기자
현장 기사 차주 상보

혜민 스님 〈멈추면…〉 영문판 출간 예정

샘앤파커스, 미국 펭귄출판사와 계약

장기간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는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영문판으로 출간된다.

이 책을 출간한 샘앤파커스는 세계 최대 출판 그룹인 미국 펭귄 출판사와 영문판 출간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샘앤파커스측은 "펭귄출판사 존 시실리아노 시니어 에디터가 이 책이 미국의 2~30대 젊은층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과 미국 문화와의 차이를 고려해 저자인 혜민 스님과의 공동 재편집해 출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서 이미 누적 판매부수 240만부를 돌파한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독자들도 접할 수 있게 됐다.

김주일 기자

사찰 난방비, 지열(地熱) 활용하면 1/4로 감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사찰 내 지열 활용 세미나에서

전기료, 난방비는 사찰 입장에서 언제나 부담이 되는 문제다. 종단 차원에서 사찰에너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유다.

9월 25일 불교사회연구소 주최로 한국불교역사회관에서 열린 '사찰에너지 사용개선 방안과 지열에너지 활용 검토 세미나' 또한 사찰에너지 활용에 관한 종책적 노력의 일부였다. 신 재생에너지 중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열(地熱)에너지 시스템을 사찰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열에너지는 땅 속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열에너지를 순환시켜 건축물의 냉난방을 해결하는 재생에너지다. 겨울에 김장독을 땅에 묻는 이유와 같다. 지열을 이용해 건축물의 보온을 해결하는 것.

"사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개선하는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인사말을 대신한 법안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에너지 절감대책이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미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문제는 사찰 재정비용 절감을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더욱 소명감을 갖고 에너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사찰 연간 에너지비 1억원
초기투자비 10년 뒤 회수 가능

세미나는 지열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실제적으로 지열 시스템을 운영 중인 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지열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언급한 류형규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박사는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이 들쑥날쑥 하지만 지열에너지는 땅 속 50~500M 구간을 이용해 12~25도의 에너지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며 "지열은 건물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에 냉난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열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한 박성구 삼미지오테크 대표이사는 "800평 규모의 건물 난방비는 등유 이용시 월 700만원 가량이지만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그 부담은 1/4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경제성, 내구성, 친환경성 및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열시스템은 사찰에 타당하다"고 했다.

사찰 중에서 최초로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경북 포항 천곡사 주지 정오 스님은 "2005년 당시 660평 규모의 초기 설치비용이 4억원 정도였는데 그중 2억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로 보전되어야 할 사찰을 생각한다면 채산성은 논외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사찰이 1년 평균 1억원씩을 에너지비용으로 쓰는 걸 고려한다면 10년후에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곡사는 비슷한 규모의 여주 신륵사와 비교했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찰 냉난방 시스템별 경제성 분석(김성실 LG전자 기술팀 부장) △사찰 에너지 사용 개선 방안(송용기 삼양에코너지 상무) △사찰에너지의 생태적 관리방안(유정길 에코붓다 이사) 등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배현진 기자

불교의 올바른 실천은 무엇인가

불시넷 9월 24~26일 연속 집중토론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가 34대 총무원장 선거 종책 제안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24일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기념관 3층 보현실에서 열린 첫 번째 집중토론에서는 '불교관과 수행' 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도법 스님(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본부장), 일감 스님(불교신문 주간),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 임장수 중앙신도회 부회장, 현희련 에코붓다 사무국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소종섭 前시사저널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교의 실천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야 한국불교의 실천론과 불교관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스님, 재가교육 다 바꾸자는 얘기다. 종단에서 일하거나 불교계 사회복지재단 종립학교 종사자가 3만명 이상 된다고 한다. 이들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전 종무원들의 안거를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불교의 목적을 구현하는 보살 종무원 제도의 도입, 인권사각지대 · 황제 주지 해결 등을 위한 공개 토론 등의 의견이 나왔다.

불교 인권문제 등 지적
종무원 안거제도 제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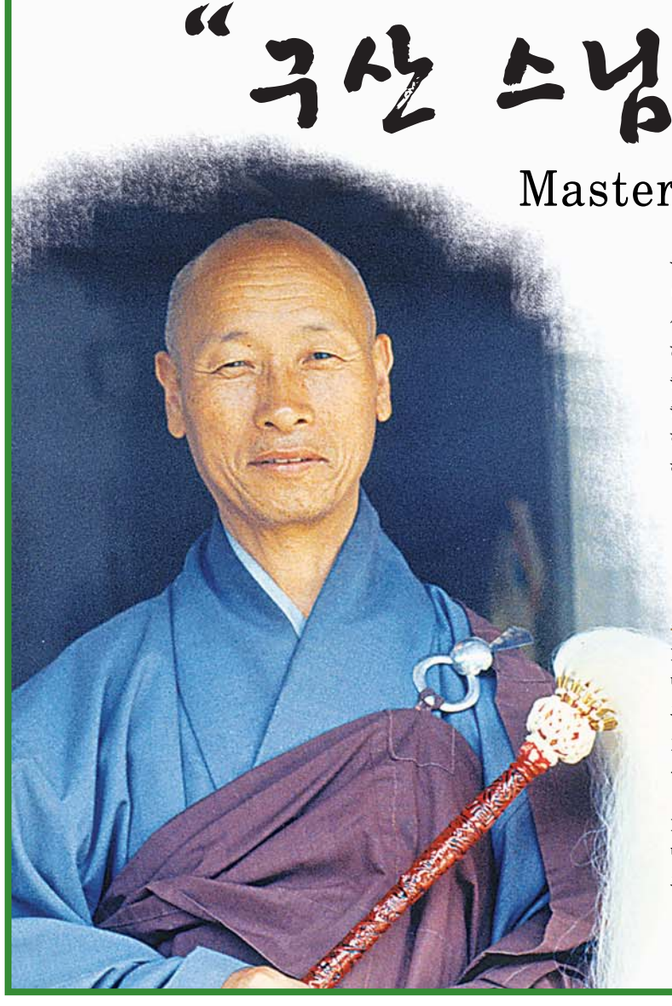
한편, 불시넷은 9월 24일 '불교관과 수행' 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평등한 사부공동체, 사회참여, 공동체문화의 소통 등에 대해서 연속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및 사찰순례

"구산 스님의 생애와 한국 선(禪)의 세계화"

Master Kusan's Lif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eon(禪)



구산(九山 1910~1983)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을 역임한 효봉(曉峰) 스님의 계승자로서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 지눌(知訥) 선사의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재흥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대표적인 선지식입니다. 구산 스님께서는 일반인 중심의 대중수련회를 처음 실시했으며, 불일국제선원을 최초로 개원해 외국인을 출가자로 받아들여 한국의 간화선을 널리 선양하면서 세계화하는데 진력하셨습니다. 또 철저한 수행자이면서도 장문의 혈서를 통해 불교정화운동의 흐름을 주도했고, 대승보살의 실천행인 '육바라밀(六波羅密)' 에 봉사(奉仕)를 하나 더 포함시켜 칠바라밀(七波羅密)을 주창하여 생활화했던 대중불교의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구산 스님 열반 30주기를 맞아 '구산스님의 생애와 한국 선(禪)의 세계화'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참다운 출가자의 사표라 불리는 구산 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통해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게 될 이번 행사에 부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法山) 합장

• 일 시 :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 10월 12일 토요일
• 장 소 :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
• 문 의 : ☎ 02)733-5322

국제학술대회 세부일정 1일차 10월 4일(금)

주제발표 1 구산스님의 사상과 결사
10:10 ~ 11:00
발표 : 고영섭(동국대)
논평 : 윤원철(서울대)
九山 秀蓮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
- 한국불교사적 지위와 한국불학사적 위상

11:00 ~ 11:50
발표 : 김경집(위덕대)
논평 :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九山 秀蓮의 정화와 결사운동'

주제발표 2 구산스님의 사상과 간화선
13:00 ~ 13:50
발표 : 로버트 버스웰(캘리포니아주립대학, UCLA)
논평 : 최연식(한국학중앙연구소)
간화선(看話禪)에 있어서 의정(疑情)의 전환
The Transformation of Doubt(Üijŏng 疑情)
in Kanhwa Sŏn看話禪

13:50 ~ 14:40
발표 : 마틴 배클러(불교 명상지도자)
논평 : 변희욱(서울대)
화두 선과 현대의 만남
The Encounter of Hwadu Seon and Modernity

주제발표 3 구산스님의 사상과 국제포교
15:00 ~ 15:50
발표 : 르노 네우 바우(키토대학, 에콰도르)
논평 : 최성렬(조선대 명예교수)
한국불교와의 인연 : 남아메리카 포교활동에 있어 구산 스님의 가르침과 한국 불교의 통불교적 가치
My Affinities(因緣) with Korean Buddhism : the value of Kusan Sunim's teachings and the Korean Buddhist ecumenical tradition(通佛教) in propagating Buddhism(布教活動) in South America.

15:50 ~ 16:40
발표 : 스티븐 배클러(불교 명상지도자)
논평 : 정덕스님(중앙승가대)
선불교 의심수행(疑心修行)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Doubt

사찰순례 세부계획 10월 5일(토) ~ 12일(토)
• 2일차 10월 5일(토) 방장 스님, 주지 스님 접견 및 경내 관람
• 3일차 10월 6일(일) 효봉 스님의 제사
• 4일차 10월 7일(월)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송광사 주변)
• 5일차 10월 8일(화)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상백운암 → 응석사 → 미래사 → 용화사)
• 6일차 10월 9일(수)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표충사 → 통도사)
• 7일차 10월 10일(목)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동화사 → 해인사)
• 8일차 10월 11일(금)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청암사 → 수도암)
• 9일차 10월 12일(토)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송광사 → 서울 이동)

일 주 문



현성 스님 논산훈련소 수계식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9월 28일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에서 3000 훈련병에게 오계를 설하고 불명을 주는 수계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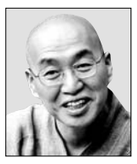
인드라망 가을한마당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0월 26일 신정동 양천공원에서 농도교류 마을축제인 2013 가을한마당을 개최한다.



자비명상 힐링스쿨 개강

(사)자비명상공동체 대표 마가 스님은 10월 5일부터 12주 동안 신촌 카페 섬에서 청소년 및 직장인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힐링스쿨을 진행한다.



좋은벗들 통일체육축전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 스님은 9월 29일 서울 양천구 양강중학교에서 새터민들을 위한 제 11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했다.



한미세계불교문화유산 연수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대표 정범 스님은 '제3회 한미세계불교문화유산 연수단' 참가 청소년을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2)733-8985



불교영어강좌 수강생 모집

권영구 국제포교사회장은 불교 영어 강좌를 위한 수강생을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 수업 기간은 10월 5일~12월 7일이다. (02)-722-2206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공모

접수기간은 9월 27일~10월 8일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대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 기간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로 불교를 주제로 한 모든 분야의 저서 및 역서 등 제한이 없다. 선정된 도서에는 대상 1종, 우수상 2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은 상패와 상금1000만원,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400만원이 수여된다.

9월 27일~10월 8일 불교출판협회에서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기본 서지정보 및 개요(500자 이내) 1부(자유양식) 신청도서 종별 5부, 4권 이상 전집은 2질이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서류는 직접제출 혹은 우편접수하면 되고 접수처는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다.(봉투에는 '불교출판문화상 신청도서'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단, 개정판, 증보판 등과 공공기관출판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기관에서 선정 지원된 도서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발표는 11월말 예정이며, 시상식은 2013년 12월 10일 오후 6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02)2011-1772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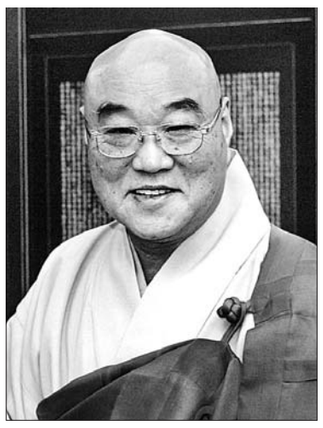
"금오문도 청정수행 가풍 잇는데 최선"

월서 스님, 법주사 조실로 추대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 스님이 보은 법주사 조실에 추대됐다.

보은 법주사는 9월 21일 태전당 금오대선사 45주기 추모다례재를 법주사 대웅보전에서 엄수하고 금오문도회 문장에 월성, 법주사 조실에 월서, 법주사 회주에 월탄 스님을 추대했다.

이날 조실로 추대된 월서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는 조계종을 창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해 종단의 초석을 놓은 분"이라며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주사와 불국사, 금산사가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조실로서 문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문도 기강확립과 금오문도의 청정수행 가풍을 잇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주로 추대된 월탄 스님은 "문도들이 저를 회주로 추대해줬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양하겠다"며 "사형사제 중에 덕망 있는 스님을 모셔 달라"고 당부했다.

대웅보전에서 다례를 마친 스님들은 금오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는 진영각과 금오 스님 부도를 참배했다.

한편, 이날 다례재에는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 설조 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등 문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청담 스님 도제양성 뜻 펼칠 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동국대에 3억 기부

"은사 스님은 평소 포교와 역경, 도제양성의 3대 사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종립 동국대는 불교 인재양성의 산실입니다. 큰 스님의 뜻을 동국대에 모실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전 도제양성을 통한 인재불사를 강조한 청담 스님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동국대에 생긴다. 서울 도선사 청담문도회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9월 23일 동국대에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동국대는 이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강의실과 도서관 열람실, 옥외공원 등 교내 공간에 청담 스님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여기에는 청담 스님의 어록과 법어, 행장 등이 기록돼 공부하는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담 스님(1902~1971)는 왜색불교를 청산하기 위해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어 조계종 통합종단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총무원장과 종회의장, 제2대 종정을 지낸 근대 선지식이다.

혜자 스님은 "은사스님의 도제양성의 뜻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기 위해 문도회 차원에서 이번 기금 전달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청담 문도회는 동국대에 기금 3억원을 기부했다. 사진은 도선사주지 혜자 스님과 동국대 김희옥 총장의 기부금 전달식 장면.

인재양성 위한 청담문도회 뜻모여

청담 강의실 및 열람실 조성 예정

이에 김희옥 총장은 "청담 스님의 고귀한 뜻을 잘 받들어 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사회의 대들보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두 수상자, 새로운 '행원' 다짐

행원문화재단, 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



제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이 9월 24일 역삼동 대려도에서 개최됐다.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9월 24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제22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변영섭 문화재청 청장을 비롯해 양형진 고려대 교수, 동명 스님,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하춘생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등 심사위원 등 30여 대중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예술상에 선화가 동성 스님이 수상했으며 예년과 달리 학술부문에는 특별상으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상을 수상했다.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22년간 534명에게 총 7억 1900여 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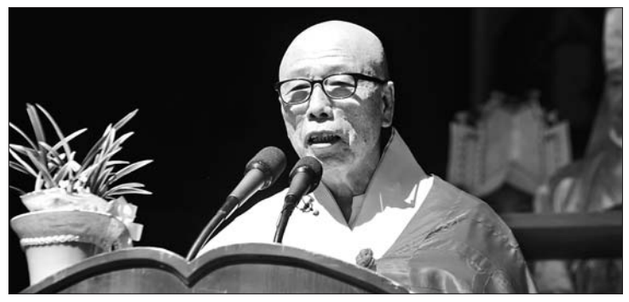
변영섭 문화재청장은 "22년 전 원력으로 꾸준한 활동을 펴 온 노고가 크시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전통문화를 지켜온 이들이 있을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동성 스님은 "대승보살의 원력을 빌지 않더라도 환희와 법열로 오늘 행원을 새로이 세워 항상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동춘 소장은 "범해, 원응, 응송 스님으로 이어지던 한국 차문화 전통이 저와의 시대인연으로 전승됐다"며 "차문화 우수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먼 훗날 이러한 전통이 불교계로 꼭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도산 태고종 신임 총무원장 취임식

종단의 미래 위해 '3가지 분야 8대 운영기조' 밝혀



"선거에 나타난 종단발전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과 의지를 이어받아 한국불교 제1종단의 위상을 구현해 나가겠다"

9월 26일 순천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25대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도산 스님은 태고종단의 현실과 발전에 대한 취임사를 밝혔다. 이날 도산 스님은 종도들에게 '3가지 분야, 8대 운영기조에 따른 향후 종단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종단운영에 대해 스님은 "모든 종도들이 주인역할을 하고 주인대접을 받을 수 있는 종단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린다"며 " 종단의 운영을 모든 종도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종무회의를 확대연석회의로 진행하고 종무행정 상황을 종무원장과 종도들이 공유한다 △종책사업은 종도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며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도 공개한다 △종무행정 권한을 교구 종무원으로 이양 △'종도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 △대 사회포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회 조직 활성화 및 '교임 · 전법사부'를 신설한다.

도산 스님은 이어 "교육제도의 정비와 사정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승가전통을 확립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방안으로 △일원화된 교육제도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부원장' 직의 부활 △종단 교육기관 지원 확대, 지방교육기관 수료자의 학위 인정 제도화 △행자교육 전담하는 '정수원' 제도를 부활 △법계시행의 규정을 엄수하여 위계질서 정립 △ '종도참여심리제도'를 시행 △종단차원의 '승려전문요양시설' 설립을 목표로 할 것 등을 밝혔다.

도산 스님은 종단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부채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정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 재정확충이라는 미명하에 승가의 삼보정재가 영리목적 사업의 담보로 제공되고, 매각까지 하는 훼불행위에 대해서는 발생사유와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법회는 종정 혜초스님,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정사(진각종 통리원장), 강창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2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용호복지관-PPG코리아 사회공헌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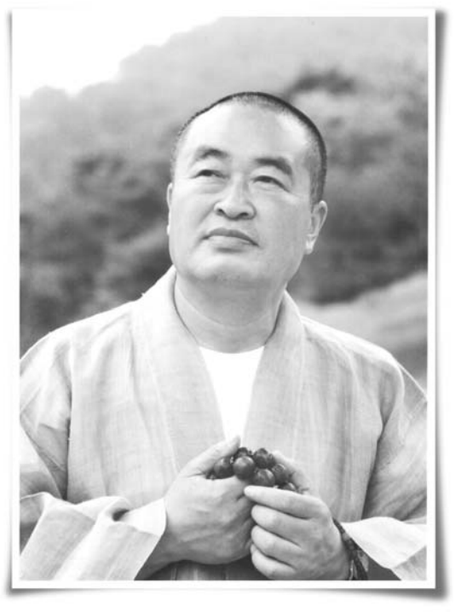


용호복지관-PPG코리아 협약식 장면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PPG코리아(대표 권지용)와 함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PPG코리아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성금 5백만원을 기탁하고 9월 28일 부산 남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벽화를 조성했다. 이 자리에는 서용교 국회의원 및 지역구 의원들과 PPG코리아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이춘성 관장은 "PPG 사회공헌활동에 고마움을 넘어 책임감을 느낀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삼중 스님 병환중 투혼의 금강경 대법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 마음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오신
박삼중 스님.

지금은 당신 자신이
혈액투석을 받는 병환중인데도
또 다시 원을 세우시고 불자들을 위한
『금강경』강설을 계획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말씀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바르고 쉽게 이해시켜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려는
삼중 스님의 감동과 투혼의 대법회에
불자님을 간곡히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3년 10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장 소 : 서울 중구 중림동 보덕사 대웅전
(충정로역 5번출구 → 중림파출소,
파출소 옆길 50미터)

☎ 02)363-9893

서울 만리산 보덕사



9월 25일 열린 이운식에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가운데)이 대장경판을 옮기고 있다.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에는 〈금강경〉 등 진본 경판 8점이 일반에 공개된다.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공연 프로그램

구 분	행 사 명	일 정	장 소
주제공연	대장경 오디세이	9월 27일~ 11월 10일	보리수 공연장
특별공연	해외 축하사절단	9월 27일~9월 29일 10월 9일~10월 11일	천년의 마당
	평양민속예술단	9월 27일, 10월 6일, 13일	보리수공연장
	MBC라디오공개방송	9월 28일	보리수공연장
	코믹마임서커스	9월 29일, 10월 3~5일 12일	보리수공연장
	김창완밴드 콘서트	10월 3일	보리수공연장
	세씨봉 콘서트	10월 12일	보리수공연장
	부활 밴드 콘서트	10월 18일	보리수공연장
	KBS라디오공개방송	10월 25일	보리수공연장
	노리단 퍼레이드 미요토시 오도리	10월 26일~27일 10월 27일	천년의마당 보리수공연장
	직장인밴드 경연대회	11월 2일	보리수공연장
해외문화공연	인도문화공연 '사뜨리아'	9월 30일~10월 2일	보리수공연장
	러시아문화공연 '미치타'	10월 14일~22일, 24일, 26~27일	보리수공연장
	멕시코문화공연 '로스 차를로스'	10월 28일~11월 10일	보리수공연장
경남문화공연	경남생활인음악협회 및 오광대 등 지역 놀이마당	9월 27일~11월 10일	보리수공연장 및 천년의마당
Boom-ing 이벤트	오페라 대장경	9월 28일	해인사 대적광전 앞
	함께 만드는 초대형 대장경판	10월 9일	천년의마당
	대형 달마도 그리기	10월 19일	천년의 마당
소리길 프로젝트	소리길 테마로드	9월 27일~11월 10일	소리길
	가을산책 사진공모전	9월 27일~10월 31일	소리길
	꿈나무 풍경화 사생대회	10월 12일	소리길
	패밀리 소리길 걷기 행사	10월 20일	소리길

불교경전 정수, 그 지혜를 알리다! '대장경 축전'

9월 26일 2013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막
사전행사로 25일 진본 경판 이운식 봉행

해인사 경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장경판전.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팔만대장경판이 일반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해인사 스님들조차 쉽게 볼 수 없는 진본경판의 모습에 판전 앞에 서있던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절로 숙연한 마음에 합장을 했다.

해인사 판전 경판 이운식

외침에 맞서 온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대장경을 조성한 그 뜻을 알리는 '2013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이 9월 25일 합천 해인사 판전의 경판 이운식(移運式)을 시작으로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날 이운식에는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 해인사 기획국장 원창 스님, 보존국장 성안 스님 등 해인사 스님 50여 명을 비롯해 김이수 대장경축전조직위 위원장 등 1000여 불자들이 함께 했다. 대장경 진본 경판이 일반에 공개되기로는 10년 동안 네 번째.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8장의 경판이 외부로 옮겨졌다. 이날 공개된 진본 경판은 〈금강경〉, 〈석가여래유적도〉, 〈불설염주경〉,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주본〉,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진본〉, 〈불설대부모은중경〉 등이다.

진본 경판들이 스님들의 손에 의해 알록달록 비단천을 두른 연꽃가마에 안치되자 부처님 명호를 새긴 만장을 앞세우고 취타대의 흥겨운 음악과 함께 경내를 함께 돌며 경판의 이운을 부처님께 고했다. 1000여 불자들이 가마의 뒤를 따랐다. 해인사 일주문을 지난 진본경판은 무진동차에 옮겨져 대장경축전 본행사장의 대장경천년관 보존실로 옮겨졌다.

이날 대장경천년관 기록문화관에는 〈화엄경변상도〉를 찍은 80점의 화엄변상도 인경원본도 함께 전시됐다. 〈화엄경변상도〉는 광대무변한 〈화엄경〉 가르침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80장의 목판화로 정교하고 화려해 대장경화의 진수로 알려져 있다.

해인사 보존국장 성안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한 스님들도 해인사 판전의 진품 경판을 쉽게 볼 수 없다. 대장경판을 새긴 선조들의 마음을 되새기고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특별히 진품을 공개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9월 25일 〈금강경〉 등 진본 경판 이운식 봉행
26일 개막식, 소리길 체험 및 마애불 탐방 특색
대장경 테마파크에선 대장경 제작과정 및 정신 소개

해인사 마애불 최초공개

이운식에 앞서 해인사는 그동안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해인사 중봉의 마애불입상(보물 제222호)도 공개했다.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 마애불입상은 해발 1000m인 가야산 중봉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높이 7.5m, 너비 3.1m 크기다. 그동안 해인사 수원지에 위치해 스님들과 신도 일부만이 찾을 수 있었다.

기획국장 원창 스님은 "해인사는 풍수지리상 배가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 마애불은 바로 선장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며 "해인사에서 돗대 역할을 하는 돗대바위와 함께 행주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원창 스님은 이어 "영험함에 정진 중에 막히면 마애불에서 기도를 올리는 스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마애불입상 탐방로 안내를 맡은 종고 스님도 "동쪽 해인사와 대장경을 굽어보고 있어 마치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하는 모습과 같다"며 "특히 가장 아래의 대중을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아 새긴 것"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스님들이 일년에 세 번씩 헌공다례제 등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3대장경축전, 세계인의 문화축제

9월 26일 대장경테마파크에서 열린 2013대장경축전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24개국 주한대사 가족 45명 등 5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대장경조직위원회는 총 300만 명 이상이 축전기간 동안 해인사와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 10일까지 해인사와 대장경 테마파크 일대에는 해인사와 연계한 소리길 힐링체험, 암자비경 탐방, 해인아트 전시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해인사부터 대장경 테마파크까지의 6km 구간에 구성된 '소리길' 은 행사의 백미로 꼽힌다. 단풍으로 유명한 가야산 홍류동 계곡을 따라 나있는 소리길은 팔정도를 주제로 한 테마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사찰 국제예술제인 '해인아트 프로젝트' 에는 전세계 예술가들이 45일 간 해인사에서 느낀 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대장경 테마파크 안에는 주제관인 대장경천년관을 비롯해 5D 입체영상관, 고려대장경역사관 등 8개 전시실이 구성돼있다. 이중 대장경천년관에는 대장경 진본 전시실을 비롯해 대장경 신비실 등 9개 주제 공간이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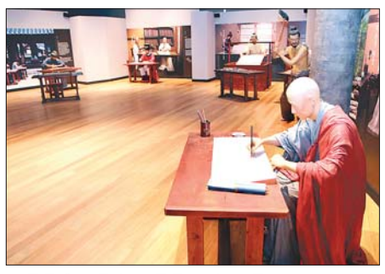
한편 입장료는 성인기준 1만원이며, 입장권만 있으면 해인사, 영상테마파크 등 합천 관내 주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사무실(055-211-6251)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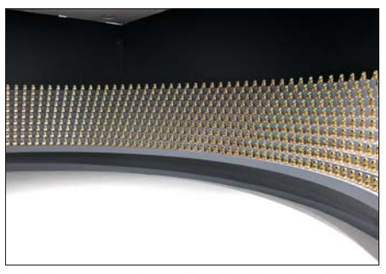
합천 해인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장경 판전에서 대장경 경판을 이운하고 있다.


본 행사장 이운에앞서 경내를 도는 이운행렬.


해인사 일주문 앞에 펼쳐진 해인아트프로젝트


대장경천년관의 대장경 조성 과정 모형


대장경테마파크의 '색즉시공' 주제 전시물


해인사 중봉에 위치한 마애불입상



개산조 스님의 산문 연 큰 뜻 기리자

전국사찰, 개산대재 맞아 법회 마련

해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할 즈음이면 전국 사찰에서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개산(開山)은 처음으로 산문을 연 날이라 해서 '개산대재'라고 부른다. 통일신라 말 구산선문이 전 국토에 개창되면서 개산조와 개산을 기리는 행사들을 각 산문에서 행해왔다.

각 산문의 법손들은 그 산문의 명맥을 유지하고 형세를 알리고 조사나 개산조의 창사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개산재일을 기념해오고 있다. 최근 사찰들은 학술대회, 전시회, 축제 등을 곁들여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서울 **봉은사**는 개산 1219주년을 맞아 다례재, 국화축제,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0월 2일 오후 2시 보우당에서 '보우대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10월 5일 역대조사를 기리는 다례재와 봉은탑 제막식 등을 연다. 10월 13일까지 진여문과 법왕루에서 국화축제를, 10월 5~7일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 바자회 및 템플문화한마당을 개최한다. 또한 봉은사의 지나간 시간들을 알 수 있는 건물, 사람들, 행사 등의 기록을 전시한 특별사진전인 '봉은사, 시간의 강물'을 연다. (02)3218-4800

서울 **진관사**는 10월 12~13일 개산 1003 주년을 기념해 '진관사 국행 수륙무차평등대재'를 봉행한다. 수륙무차평등대재(水陸無遮平等大齋)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해 물이나 육지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 등의 혼령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음식을 베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說)해 그들을 구제하는 재 의식이다. 8월 26일 입재를 시작해 49일간 기도를 진행한 진관사는 10월 12일 회향일을 맞아 대규모 의식을 거행한다. (02)359-8410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혜철국사(惠哲國師)가 창건한 영천 **은해사**는 제1204돌을 10월 13일 맞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제'를 비롯해 보살계 수계식, 개산법요식, 작은음악회 및 만등 점등식을 거행한다. (054)335-3318


2005년 대구 동화사는 개산대재를 봉행, 극달화상 영정 이운식을 거행했다.

남양주 **봉선사**는 10월 11일 봉선사 개산대재 및 역대 조사 헌공다례식을 진행한다. (031)527-1951

양산 **통도사**는 창건 1368주년을 맞아 10월 9~13일 통도사에서 '2013 영축문화축제'를 개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와 공연 등을 진행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자장율사 친착가사를 전시하며, 9일 괘불탱 특별전도 선보인다. 또한 도서관 앞에서는 가을국화장엄, 매화그림전,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물관 앞 일대장터에서는 불교문화, 차문화 및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며, 컵등·소원지 팔각등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열린다. 이밖에 9일에는 방송인 김병조 씨의 진행으로 문화공연이, 12~13일 지역 국악명인과 연예인을 초청해 '작은음악회'가 개최된다. 6일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사생대회가 열리며 12일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다문화 공연이 열린다. 이밖에 통도사는 10월 12일 전계의식과 선다회원 부도 헌다를 설법전과 부도전에서 열며, 13일에 괘불이운과 헌공 및 법요식을 거행한다. (055)382-7182

부산 **범어사**는 개산 1335주년을 맞아 10월 26일 개산대재법회를 범어사 대웅전에서 봉행한다. 금정총림 범어사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지유스님의 취임 고불식과, 팔관재계와 조사를 기리는 다례재를 거행한다. (051)508-3122

김제 **금산사**는 10월 26일 경내에서 창건 1414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조사전에서 역대조사에 대한 헌다례와 부도전 참배, 육법공양, 기념대법회 등으로 진행한다. (063)548-4441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세계의 사찰음식 봉녕사서 맛보자

봉녕사, 10월 4~5일 세계사찰음식 대향연

한국 전국 사찰음식 뿐 아니라 티베트, 네팔 등 세계사찰음식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는 10월 4~5일 경내에서 '제5차 봉녕사 세계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한다.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2009년 첫 개최 이래 세계인과 나누는 국제행사로 경기도와 수원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찰음식을 알리고 일본, 중국, 스리랑카, 미얀마, 티베트, 네팔 등 불교국가의 사찰음식을 비교해보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4일 첫날에는 △경연대회 음식 시식 및 평가 △우관 스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찰음식' 강의 △시인이자 서양화가인 나혜석이 즐겨먹은 봉녕사 비빔밥 퍼포먼스 △육법공양 △세계사찰음식 소개(일본, 중국, 스리랑카, 미얀마) △불교 다도 시연 △법고시연, 스님들의 탁발순례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지견 스님의 '정성과 기다림의 지혜-부각' 강의 △육법공양&붓다요가 △세계사찰음식 소개(일본, 중국, 스리랑카, 미얀마)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산사음악회 공연마당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람에만 그치지 않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육바라밀'을 테마로 50여 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보시' 부스에서는 나만의 사찰음식 레시피를 선보이는 사찰음식경연대회가 열리며 '지계' 부스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 및 7개국 사찰음식이 전시된다. '인욕' 부스에서는 봉녕사 학인 스님들과 7개국 스님들의 탁발순례가 열리며, '정진' 부스에서는 우관·지견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와 7개국 사찰음식 소개가 마련된다. '선정' 부스에서는 불교다도시연을, '지혜' 부스에서는 세계사찰음식전시와 체험마당·먹거리마당·바자회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봉녕사는 중국 임제종 종정스님, 스리랑카 방장스님 등 외국 고승을 초청해 해당 불교국가의 수행과 계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비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사찰음식교육관인 '금비라(金毘羅)'를 개관해 5일 개관식을 열며, '사찰음식 전문가 금비라 1기 초급반' 과정도 개설한다.

주지 자연 스님은 "글로벌 시대에 맞게 한국의 전통사찰음식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세계의 주요 불교국가들을 초청해 한국의 봉녕사 사찰음식을 세계로 알리고, 다른 불교국가의 사찰음식을 함께 비교해보는 즐거운 파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의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사찰음식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031)242-5412

이나은 기자

"햇고구마 캐기 직접 체험을"

인드라망생협,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은 고구마가 출하되는 시기를 맞아, 10월 12일 강원도 횡성 포동리의 제철꾸러미 생산지를 탐방하고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탐방하는 횡성군 포동리의 제철꾸러미 생산지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에서 귀농교육을 받고 정착한 귀농자들과 지역민들이 이룬 마을공동체이다. 소농 중심의 생태 순환 농업을 지향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경작하고 있다.

제철꾸러미 사업은 마을의 어르신들과 아낙들의 손길로 이루어진다. 전날 캔 나물과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두부,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유정란, 직접 키운 콩나물을 챙겨 매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제철꾸러미 사업으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의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귀농자들의 정착을 도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탐방에서 참가자들은 제철꾸러미 생산지를 둘러보고 생산자와 만나 생산과정을 듣는다. 좋은 먹거리가 무엇인지 제철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험학습 생산지를 견학한 참가자들.

유기재배한 햇고구마를 직접 캐는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10월은 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로 줄기를 따라 매달려 나오는 고구마를 캐며 수확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직접 캔 고구마는 어른 1인당 5kg, 어린이는 2kg씩 가져갈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참가 접수는 10월 4일까지 인드라망 생협에서 받는다. (02)576-1882

절에 다니는 친구들 모여라!

직할교구·어청위, 10월 6일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사찰법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함께 뛰어노는 한마당이 열린다. 조계종 직할교구(총무원장 자승)와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10월 6일 오전 10시 중앙승가대학교 운동장에서 '제3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사)동련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이 주관하는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팀대항 체육대회 △사찰 음식 체험 △어울림 한마당 △시상 및 회향식 등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찰음식체험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찰음식을 체험하면서 발우공양의 의미를 배우고 비움을 실천할 예정이다. 또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동행에서 진행하는 '아프리카 학교건립 불사' 캠페인을 안내해 어린 천진불들에게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계획이다. (02)738-7860

이나은 기자

美 사찰·유수대학 탐방해요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한미불교문화유산 연수단' 모집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가 청소년들을 한국불교 인재로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미세계불교문화유산 연수단'에 참가할 청소년을 모집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연수는 정범 스님과 형전 스님(정원사 총무)을 지도법사로 오는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미국 동부지역 일대에서 진행된다.

미 동부와 서부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과 함께 하버드, 콜롬비아, 예일,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등 대학 탐방을 비롯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엠파이어빌딩 전망대 관광, UN본부, 자유여신상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뉴욕 불광선원, 원각사, 프로비던스 젠센터도 순례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dourim.net)에 접속 후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kbin8985@naver.com)이나 팩스(02-733-8985)로 접수하면 된다.

이나은 기자

사회적 기업 창업 강좌 10월 11일 개강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 좋은날'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10월 11일~11월 22일까지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불교사회적 기업 창업을 위한 아카데미 6기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3시간동안 진행되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송남철 육성평가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불교 사회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 아이템, 판로지원 현황 등을 강의한다.

수강모집은 10월 10일까지로 30명까지 선착순이다. (02)732-7273

노덕현 기자

군종교구, 남수단 파병 장병 환송법회

불교계가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파병을 떠나는 장병들을 위한 환송법회를 열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25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남수단 2진 파병 장병 환송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초청법사로 참여해 법문했으며 군 간부와 장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장병들이 파병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주와 호신불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어르신 큰잔치 풍성… '노풍당당' 시니어

10월 2일 제17회 노인의 날
교계 각 복지관 행사 마련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에서는 축하공연 및 어르신 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2011년 조계사와 종로노인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교계 노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어르신 위문공연 모습.

강북, 특별공연·무료중식제공
신사, 무료 건강검진 실시
광진, 실버가요제 열어

서울노인, 효콘서트 등 개최
일산노인, 효사랑 가요제
지역사회 경로효친사상고취

불교계 복지관이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며 어르신 심신의 건강증진 및 상호간 결속력 증대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서울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 02-999-9179)은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천태자비시니어 孝축제'를 개최한다.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을 모시고 길놀이, 특별공연을 비롯해 무료공연과 기념식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 02-385-1351)은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2000명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를 펼친다.

서울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 02-376-4141)은 10월 2일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연계해 무료건강검진을 진행한다.

보련 스님은 "노인의 날을 맞이해 지역내 경제적으로 열악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절한 진료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더 활력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4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제11회 실버가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20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게 된다. 또한 11일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9988해피투게더'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한마당을 마련한다. 이밖에 10월 11일 광진광장에서는 '광진구 가수왕 선발대회'를, 10월 25일에는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착한소비축제'를 마련해 지역 어르들을 위한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 031-918-8677)은 10월 11일 오후 2시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고양 효사랑 가요제'를 연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연합해 마련한 이번 가요제는 효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가족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참여해 노래경연을 펼치며 유명초대가수의 공연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9월 26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어르신을 위한 효(孝) 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꾸며진 문화마당과 건강검진, 치매검사, 노후상담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100세 마당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공연뿐 아니라 건강검진 등 행사 대부분이 재능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5인조 여성퓨전국악밴드인 Queens와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댄스동아리의 공연이 선보였으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매직 마술쇼를, 향토 소리꾼인 이걸재 공주 석장리 박물관장이 공주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을 불러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또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종로구치매지원센터는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치매검사를 무료로 실시했으며,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와 국민연금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민생상담과 노후설계 상담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상담개발원, 상담 활성화에 박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와 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9월 23일 전법회관에서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불교계 복지단체와 손을 잡고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9월 23일 전법회관 6층 사회복지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전문적인 불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불교사회복지 및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체계적인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불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불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불교상담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불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불교상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 부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9월 26일 불교상담개발원과 '노인상담 활성화와 상담종사자 전문성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어르신 전문 상담 기관으로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에 불교사회복지 및 불교상담기법을 도입해 노인상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담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이번 업무협약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00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 설립한 이후 불교상담과 교육을 통해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불교상담 활동영역의 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는 한편,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호스피스, 드라마로 말하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10월 18 창립 4주년 세미나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지현, 이하 협회)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창립총회 및 호스피스 시연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10월 18일 오후 1시 부산 관음사 환희노인요양원 5층 대강당에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총회법회에는 협회총재 포교원장 지원 스님, 협회장 지현 스님, 협회상임이사 능행 스님, 완화의료 호스피스협회 이창걸 이사장 외 호스피스 관계자 및 전국7개 지부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날 호스피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호스피스 실천가 2명에 대한 'The 아름다운 사람' 봉사상을 포상할 계획이다.

2부 창립 4주년 기념 호스피스 시연세미나 발표는 백승완 연구위원(부산대학병원 의무부총장)의 기조강연과 대구·울산·부산·제주지부 등 총 4팀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드라마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연세미나를 연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는 호스피스 현장에서 그려지는 드라마 같은 삶의 이야기를 호스피스 실천가들이 연극을 통해 직접 전하는 호스피스 시연세미나로서 호스피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052)255-8530

이나은 기자

가족사진 응모하고 상품권 받자!

경북구미아동보호기관, 10월 31일까지 행복사진공모전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공곡)은 '제8회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연다. 사진주제는 아동을 포함한 행복한 가족구성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며, 응모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기간은 10월 1~31일까지 한달간이며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gumi1391.or.kr)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입상작에는 대상(1명) 60만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금상(1명) 30만원, 은상(2명)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동상(5명) 10만원 상당의 식사권 등이 주어진다.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복한 가정 및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매년 행복가족사진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054)455-1391 이나은 기자

'학습코칭 멘토 동아리' 사업 실시

우리금융그룹, 중림종합복지관에 1천만원 기탁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금융그룹 지정기탁사업 '학습코칭 멘토 동아리'를 활용한 저소득 청소년 진로중심 역량강화 프로그램(PACE 'Plan?Action-Check-Eval')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과 멘토 동아리의 1:1 개별 학습코칭활동 및 집단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진로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직업선택에 관한 합리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PACE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습·정서지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우리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청소년 밴드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이용갑 관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 청소년 복지부문에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62-3348 이나은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10월 중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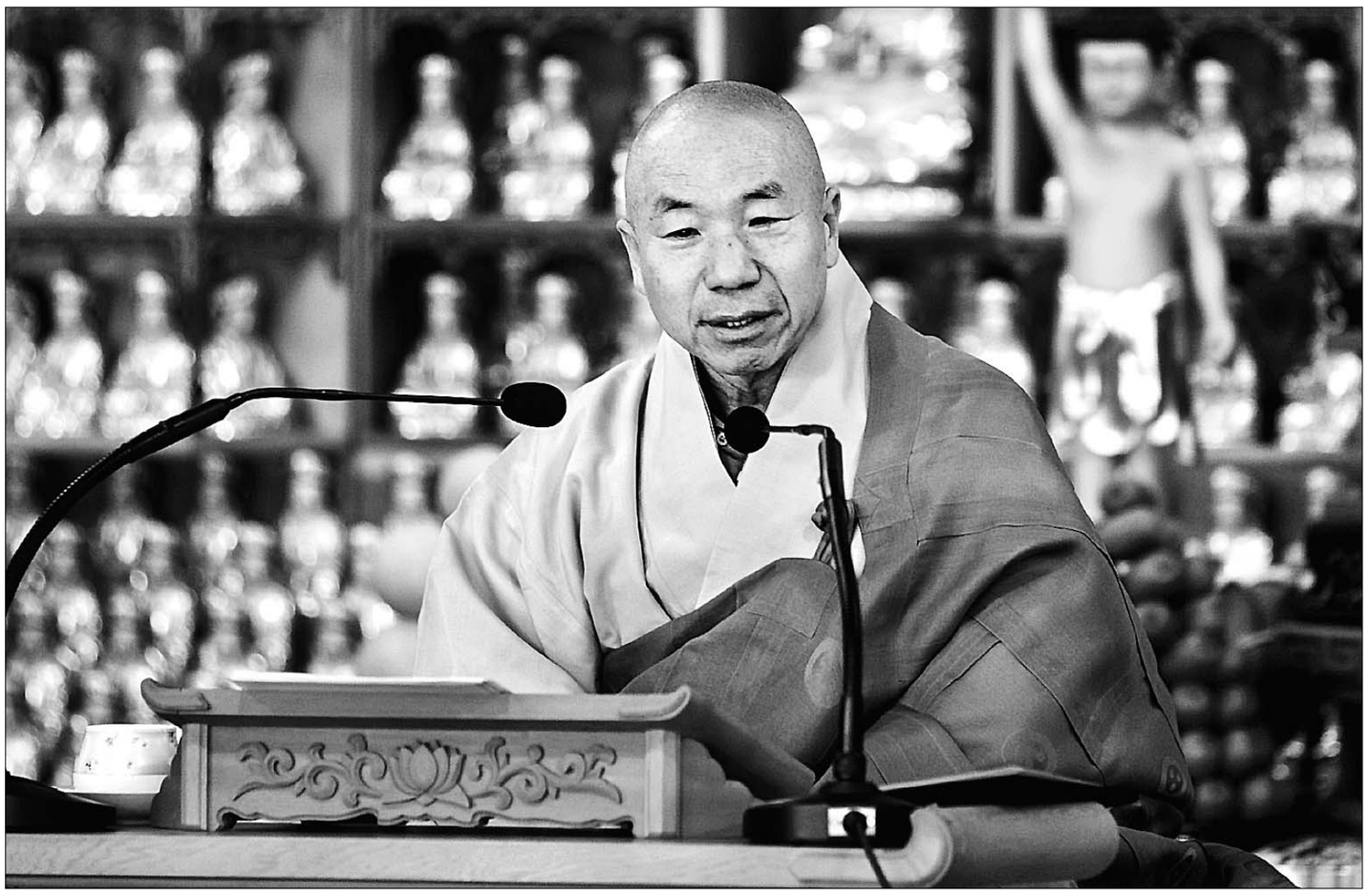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불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종교”

봉은사 초하루 법회

향적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 미혹함을 떨치면 바로 부처님 지위에 이른다는 말처럼 운명을 단번에 변화시키는 방법은 중생처럼 살지 않고 절실히 기도하는 것에 있다고 향적 스님은 말했다. 그렇기에 불교는 운명을 논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도 했다. 9월 5일 봉은사에서 열린 초하루 법회를 통해 이를 확인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향적스님은 … 1967년 일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해 월간지 〈해인(海印)〉을 창간하고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가톨릭 수도원 삐에르-끼-비에서 불교와의 수행방법을 비교하고 돌아와 조계종교육원 초대 교육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승가 기초교육을 체계화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 초대 관장을 맡아 박물관을 개관했다. 불교신문 사장, 동국학원 감사 등을, 불교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5대 중앙종회의장을 맡고 있다.

중생처럼 살지 않으면 운명이 바뀐다

오늘 법회 주제는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종교’ 입니다. 운명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접하고 자신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때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바꾸기 위해 절에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참선하고 간경과 주력수행을 하는 것 또한 자기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죠.

부리를 바위에 찧어
새살이 돋게 하는 독수리
덕분에 30년 더 살아

부처님이 ‘인생은 고(苦)’ 라며 사성제를 이야기하셨을 때, 이는 태어난 자체를 ‘고’ 라고 여기신 걸까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생명체는 고통스러운 존재일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 란 날 때부터 지닌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만족하며 지내십니까. 자식도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고 가족, 친구한테도 섭섭해 할 때가 많죠. 그것이 다 고통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면 운수나 팔자를 떠올립니다. 이미 정해진 것,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 노력은 쓸모없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 등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가족, 친척, 친구 등과 관계를 맺으며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이유죠. 가정이 어렵다거나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할 때면 사람들은 운수소관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모습은 누구나 비슷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을 낳고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는 것 등이 말입니다. 혈액형별 성격을 보아도 O형은 활발하고 A형은 소심하다고 하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전혀 안 맞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통계학적으로 인간의 삶과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관상, 사주 이런 것들 또한 옛날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결과를 낸 통계학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가정도 꾸리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기에 이런 통계학에서 예외가 됩니다. 사주나 관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생처럼 살지 않으면 자기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들 또한 ‘부처가 되려 하지 말고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라’ 는 말을 듣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지키는 거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운명이 바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크게 세 가지 사상 부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길흉화복은 브라만이라는 범신이 주재한다는 존우론적인 사상은 신이 이미 나에게 정해놓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신분차별인 카스트 제도를 탄생케 했죠. 또 한 사상은 숙명론이라고 팔자소관에 부쳐버리는 운명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전생에서부터 현생의 삶이 정해졌기에 기도한다고 혹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무인무과론(無因無果論)이라고 인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둑질, 살인을 해도 죄의식이 없기에 사회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러나 부처님은 당시 이러한 운명론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깨우쳐주기 위해 저잣거리로 나가 끈을 주어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냄새 맡게 합니다. 향내가 나기도 하고 생선냄새가 나기도 하는 등 주어온 끈마다 냄새가 다르죠. 이에 부처님은 말합니다. 끈의 원료가 향이어서 혹은 생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듯,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운명과 신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귀족이 될 수도, 천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팔만사천경에 법문하신 내용도 이것입니다. ‘너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라’ .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도 출가하시지 않았다면 강대국들의 틈에서 전전긍긍하는 소왕국의 왕으로 생을 마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망을 끊는 위대한 포기를 하셨기에 강대국 왕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상, 사주 중에서도 최고봉으로 치는 것을 주역(周易)이라 합니다. 주나라 때 만든 것입니다. 역(易)이란 변화를 뜻합니다. 날 일(日)자하고 달 월(月)자하고 합쳐진 거죠. 태양과 달의 변화에 따라 사계절이 변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지혜를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주역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주역이란 로또에 당첨되게 하고 신통을 부려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오늘의 운수를 챙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주로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람이 조심하다 보면 사고가 덜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만하기 때문에 불행이 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 골이 생기는 것도 주로 자존심 때문이잖아요. 오만과 자기(自己)라는 것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깊은 선정을 닦은 스님들의 도와 덕에 대한 교훈을 모은 책인 〈선림보훈〉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복은 서로 맞물려 있고 길흉도 한 곳에 있는데 사람 스스로가 이것을 부를 뿐이니, 어찌 깊이 생각치않을소냐. 혹 기쁘거나 성난 감정을 멋대로 부린다면 관대하던 포용력이 좁아지게 되고, 사사로운 마음으로 사치하며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이는 모두 사람으로서의 급무가 아니며, 실로 방자함의 싹이자 재앙의 바탕이다. 재앙이 복을 일으킬 수도, 복이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려움이 많으면 뜻을 이루고, 어려움이 없으면 몸을 잃는다’ 고 하셨다. 얻는 것이 있으므로 잃게 되며, 잃기 때문에 또 얻게 된다. 이로써 복은 요행으로 구하지 못하며, 복을 얻는 것도 그저 틈을 엿보기만 하여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스럽게 살 때 재앙을 염려하면 그 복을 보전할 수 있고, 얻고 난 뒤에도 잃을까 염려하면 얻을 것이 반드시 이어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고, 다쓰러졌을 때에도 혼란함을 잊지 않는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지니고 살면 마음이 겸손해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뜻을 이루고 어려움이 없으면 몸을 해친다’ . 운명이란 이와 같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

부처님은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욕망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이며, 그 의지가 곧 그의 행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은 곧 그가 받게 될 결과이기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운명이란 욕망에 의해 좌우 되며, 운명을 못 바꾸는 건 조그만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 기도를 하죠. 기도(祈禱)라는 단어 중 기(祈)자는 보일 시(示)에 삼갈 근(斤)이 합쳐진 것이고, 도(禱)자는 보일 시(示)에 목숨 수(壽)가 합쳐진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삼가는 걸 보여준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갈 때 목욕재계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죠.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삼가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또한 목숨 바쳐서 해야 기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도’ 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수명 정하는 독수리처럼
운명을 바꾸려면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해야

기도는 매일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기도로 수행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백일기도를 하고 삼천배를 할 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오로지 바라는 바에 집중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은 중생의 나쁜 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큰 공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실해야 합니다. 3주의 금식기도 끝에 간디는 인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독수리는 보통 30년을 살면 부리도 무뎌지고 날기도 힘들어 걷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6개월간 금식을 하면서 무딘 부리를 바위에 찧어서 새부리가 나오게 하고 이 부리로 깃털을 뽑고 발톱도 다 뽑습니다. 피범벅을 만들면서 자신을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만한 각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구산 스님 재조명 외국 제자들도 나섰다

보조사상연구원, 10월 4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버스웰 교수 등 '한국 선 세계화' 모색
학술대회 후 구산 스님 발자취 순례

한국 간화선을 세계에 알린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의 입적 30주기를 맞아 외국인 제자들이 직접 구산 스님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과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구산 스님의 생애와 한국선(禪)의 세계화' 라는 주제로 10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종로 법련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구산 스님은 조계종 초대 종정인 효봉 스님의 계승자로 일반인 중심의 대중수련회를 처음 실시했으며, 국제선원을 최초로 개원해 외국인을 출가자로 받아들인 근현대 선지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산 스님에게 불교를 배운 △로버트버스웰 美UCLA 교수가 '간화선에 있어서 의정의 전환' , △마틴 베즐러 佛 불교명상지도자가 '화두선과 현대의 만남' , △스티븐 베즐러 佛 불교명상지도자가 '선불교 의심수행의 역사' , △르노 네우 바우 키토의대 교수가 '한국불교와의 인연' 을 발표한다.

한국학자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구산수연의 생애와 사상' , △김경집 위덕대 교수가 '구산수연의 정화와 결사운동' 을 발표한다.

논평은 윤원철 서울대 교수, 오경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외래교수, 최성렬 조선대 명예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정덕 스님이 각각 맡는다.

한편, 국제학술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10월 5~14일 구산 스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순천 송광사, 충무 미래사, 용화사, 양산 통도사, 밀양 표충사, 대구 동화사, 합천 해인사 등 사찰과 암자를 순례할 예정이다.

버스웰 "무자화두에 한국불교 공부"

로버트 버스웰 美UCLA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구산 스님과의 인연을 털어놨다. 버스웰 교수는 "1974년 가을 송광사에 도착했다. 이미 태국 등 상좌부 전통에서 2년 동안 승려생활을 하였지만 선전통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상태"라며 "구산 스님은 외국인을 제자로 받아주던 유일한 한국 선승이셨다. 구산 스님의 배려 덕분에 현조, 현달, 함월 스님 등 다른 외국인 스님들과 함께 수선사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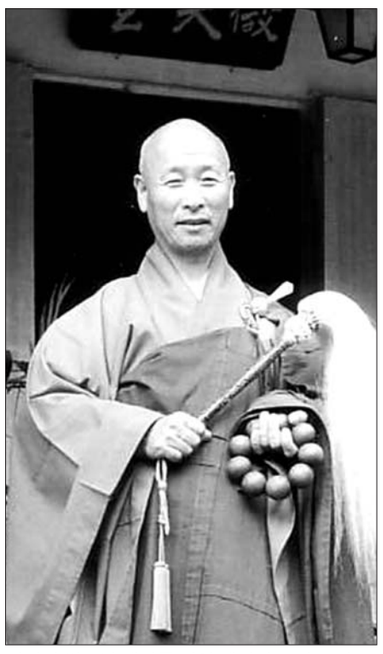
버스웰 교수는 "구산 스님은 무자 공안을 참구 하도록 내려주셨는데 '왜 조주가 '무' 라고 했나' 라는 구산 스님의 그 첫 질문은 저를 한국 불교 학자로서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버스웰 교수는 "3개월간 수행 끝에 '만약 내가 한국 불교 수행을 배워야 한다면, 간화선 기법, 특히 의정(疑情)의 개념에 관해 더 배울 것이다' 고 결심했다"며 "그 근본적인 의심에 대한 강조는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혼동과 당혹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힘은 집착과 자존감에서 벗어나고, 근본적인 무집착에 이르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베즐러 "계율, 선정, 지혜 함께 닦음 강조"

마틴 베즐러 佛 불교명상지도자도 구산 스님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마틴 베즐러 명상가는 "구산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스님을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젊은 여자일 뿐이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스님의 질문에 '두 사람이 마주보고 미소 짓는 것' 이라고 답하자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말했으며 이윗고 화두를 주셨다"고 말했다.

마틴 베즐러 명상가는 "보는 이마다 이윗고 화두를 주는 스님을 보며 처음에는 구산 스님이 선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누구든 화두로써 수습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그를 보며 선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며 "이는 지금도 내가 명상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깨달음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도록 지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외국인 제자를 많이 제접한 구산 스님

마틴 베즐러는 구산 스님의 수행방향이 현대불교계에 계승돼야 한다며 "구산 스님은 계율, 선정, 지혜의 세 가지를 함께 닦아야 한다며 이를 다리 세 개로 지탱하는 주전자 받침과 비교했다. 수행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오늘날에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성철의 돈오견성 경계는 혜능의 선지와 일치"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에서 한목소리

혜능 스님의 열반 1300주기와 성철 스님의 열반 20주기를 추모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육조혜능과 퇴옹성철, 그리고 한국불교' 을 주제로 추모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은 기조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육조혜능, 성철퇴옹 스님의 가르침이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불교에서는 스스로의 성품(性品)을 확인하라고 강조한다"며 "자신의 성품을 차분히 들여다 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설했다.

고우 스님은 또 "이러한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큰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경계에 접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 힘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표 '내가 본 혜능과 성철' 를 맡은 이은윤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는 "육조혜능 스님의 돈오 남종선은 서양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비견되는 불교개혁이자 '불교혁명' 이었다"며 "성철 스님이 강조한 확철대오한 돈오견성의 경계는 혜능 스님의 돈오 남종선 선지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혜능과 한국 선불교 전통' 주제발표에서 "한국불교의 현재 위기는 대중들이 불교를 '성찰' 하고 수행자들이 '지식' 을 되돌아보며 학자들이 '인간화' 에 앞장설 때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명원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퇴옹성철과 육조혜능 :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현토 · 편역을 고찰하면서' 에서 "성철 스님은 그 자신의 생애를 통해 열반의 세계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가르침을 준다"며 "이는 〈육조단경〉 안에 요약된 구원의 메시지를 제공하는 이로 대중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세미나에는 성철 스님의 제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육조혜능 스님은 오늘날 세계에서 선(禪)불교가 살아 숨 쉬게 된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면서 "생전에 육조스님의 가르침을 자주 말씀하셨던 성철 큰스님 또한 한국 근현대불교의 수행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육조혜능 스님과 퇴옹성철 스님의 본래면목을 철견하시고 수행의 길에서 항상 청안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글 창제에 기여한 불교' 시선집중

동국대불교학술원, 10월 8일 전국학술대회 개최

한글날을 앞두고 '불교와 한글' 의 관계를 조명하는 전국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은 10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1부 훈민정음과 불교사회, 2부 문자문화와 불교, 3부 한글과 불서번역, 4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돼며 △임홍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정음 창제와 세종조 유교와 불교의 구도' △정우영 동국대 교수의 '훈민정음과 불교경전의 관계' △권인한 성균관대 교수의 '우리말 차자 표기와 불교' △안상수 ag타이포그라피연수소 연구원의 '불경언해본과 한글 디자인' △김기종 동국대HK연구교수의 '신자료 필사본 금강경언해 연구' △김종진 동국대 교수의 '근대불교와 한글' 등이 발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글의 창제와 발전에 불교가 기여한 역사적 사실의 고찰에서부터 언해불서 문자의 디자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경허선사 바로 알기 2차 학술세미나

경허 스님이 주석한 서산 천장사(주지 허정)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제2회 경허선사 바로알기 학술세미나' 를 개최한다.

서산 천장사는 경허스님 열반 100주기를 맞아 지난해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종강 변호사의 '경허성우와 수운 최제우'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경허성우의 목룡가풍' △홍현지 연구원의 '경허의 탄생지와 출생연도'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수월선사의 정체성과 경허의 전법' 등이 발표된다.

서산 천장사 주지 허정 스님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경허의 바람처럼 자유로웠던 삶을 다시 음미해 보는 일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유와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장사는 학술세미나 후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를 갖는다. 도신 스님과 박남준 시인이 노래와 함께 시낭송을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美명문대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금강대(총장 · 정병조)가 글로벌 인재양성 가속화를 위해 9월 23일 미국 보이시 주립대학과 26일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양 대학간 △학생 · 교수 및 행정직 직원의 교류 △합동연구 · 심포지움 · 워크숍 활동 △출판물 · 보고서, 그리고 기타 학술적 자료와 정보 교환 △공통 관심 분야의 출판과 정보 네트워크 공유 등 교육적 · 문화적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이다. 또한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행세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강대는 소수정예교육의 일환으로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이라는 기치 아래 현재 해외 8개국 28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인적교류 및 학점교환, 복수학위제, 학술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정병조 총장은 "그동안 영어권 대학과의 교류가 미흡했는데 이번 협약체결로 보다 다양한 대학교육의 국제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금강대학교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가속화 및 국제사회에 금강대학교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밝은사람들연구소 제12회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괴로움' 을 주제로 제12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초기불교'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불교' △박승찬 가톨릭대 교수의 '서양철학' △전중환 경희대 교수의 '진화심리학'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괴로움' 에 대해 고찰한 내용이 발표된다.

학술연찬회 발표내용은 교재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로 발간된다.(02)720-3629 노덕현 기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 모집중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전북불교계, 세계순례대회 '전면 불참' 선언

9월 23일 공문발송, 조직위원 전원사의 표명
향후 세계순례대회도 불교계 동참 어려울 듯

9월 28일부터 10일간 전주, 완주, 김제, 익산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공식불참을 선언했다.

세계순례대회 불교측 조직위원회(위원장 보륭)는 9월 23일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세계순례대회의 불참과 함께 조직위원 전원의 사퇴를 통보했다.

불교측 조직위는 공문에서 지난 7월 25일 전주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전주시종교관광활성화계획이 특정종교성지화를 위한 사업이라 규정하고 8월 12일 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수차례 답신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조직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세계순례대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또 '전주의 얼을 특정종교에서 찾겠다는 잘못된 발상과 더불어 천년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전주시를 허울 좋은 종교관광 성지, 특정종교 성지로 성역화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천만 불자와 다수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계순례대회의 근본취지인 종교간의 화합과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특정종교를 비호하는 잘못된 처사에 대하여 대오각성하고 종교간의 화합과 소통이 어디 있는지 바로알기 바란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순례대회에서도 불교측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교측 조직위원장 보륭스님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 불교측 조직위원들의 사퇴와 함께 공식 불참을 통보했다" 며 "이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세계순례대회 조직위가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순례대회에도 불교계는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2년 전라북도와 한국순례문화연구원이 종교 화합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개최한 '세계순례대회'. 불교계는 이번 행사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본사차원에서 말사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찰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며 "순례길에 위치한 사찰들의 숙식 제공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는 언론사 기자들의 팸투어와 방송사 광고를 통해 세계순례대회를 적극홍보하고 있으나 불교계의 불참으로 반쪽대회로 치러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에 생태탐방연수원 조성돼

환경성질환자 치유시설 등 계획…"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리산의 아름다운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탐방연수원이 지리산 화엄사 지구에 조성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산악형 생태탐방연수원을 조성한다고 9월 22일 밝혔다.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은 설계공모를 통해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2만 3,00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3,900평방미터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9월 중 착공해 내년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건물형태는 지리산 능선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됐으며, 지열 냉 · 난방, 태양광 발전, 옥상녹화, 빗물이용시설, LED 조명 등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적용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으로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역사 · 문화자원을 연계해 다양하고 특화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자들이 치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태탐방연수원이 완공되면 반달곰생태학습장과 탐방안내소, 화엄사 등 기존 탐방거점시설과 연계되어 체류형 탐방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지구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반달가슴곰을 직접 볼 수 있는 종복원기술원과 지리산탐방을 도와주는 탐방안내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천년 고찰 화엄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목조건물 각황전(국보 67호)과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세웠다는 4사자 3층석탑(국보 35호) 등 국보와 보물이 즐비해 지리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탐방 장소로 꼽히는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동불교입제종 전주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청소년 교육선도 및 비행예방 활동 펼칠 계획

해동불교임제종(종정 지암)이 보호소년의 교육활동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도우미로 나선다.

해동불교임제종 지암 스님은 9월 24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원장 장인기)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동불교임제종은 보호소년과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의 교육과 선도, 보호 지원을 통한 비행예방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보호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및 멘토활동 △인성교육분야 지원 등 교육과정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지암 스님 외 울산 천마사 향덕 스님, 종정협의회 사무총장 석보 스님, 문화위원장 지훈 스님, 사회복지위원장 지오 스님, 구례 용방사 혜정 스님, 청암사 총신도회? 나용수, 정읍 삼보정사 신도회 총무 혜일심, 여수 청암사 신도회 총무 묘화보살과 전주 소년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을 마친 지암 스님 일행은 새로 멘토링 활동을 펼칠 원생들과 첫 대면을 갖고 준비해간 간식을 함께 나누고 별도로 청소년들의 고민상담시간도 가졌다.

지암 스님은 "전주 소년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1:1의 멘토 멘티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며 "보호소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에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동불교임제종은 법무부 전주소년원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해동불교임제종은 광주 소년원, 대전 소년원등 전국의 소년원을 찾아 적극적인 멘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차후 활동반경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성사 목조삼불좌상 지정문화재 지정

강진 고성사 목조삼불좌상 등 유형문화재 3종이 전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유형문화재는 곡성 서산사 목조 보살좌상, 광양 백운사 목조 여래좌상, 무형문화재는 보성 옹기장, 광양 전어잡이 소리 등 모두 6건을 30일간 지정예고하고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백운사 목조 보살좌상은 1643년 제작된 작품으로 불상안에서 한지와 쪽염색을 한 비단에 불상의 조성과정 등을 기록한 2종의 발원문, 묘법연화경 등 복장(腹藏) 유물이 확인됐다.

서산사의 목조 보살좌상은 1706년 제작된 작품으로 조각 기술이 우수해 조선 후기(18세기) 불교조각 양식 이해에 중요한 유물이다.

고성사 목조 삼불좌상은 조선시대에 제작해 1751년 개금(改金)한 작품으로 3구가 원형대로 전하고 조각 양식이 뛰어나 불교미술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 후기 다불(多佛) 조각 예술의 대표작인 해남 대흥사 천불상(도지정 문화재 제52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미륵장육 삼존불 복원 및 개금

9월 22일 경내서 불사회향법회 개최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 미륵장육삼존불이 7년에 걸친 복원불사와 개금불사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투었다.

금산사(주지 원행)는 9월 22일 미륵전 앞마당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회주 도영 스님, 16대 교구장 성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미륵전 소조 미륵협시보살상 복원불사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화림 보살상이 수해로 인해 붕괴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원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복원불사와 개금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간절한 염원과 원력으로 불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스님은 이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원만상을 갖춘 미륵삼존불이 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 장마로 인해 흙으로 빚은 법화림 보살상의 후면이 무너진 2006년 7월 16일을 잊을 수 없다" 며 "7년간에 걸친 복원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금산사는 9월 22일 '미륵전 소조 미륵협시보살상 복원불사 및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좌〉. 복원 및 개금불사를 마친 미륵삼존불〈우〉.

2008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13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복원불사에는 고령토 275kg, 안동삼베와 한산모시 120필, 찹쌀80kg, 생옻 55관, 금박 620속, 금분 470속이 소요됐으며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한 연인원 1200여명이 동원됐다.

지난 6월부터는 100일간의 개금불사가 진행됐으며 수차례의 옻칠 과정과 도금과정을 거쳐 이날 다시 세상에 나투게 됐다.

이날 복원 및 개금불사를 마친 미륵삼존불은 본존의 높이가 11.82m 이고 협시보살인 법화림보살, 대묘상보살은 8.79m에 달하는 거대한 소조불로 국보62호 금산사 미륵전에 봉안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대 박물관 불교문화강좌 개최

군산대 박물관(관장 박영철)는 9월 24일~11월5일까지 6주간에 걸쳐 불교문화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3시에 개강하는 불교문화강좌는 동국사 종걸스님의 '일제 강점기 군산의 불교에 대해서'를 시작으로 △10월 1일과 8일 재연스님(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장)의 '빠알리 경장과 초기불교의 모습' △10월 15일 오윤희소장(고려대장경 연구소)의 '훈민정음 불전의 세계' △10월 29일 이병희 교수(교원대)의 '한국 중세 불교의 특색' △11월 5일 권순홍교수(군산대)의 '현대철학과 불교의 대화' 강좌가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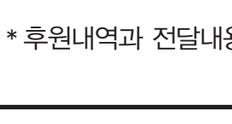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50주년 맞은 운문승가대 총동창회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서

국내 최대 비구니 수행 도량인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가 축제의 물결로 일렁였다. 운문승가대학(학장 흥륜)이 졸업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그리고 운문승가대 동문 스님 1천여 명이 참석해 승가대학 반백년의 역사를 되새겼다.

9월 24일 동문인의 밤에서는 능인중학교 교장 아용 스님 등 10명의 스님에게 자랑스런 동문인상을 수여하고 장기자랑 등 화합한마당을 가진 뒤 9월 25일 오전 명성 스님의 법문으로 회향했다.

44년 동안 운문사를 지켜온 회주 명성 스님은 "이렇게 50주년을 맞으니 감회가 새롭다. 많은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서 불교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며 활동하고 있으니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오늘 행사를 맞아 모교를 방문한 모든 동문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감회를 전했다.

운문승가대학은 지난 1964년 비구니 전문강원으로 시작해 올해 50회까지 18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비구니 수행도량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1977년 명성 스님이 부임하며 전각과 요사체를 신증축하는 불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비구니 전문 강원으로 거듭나 현재에 이르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은 "비구니 강원 중에 가장 많은 대중이 모여살고 있는 불교 교육의 산실이 운문사승가대다. 명성 스님께서 이렇게 평생을 받쳐 비구니 교육과 우리 종단에 발전에 큰 공로를 남기셨다. 50주년 행사가 열리니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비구니 도량으로, 또 좋은 교육도량으로 발전해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운문사는 매년 240명의 비구니 스님들

50회까지 1850명 졸업생 배출

회주 명성 스님 44년 강원 이끌어

이 수행정진하며 부처님께 귀의한 학인 스님들이 무명을 타파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논강 중심의 자율적 능동적 교육을 늘 강조하고 있으며

입지발원(立志發願) 정진불퇴(精進不退) 유통교해(流通敎海)라는 학훈을으로 학인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학감 진광 스님은 "50주년을 맞아 많은 동문 스님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다.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이라는 청규를 엄격히 지키고 있는 운문 승가대학은 모든 학인들이 번뇌와 망상을 떨치고 바른 수행자의 생활을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운문승가대학(학장 흥륜)이 졸업 5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9월 24일~25일 운문사 경내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는 등 선후배간의 훈훈한 정을 보여주었다. 특히 24일 저녁에 열린 동문인의 밤에서는 동문 정률 스님의 공연, 50회 졸업예정 학인 스님들의 하모니카 공연에 이어 선배들의 화답 공연 이어졌다.

또한 회주 명성 스님의 서예작품과 공예품, 소장작품 등을 전시하는 명승 스님 회고전이 10월 24일 까지 경내 삼장전에서 열린다.

한편, 화랑정신을 일깨운 원광법사가 신라말 중창한 운문사는 원광법사의 뜻을 계승할 전문기관으로 '원광화랑연구소' 를 설치했다. 이번 50회 기념행사에서 현판식을 가진 원광화랑연구소는 11월 9일 운문사 대웅전과 선열당에서 학술대회를 갖는다.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꾸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진광 스님(운문승가대 학장). 박흥식(대구한의대 교수) 나시나카 겐지 (일본 츠쿠바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신라의 종소리 세계 평화 기원

2013년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2013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이하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일원에서 10월 3일~ 6일까지 열린다. BBS불교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신라인들의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에밀레전은 '대 신라왕국의 종소리를 다시 울리자' 라는 주제로 신라왕국의 기상과 정신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과 온 세계가 화평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불교방송은 "지난해 3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던 것에 힘입어 올해는 대회의 규모와 내용을 좀더 내실있게 보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에밀레 박물관' '신라 문화체험 마당' '동시(東市)와 (西市) 재연' '신라 간등회(看燈會)'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신라 저자거리를 그대로 재연하고 주제관인 에밀레 박물관 기와집으로 꾸며져 현장감을 더하게 된다.

에밀레 박물관에서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 이름난 종의 모형을 전시한다. 성덕대왕신종 모형과 일본 운주지 소장종, 선림원 출토종 등 현존하는 신라시대 범종의 모형종을 만날 수 있다. 또 한국종과 외국종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6t 무게의 대형 에밀레 모형종을 관람객들이 직접 타종할 수도 있다.

일몰 이후에 진행되는 '신라 간등회(看燈會)' 코너도 주목할만하다. 이는 한국 전통등의 효시인 신라시대 간등(看燈)을 재연하는 행사로, 축제기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성덕왕릉의 12지신등과 황룡사 9층 모형탑 등 50여 개의 대형 전통등이 첨성대와 어우러져 은은한 야경을 연출한다.

이밖에 전국 5개 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이 신라 향가를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전국 대학 향가제' , 승무와 선무도 등 스님들의 예술무대를 보여주는 문화공연, 명상음악가 홍순지와 국악인들이 꾸미는 명상음악 콘서트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다채롭게 마련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13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 (이하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일원에서 10월 3일~ 6일까지 열린다.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못은 그 사찰의 역사적 기록이다

한국의 전통정원에서 물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로부터 조선시대 창덕궁의 부용지나 별서 소쇄원의 계류에 이르기까지 물이 없는 정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사찰도 예외는 아니다. 『불국사고금창기』를 보면 불국사에 구품연지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신라시대부터 사찰에 못을 파고 연을 심거나(연지) 그림자를 비치게 하여(영지) 불국이나 극락을 상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못물이나 못에 피는 연꽃은 극락정토의 표상이 된다. 『관무량수경』 '보배못 생각하는 관(寶池觀)' 을 보면 극락정토의 못물이나 그 못에 피어난 연꽃의 수승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관경변상도를 통해 그러한 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찰에 못을 파는 것은 불교의 상징성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기후조절기능을 가지거나, 화재발생 시에 쓸 수 있는 방화수를 담아두거나, 사역주변의 물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 건조한 땅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습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못이고,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에서 불이 날 경우 불을 끄는데 쓸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장치가 못이며, 우기에 뒷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조절하여 물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장치가 못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못을 조성하여 경관적, 기능적 요소로 활용한 사찰이 많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못이 메워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불국사 구품연지도 언제부턴가 메워져 그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경기도 모 사찰의 원도방지 역시 수년전에 메워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현대로 오면서 사찰의 못이 일견 사치스러운 시설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못이 있으면 공간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최근 들어 사찰에도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방화수도 필요없고,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 우기에 물을 조절하는 기능 역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러나 오래전 사찰에 만들어져 세월이 담겨진 못은 단순히 상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원형을 유지하거나 잘 관리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을 만들 때는 분명히 특별한 까닭이 있었을 것이므로 지금 그 못이 예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메워버리는 것은 사찰의 역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오래 전에 조성된 고찰의 원도방지형 못이 지금은 메워져 과거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사진은 경기도 ㅈ사찰의 못 모습.

봉은사 1219주년 개산대재

불기 2557년

10월 5일(토) ~ 7일(월)

문의 : 02)3218-4812

봉은사

도량을 열고 지켜온 지 1219년, 세상을 비추는 가을 햇살 받으며
부처님의 법력으로 올해도 국화꽃 향기 머금은 축제의 문을 엽니다.
봉은사의 활짝 열린 문으로 발걸음 하셔서 가을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행사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역대 조사 다례재	10월 5일(토) 11 : 00	대웅전 앞
봉은 탑 제막식	10월 5일(토) 12 : 00	부도전
정대 불사	10월 7일(월) 11 : 00	대웅전 앞
보우 대사 학술 세미나	10월 2일(수) 14 : 00	보우당
국화 축제	9월 16일(월) ~ 10월 13일(일)	진여문 ~ 법왕루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바자회	10월 5일(토) ~ 7일(월)	종루 앞 주차장

행사명	일시	장소
템플문화한마당	10월 5일(토) ~ 7일(월) (10 : 30 ~ 17 : 00)	종루 주변
봉은사의 빛 · 소리 그리고 향기 신도회 사진전	9월 29일(일) ~ 10월 13일(일)	종루 주변
'봉은사 시간의 강물' 추억의 사진전	10월 5일(토) ~ 10월 13일(일)	선불당 앞 임시법당
전통차 시연	10월 5일(토) 12 : 00 ~ 17 : 00	선불당
서산사명장학회 감사의 10년	10월 5일(토) 16 : 00	향적원
직장직능 연합수계법회	10월 6일(일) 14 : 00	법왕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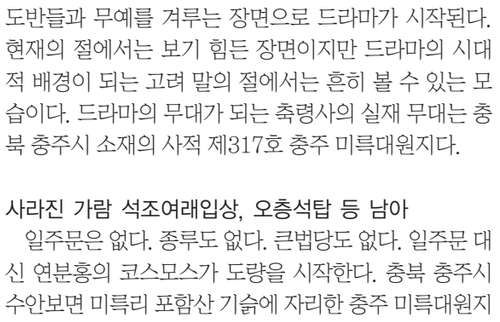
미륵불의 '56억만 년' 보다 먼 미래를 만나다

드라마 촬영지 1
- '무신' 촬영지 충주 미륵대원지

"아직도 빈틈이 있어! 봉이 되었든 검이 되었든 자신이 무엇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집중이야. '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가.'하는 것 말이야."
"예, 스님. 정말 스님은 못 당하겠습니다요."

스님들이 도량에서 무예를 겨루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56부작으로 방영되었던 MBC 드라마 '무신' 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는 고려 말 무신정권 때 노비 출신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른 김준(김주혁 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도망친 노비의 아들 김준은 갓난이 때 축령사라는 절에 맡겨져 무상 스님으로 살게 된다. 시대적으로 승군이 성했던 시절이었다. 무예를 익히며 장성한 무상 스님은 무예가 출중했다. 미륵부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절 마당에서 주인공 김준이 도반들과 무예를 겨루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시작된다. 현재의 절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지만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려 말의 절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축령사의 실재 무대는 충북 충주시 소재의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다.


충주 미륵대원지에 남아있는 석조여래입상(보물 96호)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세웠다고 전해온다.


MBC 드라마 '무신' 의 첫회 장면. 주인공 김준이 무예 연습을 하고 뒤로 미륵부처님이 보인다.

사라진 가람 석조여래입상, 오층석탑 등 남아

일주문은 없다. 종루도 없다. 큰법당도 없다. 일주문 대신 연분홍의 코스모스가 도량을 시작한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포함산 기슭에 자리한 충주 미륵대원지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너머로 당간지주의 흔적과 거대한 귀부가 보인다. 산세를 읽으며 경사를 이루는 도량을 걸으면 오층석탑(보물 제95호)과 석등(유형문화재 제19호)이 보인다. 그리고 이곳이 분명한 절이었음을 말해주는 석조여래입상(보물 제96호)이 보인다. 높이 10.6m의 석불이다. 석불은 'ㄷ' 자 형태의 석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석굴암 형태의 법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루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큰법당이 있던 자리는 어디였을까. 분명 절이었던 자리. 분명했던 절의 모습은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신라의 모든 것을 넘겨준다.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는 아버지 앞에서 몸서리를 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라진 나라의 마지막 태자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금강산으로 떠난다. 태자는 망국의 아픔을 짊어지고 지금의 미륵리와 문경 관음리를 잇는 고갯길 '하늘재' 를 넘는다. 그리고 그는 신라를 등지고 북녘을 바라보는 미륵불을 세운다. 전설이다. 절이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람의 흔적은 남았고, 세월은 흘러갔어도 흔적이 그 시절을 붙들고 있었다.

충주 미륵대원지…고려초기 창건 추정

충주 미륵대원지는 고려 초기에 세워졌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기록이 전해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원 미륵사지' 로 불렸고, 그 이전에는 '괴산 미륵리사지' 로 불렸다. 이곳의 발굴은 1976년 절터에 있는 가옥을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물이 발견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석굴암 형태의 주실에는 미륵불입상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미륵불입상과 석등, 오층석탑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단탑식 가람배치를 이루고 있다. 주실 앞에 전실이 있고, 전실 동쪽을 이어 큰 회랑지가 있다. 석굴은 거대한 돌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뒤 목조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토함산에 있는 석굴암의 돔형 지붕과는 다른 방식이나 근본적으로는 석굴암의 석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석굴에는 본존불로 모셨던 석불입상이 있고, 석굴벽에는 본존불을 장엄하기 위해 조각한 여래좌상, 삼불좌상 등이 있다. 사지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에는 '미륵당(彌勒堂)' , '미륵당초(彌勒堂草)' , '원주(阮主)' 등의 글자가 새겨진 기와편이 있고, 이곳의 지명이 미륵리로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람의 이름을 '미륵대원(彌勒大阮)' 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람은 대몽항쟁기 때 충주산성 등 충주 인근에서 몽고군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점으로 미루어 이 때 화마로 인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몽고전란 때 불탄 것을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에 중건하고,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것을 18세기 무렵 중건했으나 1936년 홍수로 폐사되었다고 보고 있다. 드라마 '무신' 의 배경도 고려시대 무인정권 시대부터 대몽항쟁이 펼쳐지는 시기를 그리고 있다.

미륵불의 시간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다음으로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다. 현재 보처보살의 몸으로 도솔천의 내원궁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계신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입멸한 뒤 56억 7천만년이 되는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 성불하고, 용화수 아래에서 3회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이다.

무예를 닦고 있는 무상 스님의 모습 뒤로 미륵부처님이 보인다. 노비의 아들, 그것도 도망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무상 스님에게 미래란 56억 7천만년 보다 더 멀리 있는, 그야말로 아득하기만 한 것일 수 있다. 미륵부처님의 세월이란 100년도 못 살고 가는 중생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세월이다. 무상 스님의 미래는 그 가늠하기 어려운 세월보다도 더 가늠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56억 만년 보다도 더 먼 미래를 타고난 노비의 아들 무상 스님. 비록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그의 모습 뒤로 보이는 미륵부처님의 모습이 왠지 복선으로 다가온다.

56억 만년을 기다리고 있는 부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겪어낸 시간은 참으로 작은 것이다. 그 작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지 못했다. 다가올 미륵불의 시간을 그토록 멀게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단지 숫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충주 미륵대원지=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충주 미륵사 귀부(충북 유형문화재 269)

미륵리 5층석탑(보물 제95호)

주변보기

▲**하늘재** / 수안보면 미륵리

충주 미륵대원지는 '하늘재' 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절터 옆으로 있는 옛원(院)터를 지나면 하늘재로 가는 길이 나온다. 약 2km의 길로 정상은 해발 525m이다. 얼핏 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를 잇고 있는 도 경계로서 미륵리에서 30~40분 정도 걸어오르면 곧바로 문경 관음리로 연결된다.

겨릅산, 계립령, 대원령으로도 불리는 하늘재는 우리나라 최초로 뚫린 고갯길이다. 신라 제8대 아달다왕이 서기 156년에 북진을 위해 열었다.

▲**수안보 온천**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5-8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적으로 용출한 온천수로 지하 250m에서 용출되는 수온 53℃ 산도 8.3의 약 알칼리성 온천원액으로 리튬을 비롯한 칼슘, 나트륨 등 인체에 이로운 각종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수질이 부드럽다.

▲**월악산국립공원** /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 월악산 국립공원 관리소 (043) 653-3250

월악산은 높이 1,097m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과 제천시 한수면 일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총면적 284.5㎢로서 2개도 4개 시군 9개 읍면 34개리에 걸쳐 있는 산이며 해발 1,097m의 월악영봉을 비롯하여 150여m의 기암단애가 치솟아 맹호처럼 우뚝 선 준험한 산세와 웅장함으로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리어 왔다. 인근에는 송계계곡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계곡들이 있으며 인근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겸할 수 있고 충주호 유람도 가능하다.

▲**충주 탄금대(명승 제42호)**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망국의 한을 달래며 가야금을 타면서 제자들에게 노래와 가야금, 춤을 가르쳤다는 곳이며, 임진왜란 때 팔도 순변사 신립장군이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야외음악당과 궁도장이 있다.

〈묵을 곳〉
- 한화리조트 수안보 온천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6-8211
- 사조리조트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6-0750
- 수안보상록호텔 / 수안보면 온천리 043-845-3500
- 수안보온천랜드 / 수안보면 온천리 043-855-8400

〈식당〉
- 산골식당 / 043-845-8844 가마솥 한방 백숙
- 양지말가든 / 043-848-2430 버섯전골, 펑 샤브샤브
- 본가할매순두부 / 043-846-4764 산채정식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미얀마 불교 이야기

12. 불교국교화 시도와 군부정권의 대두

불교 국교화 통한 혼란, 군부 쿠데타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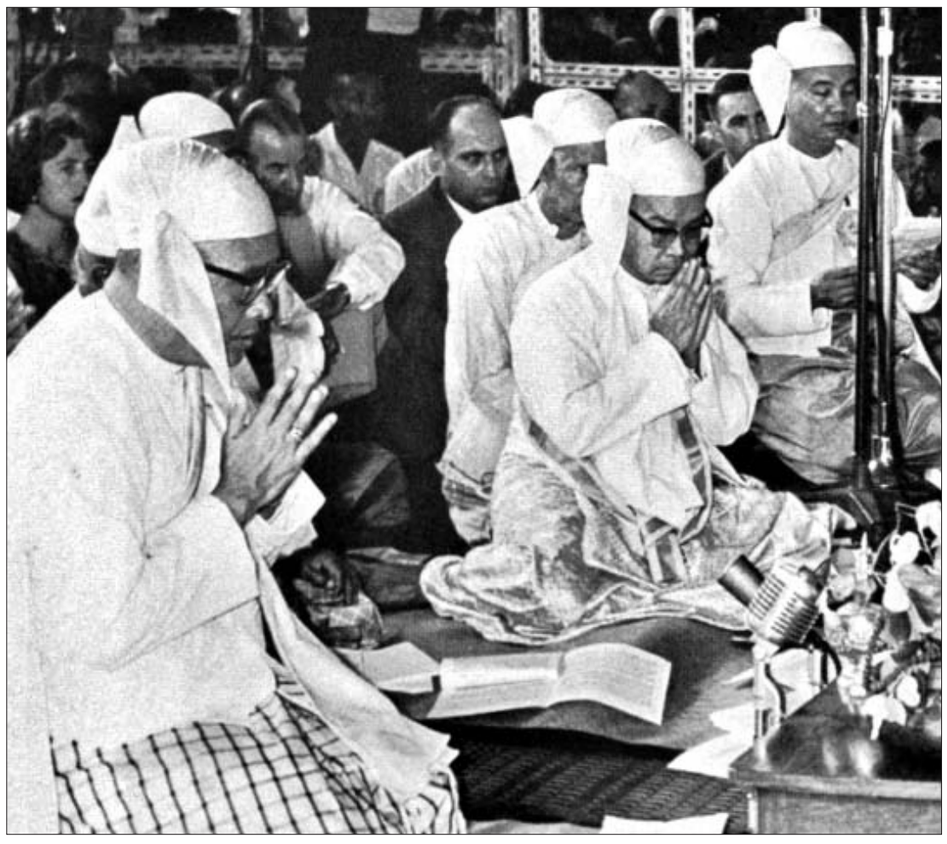
인류사에서 근현대는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종교국가에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세속주의(secularism) 사회로 나아간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종교국가 체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동의 많은 나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종교국가로 남아있다. 물론 터키, 시리아,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모로코 등은 이슬람 종교가 지배적이지만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기도 하다.

한 나라에서 특정종교가 지배적일 경우 헌법으로 이 종교를 국교로 명시하는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면, 영국은 정교분리의 세속주의를 표방하지만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아르헨티나와 바티칸시국은 로마 가톨릭을,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를 국교로 하고 있다. 최근 네팔은 세계 유일의 힌두교 국가에서 세속주의로 바뀌기도 했다.

그렇다면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가 있을까? 대표적인 국가로는 태국이 꼽힌다.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1947년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불교를 국교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1975년 공산화되며 불교의 국교 지위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부탄과 스리랑카, 캄보디아 그리고 칼미크(Kalmykia) 공화국이 있다. 칼미크 공화국은 유럽 유일의 불교국가로 알려졌다.

1947년 불교 국교화 첫 논의
아웅산 사회혼란 이유로 반대
1948년 기독교인 군인 반란 발생
불교도 주축으로 국교화운동 일어나



1961년 불교국교화 이후 정부행사에 앞서 기도를 올리는 우누 정부요원들의 모습.



우누 미얀마 초대 수상

우누 수상 초기 유보입장 견지
1960년 총선에서 불교국교화 공약
타종교 역배려에 불교도 반발
불안 정세 속에 1962년 네윈 쿠데타 일으켜

미얀마에서는 52년 전, 우누 수상에 의해 국교화가 시도됐다. 불교 국교화 논의는 1947년부터 진행됐는데 이해 5월 독립 지도자들이 양곤에서 회합을 갖고 헌법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두됐다. 당시 1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불교국교화가 개진됐는데 여기서 아웅 산이 미얀마 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미얀마의 불교국교화

아웅 산은 국가는 종교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불교 국교화를 거부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대신 미얀마 헌법에 '국가는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제21조1항)'는 조항을 넣음으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헌법이 발효되는 날 연방의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그리고 토속신앙(낫) 등의 종교를 승인한다.(21조 2항)' '국가는 신앙과 신념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부과하거나 또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21조3조)' 등 조항을 제정했다.

미얀마에서는 이후 공산당과 국민의용군 그리고 소수민족방위군 등에 의한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특히 영국식민지 시절 기독교로 개종한 꺼인족(까렌족, 현재 까렌족의 60%는 불교도이다) 출신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1948~1949년 미얀마 남부 몰라민과 서부의 뻬테인 그리고 삐를 점령하게 된다. 여기에 공산당이 합세해 미얀마 중북부인 만달레이까지 점령할 정도에 이르렀다.

1952년 미얀마 연방군 창설로 치안상태가 진정되자 불교국교화는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1954~56년 진행된 제6차 결집의 계기가 됐다. 결집 폐회 때 양곤과 라카인 그리고 만달레이의 세 승가 단체가 불교 국교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불교계에 큰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국교 제안은 수상과 종교성 장관에 각각 전달됐다.

여기서 우누 수상은 불교 국교화는 미얀마 통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세불안으로 외세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와 함께 유보적인 입장을 표했다.

우누 수상은 불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차별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반 대립이 거세지자 우누 수상은 직무수행을 잠시 멈추고 8개월 간 폐관 수련에 들어가기도 했다.

1958년 계속해서 불교국교화에 대한 주장으로 찬반 대립이 극심해지자 우누 수상은 당시 군 총사령관이었던 네윈에게 내각을 맡기고 수상직에서 물러난다.

1960년 총선거에서 미얀마의 불교국교화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우누가 속한 정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Kaba Aye 파고다에서 불교국교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결국 선거에서 우누의 정당이 크게 승리하였으며 우누는 또 다시 수상직을 맡게 된다. 이제 우누에게 있어 불교국교화는 완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1960년 18명의 고승과 17명의 재가자를 중심으로 불교의 국교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교화의 여론을 살피기 위해 여러 종교지도자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우누 수상 또한 불교도가 아닌 종교지도자를 초청해 불교의 국교화로 인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양곤에 있었던 가톨릭 대주교와 이슬람 측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우누 수상은 불교 국교화가 독립된 미얀마가 이루어내야 할 당위적인 요구이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누 수상은 "식민지배 당시 방치됐던 불교의 조속한 부흥과 함께 불교 계율에 따르지 않은 승려와 불심이 멀어진 신도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불교가 국교가 돼야 하며 불교 국교화를 통해 공산주의자들의 척결과 혼란스러운 내정의 안정화 등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1961년 8월 29일 우누 수상은 국회에 불교국교화를 상정했다. 이러한 법안(The State Religion Promotion Act of 1961)은 재적의원 371명 중 찬성 324, 반대 28, 기권 19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미얀마 헌법 제21조1항의 '국가는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연방의 최대 다수가 신봉하는 종교로서 불교는 국교다'로 변경됐다.

이러한 국교화에 따라 국가가 담당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됐다. 국가 예산의 최소 5%를 종교사업의 재정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즉, 국가는 국교인 불교교학의 연구와 불교정신의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제6차 결집 당시 공인된 경전과 주석서의 인쇄가 정부 허가제로 변경돼 국가 관리 하에 진행됐으며 제5차 결집의 결과물인 석경의 관리 등도 국가가 맡게 됐다.

이와 함께 연 1회 고승 회의를 열어 사회 전반적인 사안에 자문을 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교 경전어인 빠알리나 산스크리트 어의 연구 및 보급도 정부가 지원하며 파고다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승가병원 건립 및 국립학교 불교 의무교육 등도 추진됐다. 불교 대중화를 위해 법원과 학교 등 공공기관에 불상을 봉안하도록 했으며 모든 도서관에는 삼장을 소장토록 했다. 또 불교방송을 실시하고 3개월의 안거(安居) 기간에는 주류의 판매 또한 금지됐다. 국교화 이후에는 포살일(布薩)이 공식적인 수행일이 돼 모든 학교와 관공서가 쉬며 종교적 프로그램이 상영되도록 했다. 포살일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도 금지되며 도축 또한 금지됐다.

이렇게 불교국교화에 따른 정책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누는 불교도가 아닌 다른 종교인과 민족들을 달래기 위해 다음 헌법 개정안에서 공공학교 교육에 있어 부모 동의에 따라 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우누 수상의 태도는 불교도들의 반발을 샀는데 불교도들은 이슬람교 명절 때에 이루어지는 소의 도축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특히 미얀마 불교교단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면 모든 종교를 국교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교국교화의 의미가 없다며 거센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계속된 반대에도 우누 수상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불교교단의 정부 비판이 더욱 격화됐다. 개정안이 통과된 한 달 뒤에 미얀마 양곤에서는 반이슬람 폭동이 일어나 양곤 외곽의 이슬람 사원이 점거됐으며 사상자사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안한 정세는 결국 군부정권이 개입할 빌미를 주었으며 1962년 3월 네윈(1911~2002)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다. 우누 수상은 물론 각료 50여 명이 체포됐으며 이후 미얀마는 네윈의 혁명위원회에 의해 통치된다.

네윈의 군부정권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불교국교화를 폐지했다. 국교화 법안이 통과된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국가가 불교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한 네윈은 우누 정권 당시 포살일의 공휴일, 포살일의 주류 판매 금지, 도축 금지 등 불교정책을 철회했다. 네윈의 혁명평의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해 국교화로 인한 정세불안을 극복하려 했던 것이다.



불교국교화는 미얀마 독립 후 첫 정부에 의한 일 중 가장 유명한 일로 평가되지만 미얀마는 혼란에 빠졌으며 군부에 의해 통치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재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신청 : 10월 8일까지 (서류접수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① 백운대(白雲臺)



백운의 봉우리를 본 이성계는…

우리나라 오악(五嶽) 중 하나인 북한산은 서울을 지키는 진산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1년에 1000만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북한산엔 총 42개의 봉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엔 불교에서 비롯된 이름이 반이다. 오랜세월 불교와 인연을 맺어온 북한산은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 도성을 수호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불교적 이름을 지닌 봉우리를 '스토리텔링' 이라는 방식으로 소개해, 북한산이 지니고 있는 불교적 의미를 조명해 본다.

백운대는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 최고봉으로 높이는 836m에 이른다. 맑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와, 강화도의 마니산, 개성의 송악산까지 볼 수 있으며 백운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창업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성계는 공손하게 예를 갖춘 후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청했다. 하지만 무학대사는 조용히 이성계의 얼굴을 바라볼 뿐 좀 채로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긴장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무학대사가 꿈을 해설 해 주었다.

"등에 서까래를 짊어졌으니 임금 왕(王)자 형상이 분명하고, 꽃이 떨어졌으니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힐 것이며,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세상이 시끄럽게 된다는 뜻이니 조만간 새 임금이 탄생될 징조로 참으로 큰 꿈이 외다."

무학대사로부터 꿈 해몽을 들은 이성계의 가슴은 감격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동안 변방을 지키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 온 이성계로서는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쇠락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새 왕조를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막상 무학대사로부터 새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앞섰다.

"대사님, 제게 좀 더 확실한 언질을 주십시오. 과연 제가 그 대업을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늘만 알 뿐 소승은 모르는 일이외다."

"그럼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성계로부터 질문을 받은 무학대사는 잠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 있다가 이렇게 대답 했다.

"장차 도읍을 정하게 될 땅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을 것이외다. 그중에서 백운(白雲)을 찾도록 하십시오. 하늘이 장군을 허락한다면 백운이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외다."

이성계는 스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러면서 백운(白雲)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새 왕조를 세우려는 야망을 조심스럽게 키워갔다.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을 막아내며 용맹함을 떨쳤던 이성계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은 날로 더해갔다. 1388년 우왕이 즉위한지 14년째 되는 해였다. 원을 격파한 명이 예전 원의 땅이었던 철령 이북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고려조정은 명의 요구를 거절하고 요동을 정벌하려 했으나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다.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명을 따라야 할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기로에 선 이성계의 머릿속에 '백운(白雲)' 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왕명을 받고 오랜만에 개경으로 온 이성계는 개경 주변을 돌다가 남경이라고 불리는 한강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는 한강 주변의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산세를 살피다가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들고, 세 개의 산봉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대답 없이 지팡이를 들어 등 뒤의 산을 가리켰다. 이성계는 노인이 가리키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의 발길이 나 있지 않은 산은 한 발자국도 옮기기가 힘들었다. 전쟁터를 누비고 살아 온 그였지만 칡넝쿨과 가시덤불,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산을 오르는 일은 참으로 험난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산길을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심을 굳힐 강력한 자기암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얼마간 그렇게 산길을 오르자 뿔처럼 높이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났다. 그 봉우리들을 보는 순간 이성계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자기가 찾고 있는 봉우리들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흙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서있는 소나무는 마치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위태롭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성계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봉우리가 셋임은 분명한데 그 봉우리들은 검은 구름에 감겨 있어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백운(白雲),자신이 찾고 있는 봉우리는 어느 것인가? 검은 구름에 가려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성계의 가슴은 흔들렸다. 백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불안감에 젖어 있던 이성계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세 개의 봉우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정좌하고 앉았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뒤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며 기도를 드렸다. "꼭 부강한 나라를 세워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성계의 눈앞에 기적처럼 한 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봉우리 주위로 흰 구름이 겹겹이 둘러쳐지고 있었다. 흰 구름에 쌓여 있는 봉우리는 너무도 신령스러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 졌다. 이성계는 하늘의 화답에 감격해하며 오랫동안 흰 구름에 쌓인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았다. 이성계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준 봉우리를 사람들은 '백운대' 로 부르게 되었다.

〈얘기꾼〉 김 미 정

1천 천수천안 관음보살 상주하는 연화세계



신중일 기자 일본 불교 고찰을 가다
① 교토 산주산겐도



건물의 길이가 118m에 달하는 '산주산겐도' 의 본당. 이 안에는 1001체의 관음보살상과 이를 수호하는 역사상들이 함께 봉안돼 있다. 실제 역사상들은 모두 일본의 국보로 등록돼 있다.

1001. 바로 일본 교토의 유명 고찰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 에 모셔진 목조 관세음보살상의 개수다. 교토국립박물관 건너편에는 '산주산겐도' 는 말 그대로 본당 건물의 정면 기둥이 33개로 이뤄진 것에서 유래됐다.

본당의 길이만 118m에 달하는 이 사찰의 본래 이름은 '렌게오인(蓮華王院)' 이지만 33개의 기둥으로 이뤄진 본당 건물이 유명해 '산주산겐도' 로 부르고 있다. 1164년에 고시라가와(後白河) 법황이 1001체의 관음상을 안치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13세기 중엽에 재건된 것이다.

무엇보다 '산주산겐도' 의 가장 압권은 본당 안의 1001체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다. 법당 중앙에는 천수관음좌상의 중존이 안치돼 있고, 그 좌우로 500체씩의 총 1000체의 천수관음입상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서 있다.

맨 앞에는 일본 특유의 풍신(風神)과 뇌신(雷神)상 등 역사(力士)상이 있다. 이 천수관음상들도 법당과 함께 13세기 중엽에 대부분 다시 조성된 것들로 당시 교토와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작품이다.

모두 금박을 입힌 목상인 천수관음상은 40개의 팔이 있는데 각각의 팔이 25개의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관세음보살은 인간 세상에 응신할 때 33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한다고 한다. 1001체의 관세음보살을 모신 '산주산겐도' 본당의 기둥이 33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중앙에 안치된 본존 천수관음좌상은 단케이 스님의 작품으로 그 높이가 3m에 달한다. 나머지 불상들도 단케이 스님을 중심으로 한 당대 최고 불모(佛母)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



본당 안의 1001체의 천수관음상 중 일부. 빼곡이 들어선 불상들의 호상은 모두 다르다.

33개 기둥 세워진 사찰 본당
1001체의 천수관음보살 조성
한량없는 자비심 일깨우는 듯

실제 단케이 스님의 필생의 대사업은 바로 '산주산겐도' 의 불타버린 천수관음상들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수리 총책임자가 돼 교토와 나라에서 활동하던 공방의 불사들을 이끌고 천 구의 천수관음상의 조성에 착수했다. 새로 조성됐던 800체 이상의 관음상에 대한 많은 조성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의 조각 상황을 잘 전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라 공방의 작품들은 대체로 옷 주름 처리에 움직임과 변화를 보이고 얼굴 표현도 팽팽해 힘찬 느낌이 나고 교토 공방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헤이안 후기 작품의 명맥을 잇고 있다.

건물 끝에서 보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천수관음의 모습이 무척이나 경의롭다. 거기다 천수관음상의 얼굴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당시의 불모(佛母)들은 불상의 얼굴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과 감응 속에서 조성하였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저 많은 불상 속에는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얼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동감과 장엄함은 '산주산겐도' 본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불상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산주산겐도' 의 천수관음은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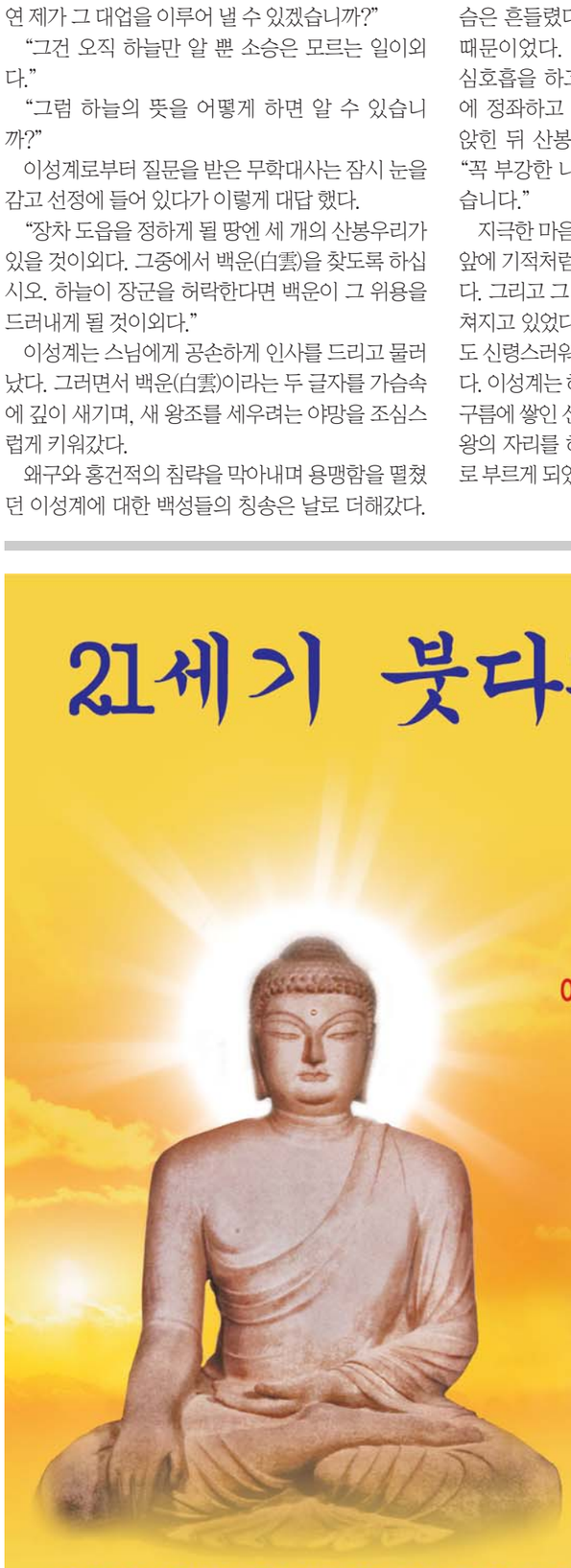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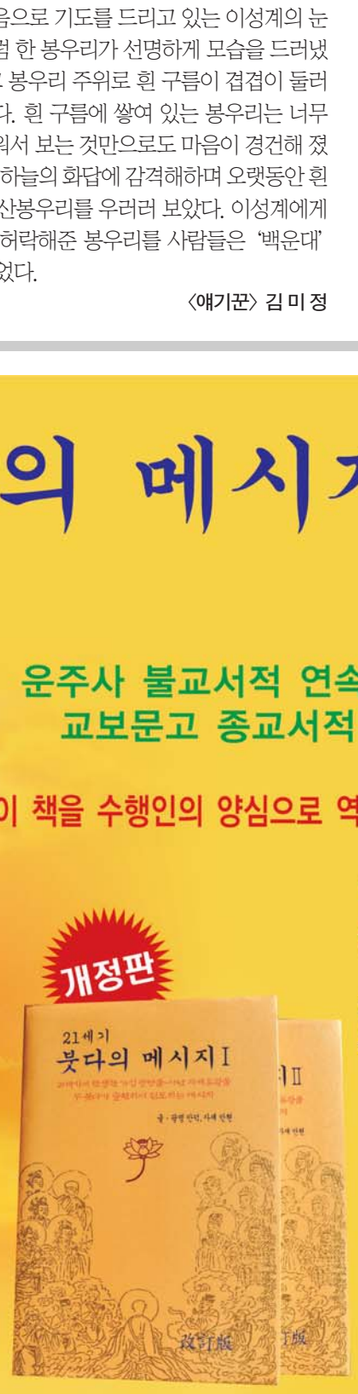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말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막부정치가 시작되고 일본의 정국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을 가마쿠라 시대. 당시 불모들은 무슨 염원을 담아 1000구의 관음보살상을 조성했을까?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 치정자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을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시도였을까?

'불보살님은 때때로 은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 는 명훈가피(冥熏加被)의 명제처럼 눈 앞에서 불보살을 친견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보살펴 주고 있다는 염원이 1천 천수관음에 담겨 있는 듯하다.

그 염원은 8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산주산겐도' 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도저하고 담담하게.

motp79@hyunbul.com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개정판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마음자리는 본래 무심이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3〉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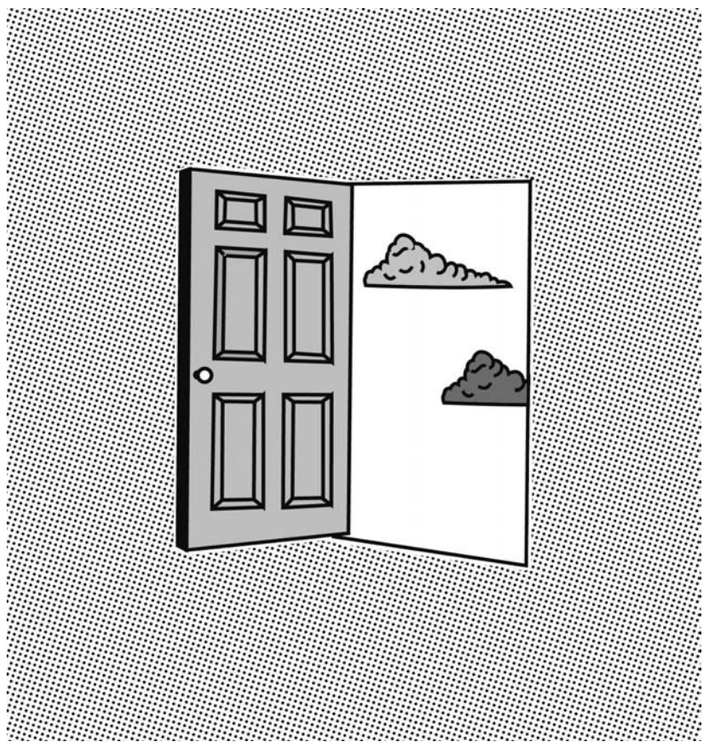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불법은 본래 무위법
무심 알아 홀연히 깨쳐야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면,
변견(邊見)에 떨어져
불이법의 중도에 어긋난다

망상은 실체가 없지만
근본 모르면 상(相)에 떨어져
허망한 그림자에 매달려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망념을 알아챘을 때,
그 자각이 바로 부처다

이 하나의 문(門)을 얻는 것을 이름 하여 무위법문(無爲法門)이라 한다.

모든 부처님께선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모양이나 색깔로 드러내 보일 수 없어서 다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묵연히 계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법문을 무위법문이라 한다. 반면에 주객의 양변이 갈라져서,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는 것은 유위법(有爲法)이다. 세상사는 대부분 주관이 작위를 일으켜 대상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지만, 불법은 무위법이라서 본래 부처인 한 마음에 묵연히 계합해서 그 흐름을 타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무심을 알아 홀연히 깨쳐 체득해야 한다. 만약 애써 배우려고 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어진다.

함이 없는 무위법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다만 우리의 마음이 본래 무심인 줄을 알아서 모든 작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자리는 본래 무심이라서 따로 무심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저절로 무위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무위법이 익으면, 비록 함이 없지만 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매사가 순리대로 임운등등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중생이 이 말을 배워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음알이를 일으켜 무심을 만들려고 하면, 그럴수록 본래 무심과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본래 그런 줄 알고 헛노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벽 스님은 다만 무심을 알아 홀연히 깨쳐 체득해야 하지, 말을 배워서 따라 하려고 하면 벌써 방향이 반대로 가버린다고 하는 것이다.

분별하고 취사(取捨)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석 같이 되어야 비로소 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

분별하는 마음과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생기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변견(邊見)에 떨어져 불이법의 중도에 어긋나게 된다. 마음이 무심해져야 비로소 도를 배울 분(分)이 있는 것이다.

배휴가 물었다.
"지금 갖가지 망념이 나타나는데, 어찌 없다고 하십니까?"

배휴는 만들어진 그림자에 끄달려서 '있다 없다' 하는 양변에 걸려있다. 일어나는 망상은 허망한 것이어서, 그 실체가 없다. 그러나 근본을 모르면 상(相)에 떨어져서 허망한 그림자에 매달려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구름이 지나가건 바람이 불건 허공은 언제나 텅 비어 여여하다. 빈 바탕의 성품을 볼 줄 모르면, 그만 상에 나가 떨어져 있다 없다는 시비를 그칠 수 없는 것이다.

황벽 스님이 말했다.
"망념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대의 마음이 허망하게 일으킨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인식하려 하는가?

본래 부처인 줄 깨닫는 순간에, 허망한 모습들이 본래 없던 것임을 알게 된다. 늘 실체가 분명해서, 이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고 구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말로 하자니까 이런 저런 설명을 하게 되지만, 이 말을 언하에 알아먹고 말없이 끄덕끄덕 하고 그쳐야 한다. 알음알이로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니까, 끝없이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식과의 문답에선 모르면 즉시 의심으로 전환하여 그것을 소화해내려고 참구해야 하는 것이다. 공부가 오랫동안 순숙해져서 깊어지고 넓어지면, 스승 말의 낙처가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공부법이 후대에 간화선으로 정형화되게 되는 것이다. 간화선에선 의심이 생명이다. 의심이 의정을 거쳐 의단으로 익어 터지면, 화두의 낙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하루 종일 대상을 상대해서 마음을 일으켜도 본래 마음자리는 늘 여여함을 알면, 마음이 일어나건 조용하건 상관이 없어진다. 그림자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대상에 끌려 나가 마음을 일으키면, 온갖 시비 분별이 그칠 날이 없다. 아는 사람에게는 망상조차 묘용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묘용조차 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심생(心生) 즉 종종법생(種種法生)이요, 심멸 즉 종종법멸"이라고 한 것이다.

배휴가 물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식께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말을 배휴가 대신 해주고 있다. 이런 질문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 과정에서 한 번쯤 품었을만한 것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데, 망념은 왜 일어나는지? 망념이 일어날 때, 본래 부처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챘을 때, 그 자각이 바로 부처다. 만약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다.

교학에서는 설명하기 위해 번뇌와 보리를 배대시키고, 중생과 부처를 배대시키지만, 선(禪)에서는 번뇌가 바로 보리요,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직지할 뿐 애써 설명하지 않는다. 망념 있는 곳에 부처 있고, 망념이 없으면 곧 부처도 없다. 본래 마음자리에는 무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무명이 다함도 함께 없다. 언제나 양변을 함께 막아서, 불이(不二)의 당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⑨



중생들이 한없이 많으나 다 건지겠습니다

〈천수경〉

이룰 수 없는 꿈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실제로 이보다 더 울림이 큰 말씀도 드물 것이다. 중생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는 헤아릴 수 있지만, 중생들에게는 그것이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에 헤아리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생의 범위는 가히 무한하다. '중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던가. 그렇기에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논에 자라고 있는 나락의 수를 헤아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가.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 동물, 그리고 식물의 수를 다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별이 우주에 또 있다면 그 수는 더욱더 증가하고 만다. 외계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의 생물이든 생명 있는 존재라면 다 중생이다. 시간 역시 무한하므로,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 속에 존재하는 중생들을 다 제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중생이 한이 없으나 다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은 사실 모순어법(矛盾語法, oxymoron)에 가깝다. '중생'이라는 말과 '제도'라는 말은 동시에 자리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의 중생을 다 제도하셨던가? 아니다. 못 하셨다.

그렇다. 서원은 불가능한 꿈, 이룰 수 없는 희망을 그리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비현실(非現實)이다. 현실에서는 비현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비현실을 끌어안고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 속에서, 비로소 종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상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망한 것은 아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추구하기에, 거기에는 성스러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종교가 현실적이기만 하고 만다면, 현실은 희망이 없다.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중생들에게는 미래가 없게 되고 말 것이다.

중생불교

30여년 전 어느 수업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불교는 국경이 없지만,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불교인에게도 여권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불교인에게는 한국여권이, 중국의 불교인에게는 중국 여권, 일본의 불교인에게는 일본 여권이 있다.

하지만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맥락은 당연히 여권이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방침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그 국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불교의 가르침은 버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전쟁에 협력한 일본의 불교인들 역시 참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부처님은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한 국가들은 때로는 전쟁을 한다. 그것이 역사다. A국의 불자들은 A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고, B국의 불자들은 B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다. 국경이 있는 불교인/국민으로서는 어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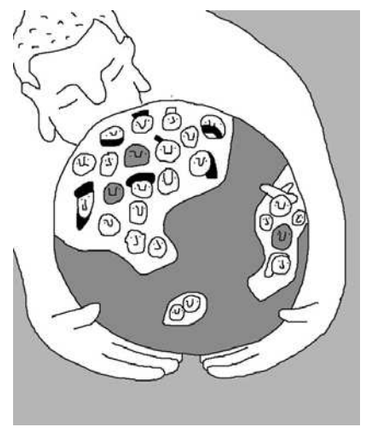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국경이 없는 불교인/중생으로서는 그 가르침/이상을 배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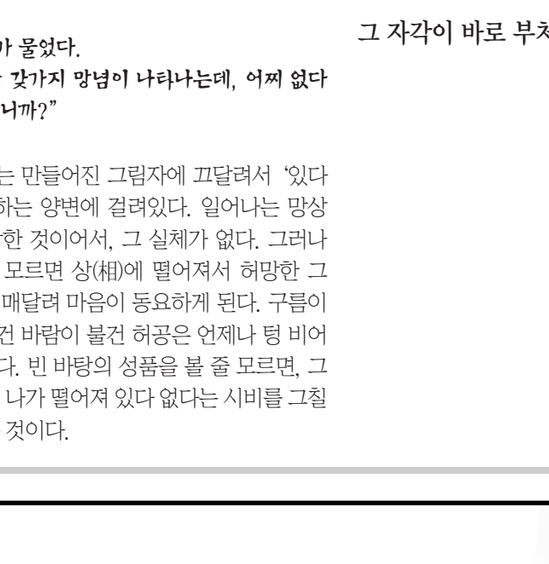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고 말해버리는 당당함 속에서, 우리는 불교인의 고뇌나 양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데서, 불교인은 '국민'으로 강요되는 상황(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중생'으로서의 노력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불교인에게는 국경이 있다"고만 말해서는, 가령 전쟁이 끝난 뒤라도 우리나라의 전사자들을 위해서만 염불을 할 뿐 적국의 전사자들을 위해서는 염불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군도 적군도 다 중생일 뿐이다. 중생으로서 전쟁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불교, 적을 위해서도 염불하는 불교, …이것이 중생불교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94년도 보이차 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스님, 추사의 필요물품 조달

추사가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시절,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이는 초의였다. 그는 추사에게 차와 종이, 약재뿐 아니라 열악한 풍토를 견디게 한 장류를 보내 벗의 심신을 위로하였다. 특히 제주 시절, 추사는 뭍과 제주를 오가는 자신의 지기들 편의를 초의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인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이 편지는 간지를 표기하지 않아 그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초의중전(草衣重展)' 이라 시작되는 편지는 별도로 보낸 추신과 합본된 것이다. 우선 피봉이 '초의대사 선전(草衣大師 禪展)' 이라 쓴 편지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의께서 거듭 보십시오. 여기 가는 능 스님에게 돌아갈 양식으로 3냥을 주시고 그 돈은 절에서 찾으십시오. 이 편지를 김 아전에게 보내 만약 도착한 물건이 있으면 그것으로 갚고, 그 나머지는 (그대의)암자에 보관하여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가(草衣重展 此去楞納 當給歸粮三兩 某樣推得於寺中 此書送之於金吏處 如有來物 以是還報 其餘姑存庵中 以爲他時方便 爲佳爲佳 老迦)

위 편지에서 "초의께서 거듭 보십시오"라고 한 점에서 추사는 어떤 일을 초의에게 부탁한 후, 거듭하여 "능 스님에게 양식으로 3냥을 줄 것"을 전했던 것이다. 실제 능 스님이 어느 절의 승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추사의 명성을 찾아 제주를 방문했던 승려라 여겨지는데, 추사는 그가 돌아갈 때 필요한 경비를 초의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도판은 〈나가묵연첩〉, 추사친필본

추사 찾아 제주 온 스님들 이야기 언급
추사의 정신적 의지처는 불교와 차
불경 보며 의문 나면 초의에게 질문

실제 추사의 편지에는 자신을 찾아 제주를 내왕했던 승려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다는데, 이는 당시 불교계에 알려져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유배 시절 초의는 끊임없이 추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었고, 추사 주변의 소소한 일들을 처리해 주었는데, 이는 그가 "이 편지를 김 아전에게 보내 만약 도착한 물건이 있으면" 이 돈으로 갚아달라고 한 것이나 "나머지는 (그대의)암자에 보관하여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것에서 확인된다.

평생을 함께 했던 추사와 초의,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벗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고매한 수행력과 우수한 차품을 세상에 알린 것은 추사이다. 청대의 신문물을 초의에게 전해줘 근대화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리(文理)에 눈을 뜨게 한 이는 추사였다. 그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변함없는 우정과 배려를 잊지 않았던 초의였으니 이들의 우정은 후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한편 추사의 정신적 의지처는 불교와 차였고, 이를 끊임없이 공유했던 인물이 초의였던 셈이다. 추사는 제주 시절 불교에 깊이 천착했는데, 불경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언제나 붓을 들어 초의에게 묻곤 했다. 이는 신수와 혜능의 선지를 묻는 추신에서도 확인된다. 추신은 다음과 같다.

묻기를 신수대사는 옷을 얻지 못했다. 답하길 온 몸이 다 부처이다. 또 묻기를 노행자는 옷을 얻었다. 답하길 선도를 알지 못했다. 이 뜻이 무엇인지요(問神秀大師不得衣 答通身是佛 又問盧行者得衣 答不識禪道 此義如何)

추사는 이것을 어디에서 읽었을까. 오조 홍인께서 전한 선지의 깊은 뜻을 추사는 이해하지 못하고, 초의에게 그 깊은 뜻을 물었던 것이다. 신수대사는 오조 홍인의 제자이며, 노행자는 홍인의 의발을 전해 받은 육조 혜능이다.



옷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신수대사는 온 몸이 부처이며, 노행자는 선도를 몰랐다는 뜻은 무엇인가. 초의의 답이 궁금하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 :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時와 禪은 닮은 형제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시인 유자효 씨 (방송인)

문학을 꿈꾸던 청년 기자가 되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꿈처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큰 손이었습니다.

-유자효의 '기도' 중에서-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생긴 유자효 시인(67)은 심장 부위를 가르는 대수술을 받는다. 2년전인 그의 나이 예순 다섯의 일이었다. 죽음까지 각오했어야 했던 수술 당시 시인은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순간 자비의 큰 손을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의 경험은 고스란히 시가 되었고 최근 14번째 시집 〈심장과 뼈〉로 출간되었다.

유자효 시인 앞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시인과 방송인. 세속의 흐름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향해 느리게 가는 시인과 시류의 흐름에 빠르게 반응하는 방송기자라는 직업의 공존이 가능한 것일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유자효 시인에게만은 가능한 일이었다.

20대 초반 시인이 되었고, 후반엔 KBS에 기자로 입사하면서 40여년을 방송인으로 살아온 그는 시인 같은 기자, 기자 같은 시인이라 불려왔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9월 24일 백발의 너털웃음이 매력적인 유자효 시인을 만나 그의 문학과 삶 그리고 종교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1968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 시조 '산사' 가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시인은 그동안 〈성수요일의 저녁〉 〈짧은 사랑〉 〈전철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다〉 〈사랑하는 아들아〉 〈심장과 뼈〉 등의 시집을 내왔다. 정지용문학상, 유심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시인로서 인정받아온 그는 방송국을 퇴직한 지금은 시인으로서 작품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학창시절 그는 백일장을 휩쓸던 학생이었다. 글을 쓰기 위해 동국대 국문과를 입학할 만큼 문학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당시 국문학자 양주동, 서정주 시인, 문학평론가 조연현 등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동국대 국문학과는 문학청년들에게 각광받는 과였죠. 하지만 등록금이 비쌌던 사립대를 가정 형편상 계속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죠."

그는 동국대를 다닌 1년이 헛수고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 기간 동안 교양수업으로 불교학개론과 불교문화사를 듣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불교를 잘 몰랐는데 동국대에서 교양과정으로 불교 이론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자가 미칠 수 있는 세 가지가 문학 종교 고등고시라는 말이 당시에 있었어요. 저는 문학의 길을 걸었지만 당시 불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근간을 공부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시기였죠."

이후 시인과 불교계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그는 1997년부터 꾸준히 만해축전 사회를 맡아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는 신흥사 조실이자 시인인 오현 스님과의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8년 데뷔 시절부터 같은 문인으로 스님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스님들 중에 유명한 시인이 많잖아요. 지금은 환속하신 고은 시인도 그런 분 중 하나셨죠. 그렇게 오현 스님과 알고 지내다가 어느날 스님께서 만해축전을 기획하고 있으니 방송인으로서 사회를 봐줄 수 없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제 1회 만해문학상 시상식에서부터 현재의 만해축전까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세상을 보다

불교집안서 자라난 그는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는다. "어머니는 눈 떠서 주무실 때까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편찮은 몸을 이끌고 절에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어렸을 적 다녔던 부산 선암사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범종을 시주하셨을 만큼 불심이 깊으셨죠.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범종소리를 들으시라고 근처 선산에 묘소를 마련해주셨어요. 이처럼 불교는 저에게 친숙한 문화였고 그래서 가장 마음 편한 종교입니다."

그는 결국 불교의 가르침에는 '원숙한 인간 그리고 인격체가 되라' 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강조한다.

1968년 시조 '山寺' 로 등단
〈심장과 뼈〉 등 총 14권 시집 출간
KBS · SBS서 35년간 기자로 재직
기사가 서정적인 시 같다는 평가 많아

불교집안서 자라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
만해 축전 1회부터 17년간 사회 맡아
불교의 가르침…원숙한 인격체 되는 것
부처님은 인류사에 있어 최고의 시인

"깜깜한 방안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는데 그것을 훅 불면 꺼져 버리잖아요. 그 어둠은 결국 적멸이고 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 삶이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지만 불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다. KBS에 재직하던 1980년대 파리 등 유럽에서 특파원을 하며 유럽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그는 가톨릭 수도자들의 철저한 수도생활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초기 기독교는 수양과 수련을 중요시했죠. 유럽 수도원 중에서는 성직자들이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올 수 있



1989년 KBS 유럽 특파원 시절 국빈 방문 보도 장면.



2012년 한국시인협회 시낭송회. 탤런트 최불암 • 장미희 씨와 신달자 시인과 함께.



40년 지기인 오현 스님과 문인들이 함께한 일본 여행. 사진왼쪽부터 이상국 시인,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 유자효 시인, 오현 스님, 유자효 시인의 아내 왕선희



유자효 시인은 … 194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사범대 불어과를 졸업했다. 1968년 〈신아일보〉와 〈불교신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시집 〈성 수요일의 저녁〉 〈짧은 사랑〉 〈떠남〉 〈여행의 끝〉 〈전철을 타고 히말라야를 넘다〉 〈사랑하는 아들아〉 〈심장과 뼈〉 등이 있다. 정지용문학상, 유심작품상, 현대불교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와시학회장, 지용회장 등을 역임했다. KBS, SBS 기자로 재직했으며 현재 구상기념사업회장, 〈불교신문〉논설위원,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는 규율이 엄격한 곳도 있어요. 자신을 갈고 닦아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불교와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특파원 당시 유럽의 초기 명상붐을 만나기도 했다. 당시 유럽인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양사상에 눈뜨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는 틱낫한 스님이 프롬빌리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오리엔탈리즘에 상당한 호기심을 보일 때였어요. 티베트 불교, 남방불교 등이 당시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명상 수행의 바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정신과 치료에 명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이후 한국에 와서도 20년 동안 유럽에 불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는 한국이 유럽 불교를 배워야 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걱정도 됩니다."

시인 같은 기자, 기자 같은 시인

이렇게 그는 기자의 시선으로 다양한 세계의 문화를 보았고 이를 시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기자 같은 시인, 시인 같은 기자가 된 것이다. 그가 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입에 살았던 한 남자의 삶의 발견"이라고 강조한다.

"시를 쓰는 것을 평생의 지향점으로 삼았던 저에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 중에서도 삶이 먼저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기자라는 제 직업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것이 또 시가 되었고 저의 세계를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니 이 또한 모두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제 삶을 바탕으로 제 작품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시인은 삶의 이상향이었고 기자는 현실이었다. 오랜 시간 이 둘을 놓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의 결론은 결코 기사와 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시는 언어의 압축이고 방송 기사 또한 일어난 사건을 압축하는 일이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 기사가 서정적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시인의 눈으로 보니 다른 기자들이 예사로 넘길 것들을 더 자세히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제 기사가 시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제 시가 기사 같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를 잘 써야 기사도 잘 쓸 수 있고 기사를 잘 써야 시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KBS를 거쳐 SBS로 이직하면서 방송기자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를 쓰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였다. 그리고 2008년 SBS를 퇴직한 그는 본격적인 전업 시인의 길로 들어선다.

"방송은 저에게 생활인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남은 생만큼은 못다했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은 시에 몰입하고 있죠. 시인은 정년이 없잖아요? 좀더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보고 또 그로 인해 작품 세계가 깊어진다면 지금이 바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시기라 생각했어요."

언어의 조탁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시와 진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불교는 다른듯하면서도 많이 닮았다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의 명상은 발견에 가깝죠. 오랜 시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나오는 정신적 산물이 시죠. 불교의 선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진리의 세계죠. 둘의 목표는 다르지만 그 발상의 형태는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 후에 게송을 남기셨잖아요? 인류사에 있어 최고의 시인이 부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 경지와 종교의 경지가 닮았다고 말하는 시인은 시와 선은 형제와 같다고 표현한다. 앞으로 그는 꾸준한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고민이 많다고 해요. 종교도 예술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종교계와 예술계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 세계시인대회에서 고은 시인과 함께.



만해축전 1회 대회 때부터 사회를 맡아오고 있다.

전법일기

이 순간이 영원하다 믿는 아이들

영어담마캠프(6)

나의 캠프에는 마니아들이 있다. 이들은 매년 여름이 되면 엄마를 졸라서 캠프에 참석을 한다. 가족들이 여름휴가 계획을 짤 때면 먼저 자우 스님 영어담마캠프 일정을 물어보고 잡으라고 한다고 전화가 곧잘 온다. "스님, 우리 아이가 자기는 꼭 영어담마캠프에 가야하니까 스님께 언제 하는지 물어 보고 가족 휴가 일정을 잡으라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눈치다. 어떤 아이는 말을 안들을 때마다 "너 이렇게 하면 내년 영어담마캠프 안보내준다"라고 협박을 하면 곧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도 한다.

캠프마니아들 중에서도 인상적인 아이는 민지다. 민지는 이제 3학년이다. 민지는 1학년부터 캠프에 왔다. 다른 일반캠프보다 긴 일정을 1학년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1학년은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내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 아이가 혼자 씻을 수 있는지,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지, 부모님 떠나서 생활해 본적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허락한다. 민지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다.

어머니의 민지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설득에 1학년이라도 허락을 했는데 캠프에 와서도 놀랍게도 적응을 잘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신나했다. 특히, 캠프에 올때 마다 엄마에게 잘못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수행의 씨앗이 있는 아이다.

캠프 때마다 나의 방 앞마루에는 캠프에 진행할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날짜별로 프로그램별로 박스에 담아 놓고 점검을 한다. 아이들은 힐끔힐끔 지나며 이번에는 스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궁금해 하기도 한다. 아침을 먹고는 아이들 운력시간이다. 팀별로 마루닦기, 방청소 등을 해야 한다. 한참 마루에서 정리를 하는데 민지가 마루를 닦다가 나의 소중한 박스를 보더니 "스님! 이번에는 준비를 아주 많이하셨네요" 하고 나를 칭찬해준다.



그림 · 박구원

"그럼, 스님이 이번에도 너희들 즐겁게 해주려고 신경 좀 많이 썼지" 민지는 씨익~웃는다. 그러면서 하는말 "그런데 스님 이 캠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13일 까지 하지" 날짜를 묻은 줄 알고 대답했더니 민지는 살짝 답답하다는듯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실껴냐구요?" "아, 글쎄 언제까지 할까? 이번 캠프해보고 결정해야지. 스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좀 힘들어. 그런데 너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듯 "제가 중학교3학년 될 때 까지는 꼭 하세요" 한다. "캠프가 그렇게 좋아?" "네, 저는 집보다 절이 좋아요. 이곳에 살면 좋겠어요" 마음이 뿌뜻하다. '이런 아이들에게 올해는 또 어떤 예쁜 마음을 심어줄까?'

내일이면 캠프가 끝난다. 나는 아이들이 오늘 하루를 다투지 않고 알차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들아 벌써 내일이면 캠프가 끝난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올까? 안 올까?" 나는 오늘이 또 오지 않으니 열심히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또 와요"라고 한다.

"어떻게 이 순간이 다시 오지?" 하고 물었더니 "스님, 내년 캠프가 있잖아요?"라고 되묻는다.

"애들아, 스님이 내년에 캠프를 또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순간이 또 오니 안 오니?"

"그런데 스님, 이번 7회 캠프도 했는데, 왜 8회 캠프를 못해요? 당연히 하지요?"

못 말리는 아이들이다. 몇 번을 물어도 지금 이 순간이 또 온다는 무개념의 아이들. 아이들 머릿속의 시계는 신나는 기다림으로 멈춰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다. 당연히 지금 이순간이 또 온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즐거운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아이들의 설레는 마음을 어른들이 알아주면 참 좋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12명 사살한 알렉시스, 불교도로 밝혀져

미국 불교계 '충격'… '불교의 마음 치유력' 의문 제기
"미국인이 불교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 될 수도"

미국 사회는 동양의 명상을 치유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복합단지(Navy Yard) 내 한 사령부 건물에서 12명을 사살한 범인, 아론 알렉시스(Aaron Alexis、34)가 사찰에서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던 '불교도'로 알려지면서 미국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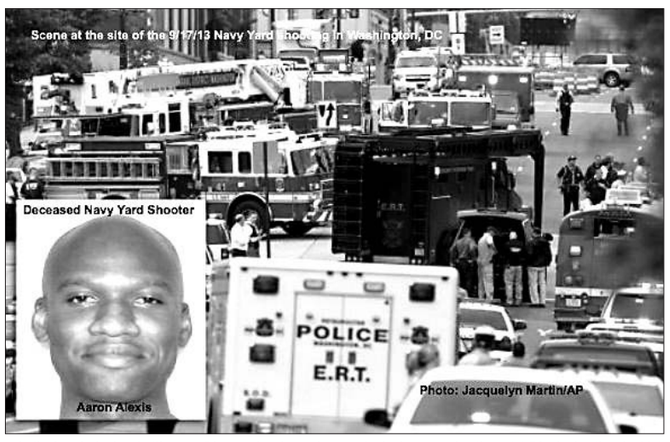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의회 의사당에서 1.1㎞, 백악관에서 5.6㎞ 떨어진 도심 인근인데다 9、11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고, 테러 당시 많은 희생자들이 명상에 참여하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던 사실을 뚜렷이 각인하고 있었던 미국 사회의 충격은 더욱 크다.

〈News York Times〉 지는 알렉시스 친구의 말을 인용, "알렉시스는 자신의 방에 금불상을 봉안하고, 규칙적인 명상 수련을 하면서도, 항상 총을 지니고 있었다"고 전하고, "비폭력, 마음치유 등으로 서양인에게 각인되어 왔던 불교의 모습과 알렉시스가 추종했던 불교의 모습 사이에서, 미국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알렉시스는 포트 워드(Fort Worth) 지역의 상좌부 전통의 명상센터인 담마바나람(dhammavanaram)의 정회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담마바라나람 명상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는 카셈 푼디쵸(Kasem Pundisto) 스님의 말을 인용, "2010년부터 센터의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했지만, 최근 1년간 그의 신행 활동은 지난 2년과 비교해 활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음주 후 명상센터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스틴 휘테커(Justin Whitaker、불교윤리) 박사는 "불교 공부는 대중과 함께 하는 게 전통"이라고 전제하고 "알렉시스는 처음 대중과 함께 명상에 입문했지만, 점차 홀로 하는 명상에 심취된 듯하다"며 "명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반한 행위를 저지른 알렉시스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홀로 하는 명상은 윤리적 치유적 효과가 적다"고 설명했다.



알렉시스(사진 아래)는 9월 16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해군 복합단지 내 사령부 건물에서 12명을 사살했다. 그는 명상수업과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한 불자로 알려져 미국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저스틴 박사는 "치유의 과정은 자신에게 함몰되는 게 아닌 자신을 객관화 하고 주변과 통섭하는 데 있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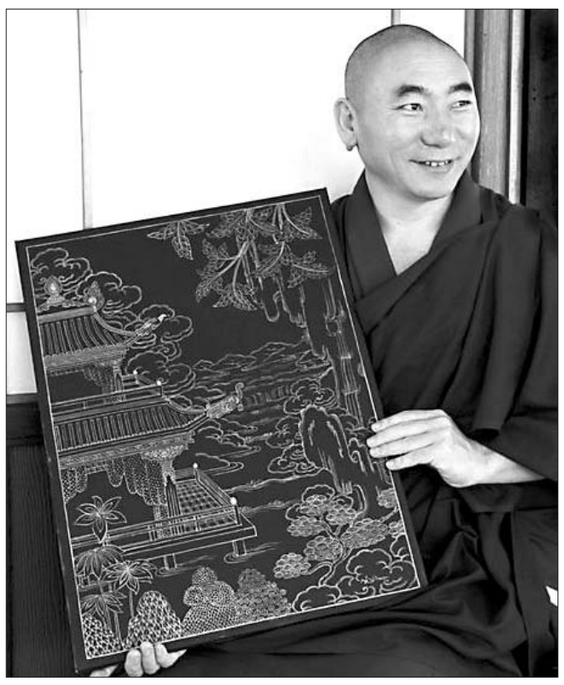
한편 "불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전제한 찰스 존스(Charles Jones, Catholic University)교수는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가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리 치료사 중에는 독실한 불자이기나, 불자가 아니더라도 불교를 깊이 공부한 이들이 여전히 많고, 그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어, 미국 불교계는 이번 충격을 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800년대 아시아 이민자들에 의해 태동되기 시작한 미국불교는 1990년대 이후 잭 케로악(Jack Kerouac) 등,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했던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헐리우드 스타 등 유명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야망'에 찬 미국 사회를 치유할 '건강한 대안'으로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불교는 서양의 심리학과 공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검증되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방법론'으로 각광 받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호주 관광도시서 불교식 채식뷔페 '인기'

경매 수익금으로 '명상 실수' 등 프로그램 운영


롭상 콘촉(Lobsang Konchok) 스님이 직접 그린 불화를 들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관광도시 토키(Torquay)에서 해안의 절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 꼽히는 해변 거리, 에스플레네이드(Esplanade)에서 매주 한 번 마련되는 불교 채식 뷔페와 불교미술 작품 경매가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의 이목을 잡고 있다.

호주 매체 〈크로니클〉 지에 따르면 카쵸드링 다키니(Khachodling Dakini) 사원은 자신들의 서원 실천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채식 뷔페와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에 선보이는 불교미술 작품은 캬쵸드링 다키니 사원에 주석한 스님이자 유명 불화 장인인 롭상 콘촉(Lobsang Konchok) 스님의 탕카와 붓글씨다.

경매 진행을 맡고 있는 벡 프레스콧(Bec Plascott) 씨는 "롭상 스님은 티벳 망명정부의 지원을 받아 탕카 교육 과정을 모두 밟은 전문 작가"라며 "사원에서 마련한 저녁 만찬에서 불교 채식을 맛보며, 티벳 불화 장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쵸드링 다키니 사원은 재정 보시와 자원봉사에 힘입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롭상 스님은 "경매 수익금은 사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명상 수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니클〉 지에 따르면, 캬쵸드링 다키니 사원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우슈비츠서의 명상수련, 소설로 만난다

美 유명작가 피터 패티슨, 명상 경험 깃든 소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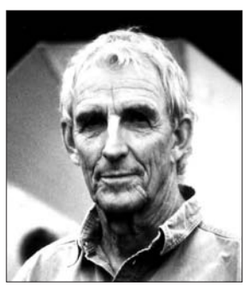
아우슈비츠에서의 명상수련을 소재로 한 책이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피터 패티슨(Peter Matthiessen)의 〈파라다이스에서(In Paradise)〉라는 소설이 그 주인공이다. 홀로코스트를 소재로 삼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명상수련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1주일간의 명상을 통해 당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이들의 분노와 슬픔을 시간여행을 하듯 공감한다는 내용이다.

소설가와 논픽션 작가로 유명한 피터 매티슨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세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올해 87세인 피터 매티슨은 명상지도자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그간 깊이 있는 내면을 담은 책을 발표해왔다. 전미도서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새 소설은 '선 평화만들기 프로젝트(Zen Peacemakers Project)' 가 매년 2차 대전 강제수용소에서 주최하는 명상수련 프로그램인 '증언자들(Bearing Witness)' 에 패티슨이 참가한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다. 수용소에서 걷기명상을 하고 화장터에서 밤샘기도를 하는 등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올해 명상은 11월에 열린다. 겨울추위 속에서 참담했던 당시를 피부로 느끼기 위함이다.

1927년에 태어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1954년에 작가로 데뷔한 피터 매티슨은 이제까지 약 24권의 책을 썼다.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폭력, 인종차별 등을 사실대로 보여준 〈그림자 나라(Shadow Country)〉로 2008년 전미도서상을, 〈눈 표범(The Snow Leopard)〉으로 1979년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눈 표범〉은 〈신의 산으로 떠난 여행〉으로 국내에 출판되었으며, 눈 표범을 찾아 네팔 트레킹에 나섰던 작가의 영적 순례기로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자연, 불교에 대한 답을 추구한 수작이다.



겨울의 아우슈비츠는 춥고 을씨년스럽다. 이곳에서 자행된 끔직한 사건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명상수련이 1년마다 열린다(사진 왼쪽). 이를 소재로 미국의 저명한 작가 피터 매티슨(사진 오른쪽)이 쓴 소설이 출간을 앞두고 있다.

패티슨의 새 소설은 2014년 봄에 만날 수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축제 때 선보일 '연꽃 군무'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계 아이들

美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 불심 키우는 '콴 암 남 하이'

첫 가을 축제 열고 … 13피트 석불 선보여

미국 플로리다 캘러웨이(Callaway)의 베트남계 사원에서 준비하는 가을 축제(Mid-Autumn Festival)가 화제다.

〈뉴스 해럴드(News Herald)〉 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베이 카운티(Bay County)의 캘러웨이 스타(Star) 거리에 개원된 콴 암 남 하이(Quan Am Nam Hai) 사원이 첫 축제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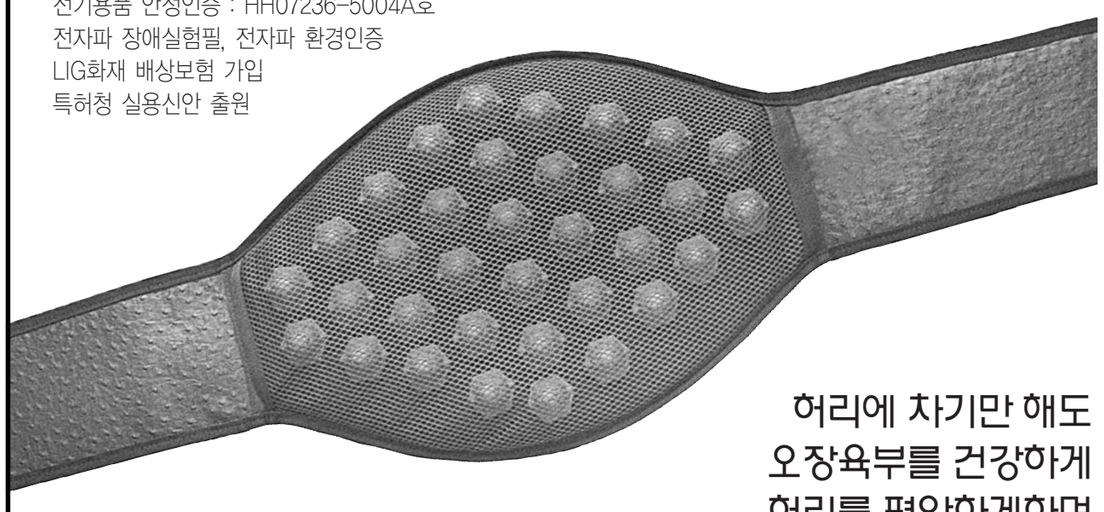
트랜(Master Tran, 콴 암 남 하이 사 주지) 스님은 "베트남에는 가을 초입 때가 되면 항상 추수를 감사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렸다"며 "이번 첫 축제에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베트남의 유산을 잊지 않고 지켜내길 바라는 앞선 세대의 서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사원 측에 따르면,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대중 스님들은 아이들 손마다 연등을 쥐어주고,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가하면, 자원 봉사자들은 사원 곳곳에서 베트남 전통 음식을 방문자들에게 선보이는 코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무게 12톤, 높이 13피트에 달하는 부처님 봉안 법회도 봉행한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부처님 석상은 지난해 2월 사원 개원에 산파 역할을 했던 틱 틴 투(Thich Tinh Tu) 스님의 발원으로 가능했다.

콴 암 남 하이 사원의 첫 축제 준비위원인 마샤 홀(Marsha Hall, Rutherford High School 교사) 씨는 "작은 집에서 시작된 여정이 16개월 만에 야외 부처님을 봉안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이곳은 피부색을 넘어선 '평온한 안식처'로서 지역 주민들의 각광 받고 있어, 앞으로 지역에서의 사원 위상은 더욱 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랜 스님은 "대중 스님들은 사원을 방문한 사람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이 그 원력으로 삶의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콴 암 남 하이 사원은 플로리다 베이 카운티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신비롭고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 보리선수 약사선원

10월 17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 약사여래의 원력이 현전하는 놀라운 법석

"보리선수는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고통 받는 현대인들을 위해 진푸티상사께서 약사불 12대원과 티베트 수행법을 망라하여 집대성한, 쉽고 신비한 현대적 수행법을 전파하는 약사불 도량입니다. 바쁜 현대인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선정과 건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리선수는 건강과 즐거움의 길입니다."

신비로운 티베트 설산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수행의 향기 가득한 법석, '약사여래불 가피 대법회'가 10월 17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티베트 밀법의 신비스런 수행과 선정의 힘을 엿볼 수 있는 이번 법회는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주지 법생스님)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불교TV, BBS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부산지사, 법보신문, 불교신문 부산지사가 특별후원 한다.

보리선수 부산약사선원 주지 법생스님은 "한국에서의 8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불교도시 부산이 세계 영화의 메카, 국제해양도시, 국제물류도시 등 세계 속의 부산, 국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런 추세를 잘 파악해 부산을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거점이자, 불교 국제화 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전법하는 불제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후 "이번에 개최하는 법회는 신비롭고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이 체계화 된 한국 불자 대중들을 만나는 귀한 법석으로 현교와 밀법의 만남을 통해 부산불교가 더욱 성숙해지고, 이웃 종교를 섭수하여 불교 국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결실이 촉발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법회의 취지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2,500년 동안 국경과 인종의 벽을 넘어 면면히 이어 온 것은 고통스런 현실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이고득락의 실용적 가치와 지혜의 안목 때문"이라며 "이번 법회는 티베트 밀법에 면면히 이어져 온 선정과 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법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첫째,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바늘 끝 하나 들어갈 자리 없는 현대인들의 여유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현대적 불법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둘째, 현대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약사여래의 원력이 현전하는 가피법회를 통해 선의 즐거움, 불법의 기쁨, 건강의 소중함을 즉각 체험하고 즉각 확인하는 귀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회 순서는 보리선수의 신비롭고 현대적인 수행법 전수를 시작으로 법문, 다라니 염송에 이어 법회의 주행사인 티베트 밀법의 놀라운 선정과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약사불 가피에 이어 참석 대중들의 길상여의를 축원하는 감로가피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계 30개 지역 국경 초월한 보리선 수행
누구나 쉽게 배우고 깨치는 자비법문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 법생스님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30여 개 지역에서 법문을 펼치고 있는 국제기구인 '보리선수'는 기구의 명칭이자, 진푸티 상사가 창시한 현대적 불교 수행법들의 통칭이기도 하다.

보리선 수행법의 요체는 '자비'다. 스승의 자비 원력이 깃든 만트라(염불) 또는 현대적 명상음악의 인도에 따라 일종의 수인 동작과 관상법을 적절히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선정과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진푸티 상사가 고안한 모든 수행법들은 특별한 가피명상음악과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행시 사용되는 음악들은 신비롭고 우주적이며, 고요하며 깊은 이완을 유도하게 하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 수행법으로는 관상과 함께 하는 '티베트 오체투지' '다라니 염송' 수인을 변화시키며 이끄는 말에 따라 관상하는 '대광명수지법' 좌선의 상태에서 이끄는 말에 따라 관상하는 '보리청정관상법', '감로이완법' 원형으로 돌며 수련하는 '팔괘' 흡사 기를 모으는 것 같은 모습의 '수정구' 수행 등 인연에 따라 다양하게 시설되어 있다.

3년 전 보리선 수행을 만난 석법운 불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오랜 수행으로 심신의 병이 깊어졌었다."며 "약사불 다라니 수행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부처님의 대자비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불법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보리선 수행자 쟈앤윈씨는 "약사불 다라니 수행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 좋았다. 종족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불자든 아니든 인연이 닿는 모든 이들이 약사불 다라니 가피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며 "약사불의 자비 에너지는 정말 한계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수행 중인 바바라씨는 "평생 편두통이 나를 괴롭혔는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가피음악과 함께 오체투지를 계속했다. 지금은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약사불 오체투지다라니 수행이 내겐 묘약이다."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 법생스님

법생스님은 진푸티 상사의 전법제자로 스승의 경지를 오롯이 전수 받고, 당장 아프고 고통 받는 이들을 제도하지 않는다면 불법 또한 쓸모없는 것이라며,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 대중들을 위해 혼신의 원력으로 불법 홍포에 매진하고 있다.

2005년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행을 결심하고 법문을 펼치기 시작하여 마침내, 2007년 온천동에서 선원을 개원했다. 참다운 수행에 목마른 한국 대중들에게 감로수가 되어 2010년 해운대 신도시로 확장 이전했고, 2013년 송정에 무문관 수련관을 추가로 개원하면서 국내에 보리선 수행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부산본원 외에도 서울, 안산, 대구에 각각 지원을 두고 보리법문을 펼치고 있다.

☎ 051)702-7746
home-page : www.boriseon.com


대광명수지 수행을 하고 있는 미국 보리 선 수행자들의 모습


2009년 캐나다 밴쿠버 UBC대학에서 개최한 약사불 가피 법회

나와 자비심이 하나 됨이 최상승의 불법


진푸티 상사

도움을 줄수록 즐거워 집니다.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습관처럼 남을 도와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돕겠다는 스트레스도 없고, 깨우쳐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바로 가장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렇게 습관을 기르고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초기의 불법 사용단계는 바로 실용성입니다. 나는 이 인간세상에서 지옥을 쫓아버리고 극락세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야만 참된 불법이고 깨달음이며 진정한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탈을, 지금의 육체가 죽은 후 다음 생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 배고파요" "그래 다음 생에 먹어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불법이란 반드시 현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금생에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즉신수행, 즉신성취, 각행원만"은 불법을 공부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참된 부분입니다.
어떤 이는 '생활해야 하는데 자비만 행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합니다. 자비심이 있고 지혜와 법력이 생기면 생활이 어려울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모두가 앞다투어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이고 길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입으려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 덕분에 부처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신은 아껴먹고 아껴쓰지만 참으로 자비롭고 길상한 사람을 공양합니다.
고생을 두려워하면 대자대비뿐만 아니라 자비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출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출근을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자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엔 도움이 필요하며 동물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비심과 하나 됨이 불법의 최고경지입니다. 자비를 떠난 불법은 없습니다. 인과성에 맞지 않는 불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각각타가 없으면 원만이 아닙니다.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면 부처님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제도의 길을 갈 때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돕는 습관이 길러지면 여러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티베트 대성취자 진푸티 상사

진푸티 상사는 어려서부터 티베트 칭장고원의 설산에서 200여명의 많은 스승들로부터 각종의 수행법을 배우고 수련했다. 우주의 진리와 인생의 진면목을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른 진푸티 상사를 티베트 라마스님들은 환생한 부처로 인정하고 금불사로 모셔 가려고 했다.
그러나 진푸티 상사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 받는 중생들의 이고득락을 위해 하산을 결심하고, 자신이 닦은 고된 수행이 아닌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도 쉽게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현대적 불교 수행법인 '보리선 수행법'을 창시하고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디지털 아트로 탄생한 불화의 변신

김용덕 '붓다의 외출' 10월 7일~ 16일 불일미술관서

엄숙한 탱화 속 부처님이 화려한 외출을 했다. 컴퓨터 디지털 아트로 표현한 탱화 30여점이 눈길을 끄는 김용덕의 '붓다의 외출' 이 10월 7일~16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30여 작품을 선보인다.

불교미술이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작가의 서원이 탱화의 새로운 변신으로 태어났다. "부처님의 형상이 절과 박물관 등에서 벗어나 우리와 희노애락을 나누는 일상의 미술로 자리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함보다는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강조한 컴퓨터 작업으로 탱화를 표현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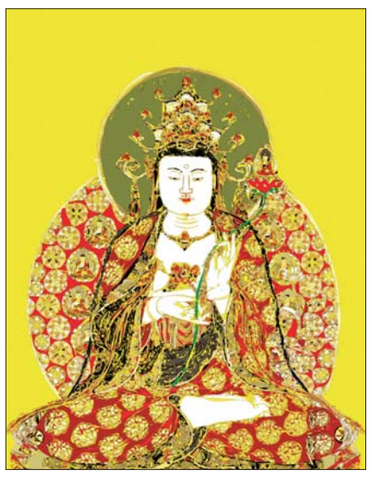
'일천불 품으신 관음' 은 관세음보살 가사에 1천 부처님을 그려 넣었다. 이는 강렬한 색깔과 단순한 터치를 통해 항상 우리의 곁에 존재하는 관세음보살을 재현했다.

화려한 색감의 고려수월관음 역시 컴퓨터 작업을 통해 빚어낸 작품이다. 훼손되고 빛바랜 불화를 작가의 상상력과 컴퓨터라는 신문물의 도구로 새롭게 부활시켜 재현했다.

"탱화가 양식화이기 때문에 형식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룰을 지키되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면 일반 탱화보다 얼굴 부분이 많이 단순화 되어있을 겁니다. 회화성을 강조하고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작가는 불교를 소재로 한 전시회를 꾸준히 가질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반야심경을 해석한 일러스트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02)733-5322

정혜숙 기자





김용덕의 '붓다의 외출' 이 10월 7일~ 16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품 왼쪽부터 '일천불을 품은 관음' 과 '미륵보살'

마음의 고향 찾는 만다라의 향연

김영옥 개인전 10월 2일~9일 인사아트센터서

10년간 자기탐구를 거친 작가가 세상에 힐링의 메시지를 던진다. 김영옥(한국만다라심리연구 원장)의 제 6회 개인전 '심연에서 찾은 고향' 이 10월 2일~9일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김 원장의 만다라는 한국 전통의 전각 새김을 이용한 독특한 회화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자기 마음자리를 깨달아 치유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심연에서 떠오른 햇살, 심연의 만남, 심연의 둥지 등 다양한 만다라 작품을 선보인다.

"만다라를 체험하는 과정에서는 하염없이 빨려드는 몰입의 상태와 뽐어져 나오는 확산의 에너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끝없이 쏟아내고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를 오가며 자기의 중심자리를 찾는 것이죠."

김 씨는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만다라 마음치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자한다. 이에 만다라드로잉회화를 모아놓은 〈만다라드로잉명상1〉을 출간했다. 만다라드로잉회화는 김 원장이 평소 새벽명상을 통해 얻은 성찰의 글을 수집한 것이다. (02)736-1020 정혜숙 기자



김영옥 작가의 만다라 개인전이 인사아트센터에서 10월 2일부터 열린다.

마음 향한 칼 기와조각에 새기다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 '칼끝장엄' 展…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백척간두진일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박한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한 마음의 칼끝을 작품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칼이 크다고 큰 일 하는 게 아니고 작다고 작은 일 하는 게 아니죠. 칼끝이 가누는 곳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세속의 칼끝은 사과 배 같은 사물을 가르킬 수 있어요. 하지만 구도자의 칼끝은 마음을 향한 수행의 목표 지점을 향하고 있죠."

와편전각가 여공 스님의 7번째 전시 '칼끝장엄' 이 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열린다. 버려진 기왓장을 옮겨오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기왓장을 닦고 그 위에다가 다시 조각을 하고 색깔을 입히는 작업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고된 작업들을 스님은 칼끝으로 이루어가는 수행의 과정에 비유한 것이다.

버려진 기와조각에 칼끝으로 장엄한 화엄만다라를 펼치는 스님은 이번 전시에는 기존 20여 점에 새로 작업한 40여 작품이 합쳐진 총 60여 점으로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종 안에서 좌선을 하는 듯한 수행자의 모습을 표현한 '잘 되었다' 는 스님이 직접 쓴 시 제목에서 이름을 따온 작품이다. "제가 미술 작업을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잘되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떠난 것이 잘 되었다는 뜻이죠. 이 작품은 곧 저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독일에서도 전시한 바 있죠."

스님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신기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기와에 글귀를 새겨 놓았는데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작업한 기왓장 표면을 1~2밀리 정도 밀어 내고 그 위에 옻칠로 보강하고 찹쌀죽으로 만든 접착제로 균열의 틈을 메우는 등 기초 작업상태로 만들어 놓았다.



여공 스님의 '민달팽이 춤추다'

옻칠 서예 전각 등 배우며
20여년 기와조가에 매진
와편 전각 새 장르 개척
조사스님 어록 작품화 '서원'

"기왓장을 건조시키려고 밖에 내놓고 외출을 했어요. 밤에 돌아와 기왓장을 보니 굵은 민달팽이 하나가 올라가 있더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 진액이 뿜어져 있더라고요. 외계인이 비상하는 장면 같기도 하고 뭔가 묘한 느낌이었죠. 이것을 음각으로 새겨 미색의 선을 입혀 '민달팽이 춤추다' 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스님은 와편전각을 위해 불화공부에서부터 시작해 옻칠 서예 전각 단청 천연염색 등 다양한 공부를 했고 이를 작품에 적용시켰다. '옴마니밧베훔' 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양각 작품으로 불화가 병진 스님에게 불화를 공부한 후 완성한 작품이다. "양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화의 기초를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스님에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기뻤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인도 여행을 갈 때 달라이라마 존자에게 이 작품을 선물했습니다."

이처럼 스님은 출가 전부터 시작해 20여년 기와조각을 작품화 하는 일에 천착해왔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해보고 싶다는 무심의 마음에서 시작해 끊임없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출가전부터 시골에서 공방 운영을 하며 강좌도 열고 했어요. 그때부터 흙 작업을 좋아했는데 도자기 가마에 흙판을 빚어 작품을 만들어보았죠. 하지만 이렇게 만든 작품은 습기가 차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 때 발견한 것이 라운딩이 된 기와조각이예요."

스님은 기와를 조각할 수 있는 칼을 찾기 위해 경남 진주까지 내려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3년의 노력 끝에 와편전각이라는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한다.

"기와조각은 20~30년 후면 다 사라질 거잖아요. 절 뒤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뿐인 기와 조각에 이렇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출가후 기와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나 기왓장을 밤새 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여공 스님. 그렇게 다시 예술을 통해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스님은 앞으로 역대 스님들의 어록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경봉 · 만공 · 경허 · 성철 스님 등의 어록들을 작품으로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한 분마다 50점씩 만들어 기획전을 여는 것이 제 필생의 원입니다." (010) 3097 137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여공 스님의 '칼끝장엄' 전이 10월 5일~13일 전등사 무설전 서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은 스님의 자화상을 표현한 '잘 되었다'

27회 불미전 수상작 한자리에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서… 46점 전시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전시가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상작인 류종상의 금동준제보살좌상 등 46점의 당선작이 선보인다.

대상으로 선정된 류종상의 금동준제보살좌상은 그동안 시도된 바 없는 밀교 도상의 하나인 준제관음상을 청동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조계종은 "복잡하기 그지 없는 관음상의 손과 지물, 보관과 영락 등의 세부 디테일을 정교하게 살리면서도 단아한 상호, 깔끔한 채색과 개금 등 고려시대의 전통 조각을 현대에 맞게 소화한 작가의 노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최우수상작인 일오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 은 보물 1612호로 지정된 법화사 대웅전불화를 그대로 재현했다. 전통적인 기법을 충실히 사용해 현대에 맞는 채색과 감각을 살려낸 점이 높이 평가를 받았다.



'제2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전시가 10월 1일~17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최우수상작인 일오 스님의 '석가모니후불탱'

또다른 최우수상 작품인 '대불정수능엄경변상도 목판' 역시 전주의 화암사본(1443년)을 복각한 작품이다.

국산 토종 은행나무를 6년간 건조시킨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세부의 조각에서 놀라운 정성과 기량이 잘 발휘되었다는 호평을 얻었다.

조계종은 전시에 앞서 10월 1일 오후 2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

정혜숙 기자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11회 약 천 사

태(胎)중 아기 (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양력 10월 13일(일요일) 오전 11시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 의 편리를 위해 '나' 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종(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 일 시 : 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오전 11시 (음, 9월 9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13일 (음, 9월 9일)
- 3재 : 양력 10월 27일 (음, 9월 23일) • 5재 : 양력 11월 10일 (음, 10월 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24일 (음, 10월 2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49만원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엄마 아빠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앉은 자리’의 중요성 탐구하면 진리의 실체 보여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좌(蓮華座)→영기좌(靈氣座) ㊦



연화좌라는 용어는 틀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화려하고 장엄하게 영화(靈化)시켜서 고차원의 조형을 창조하였으므로, 개구리를 보고 올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더구나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연꽃이 아니므로 올바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이 영기꽃[靈氣花]이라는 것을 우리는 통일신라 9세기 석조 비로자나불상조각의 영기좌(靈氣座)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로자나불의 영기화생

성직자들이나 미술사학자들은 여래가 앉는 자리를 주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앉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속세에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다. 그 자리란 그 사람이 자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래와 보살이 엄청난 영기에서 화생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설법과 실천을 해야 한다. 광배에 관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고 영기좌에 주력하고자 한다.

어느 날 그 불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었다. 평생 불상을 공부하고 사진을 찍어왔으나 이런 각도에서 찍은 것은 처음이었다.(그림 ①, 그림 ②) ‘영기화생하는 비로자나불’ 전체 모습을 보면 왜 영기화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영기좌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 세부를 보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형이다.(그림 ③) 영기좌를 보면 하대(下臺)의 연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잎에 타원체(1/2圓體) 영기문이 두 개 표현되어 있으므로 복판(複瓣)이 아니다.

영기를 연꽃잎에 불어넣었지만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통일신라 하대에는 강력한 양감대신에 복잡한 장식처럼 보이는 영기문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형이 바로 상대(上帶)의 연꽃이다. 보세요! 그런 연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조형은 무엇일까?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으니 용어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용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조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탐구하다가 올바로 풀려지면 올바른 용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올바른 용어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보주의 무량한 생성 드라마

선묘하고 채색하여 보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원래 ‘영기문(靈氣文)이란 것은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계적인 전개가 반드시 있으므로, 만일 그 과정을 보고 싶은 분은 나의 홈페이지(www.kang-woobang.or.kr)로 들어오면 어떤 경우에는 50회 내외에 걸친 단계를 볼 수 있다. 연재에서는 마지막 단계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그림 ④) 그러면 해석해 보기로 한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림과 대조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 ①꽃잎이 중복하여 있는데 아래 부분의 꽃잎은 우선 아래 중앙에 시발점인 보주가 있다. 그 보주에서 영기잎이 양쪽으로 뻗쳐나가고 있다. ②그 중앙의 보주에서 위로 다시 작은 보주가 세 개 맺히고 있고 녹색의 잎이 뻗어 나가는데 불교회화에서는 흔히 보는 조형이다. ③다시 그 위로 부채 살처럼 다섯 개의 보주를 지닌 꽃잎이 확산하고 있다. 바로 여기까지의 조형이 영기꽃의 실상(實相)이고, 꽃잎이 아니므로 연꽃잎은 허상이어서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연꽃잎을 대체할 수 있다. ④그 모든 보주의 무량한 확산을 이처럼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전체를 감싸는 연꽃모양이 있는데 역시 얇은 막의 꽃잎에 영기를 불어넣어 두툼하게 만들었다. 혹자는 돌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은 금동불이나 회화를 보면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⑤그런 영기꽃을 조각한 다음 다시 그 영기꽃 사이사이에서 다시 보주가 화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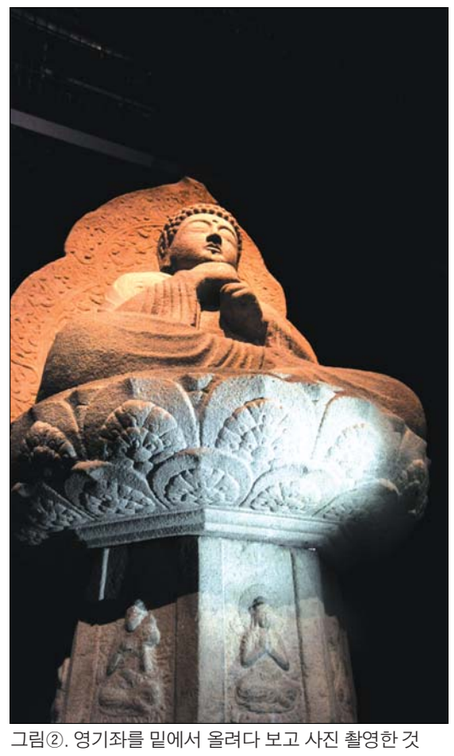
간략화하면 만물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제3영기싹이다. ⑥그 큰 빨간 보주에서 다시 양쪽으로 파란색 보주가 나오고 다시 사이에서 큰 빨간 보주가 나온다. ⑦그 네 개의 보주에 연이어 무량한 보주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쯤 해서 끝내는 것뿐이다. ⑧그 다음 다시 부채 살처럼 작은 보주를 지닌 영기꽃잎이 확산하여 가고 있다. 이것도 무한히 전개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공간에서 중지한 것뿐이다.

그 다음 그 사이사이에서 꽃잎이 생겨나는데 역시 두툼하다. ⑩이렇게 하여 영기꽃이 만들어지는데 실은 이러한 전개가 무한히 뻗쳐나가는 것이다. 이런 무량한 보주가 화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표현을 연꽃잎을 빌려서 나타냈을 뿐이다. 그러므로 실상은 보주에 있다. 이러한 강력한 영기꽃에서 마침내 비로자나불이 극적으로 화생한다. 이러한 드라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연꽃 위에 여래가 앉아 있다고 말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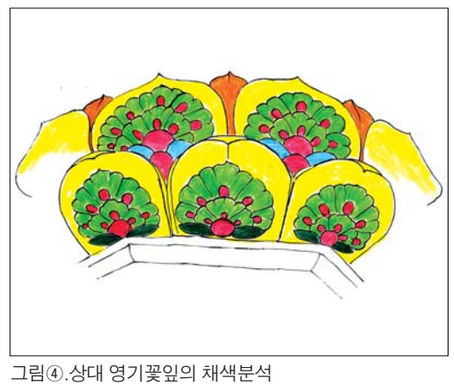
그림①. 영기좌에서 화생하는 비로자나불



그림②. 영기좌를 밑에서 올려다 보고 사진 촬영한 것



그림③, 상대 영기꽃잎의 조형



그림④.상대 영기꽃잎의 채색분석

藥이 되는 사찰음식

버섯요리로 입맛 살리고 건강도 챙기고



더덕 구이

△재료(4인 기준)

○ 깐 더덕 200g, 소금물 약간

○ 유장처리 –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 양념장 – 고추장 1/2컵, 고춧가루 1큰술, 간장 1큰술, 깨소금 1큰술, 참기름 1큰술, 매실청 2큰술, 조청 1큰술, 소금 약간

△만드는 법

① 더덕은 껍질을 벗긴 후 0.5cm 정도의 크기로 저민 후 밀방망이로 밀어 엷은 소금물에 담가둔다.

② 더덕의 물기를 걷어내고 유장 처리 한 후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낸다.

③ 양념장 만들기

④ 초벌구이 한 더덕에 양념을 덧발라 가며 굽는다.

버섯묵편

△재료(4인 기준)

○ 표고버섯 3장, 느타리버섯 50g, 팽이버섯 50g, 목이버섯 20g, 석이버섯 5g, 만가닥버섯 50g, 밤 3톨, 대추 5개, 잣 1큰술

맛국물 4컵, 한천 2큰술, 국간장 2큰술, 소금 1/2작은술, 참기름 1큰술

○ 맛국물

물 4컵, 다시마 1조각, 대추 1개, 무 50g, 표고버섯 1개, 감초 1개, 구기자 1작은술

○ 초고추장

고추장 2큰술, 매실청 2큰술, 식초 1큰술, 생강즙 1/2큰술, 간장 1작은술, 소금 1/3 작은술



△만드는 법

① 표고, 석이, 목이버섯은 곱게 채썰고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만가닥 버섯은 가늘게 찢어 준비한다.

② 밤, 대추는 곱게 채썬다.

③ 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볶은 후 맛국물을 부어 끓으면 간장, 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 후 한천을 넣어 약간 되직한 정도가 되면 불을 끄고 틀에 부어 완전히 식힌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먹는다.

④ 초간장을 곁들여 낸다.

버섯의 생명은 신선도에 달려

동의보감에 버섯은 ‘기운을 돋우며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또한 시력을 좋게 하며 안색을 밝게 해준다’라고 되어있다. 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햇빛의 작용으로 비타민 D로 변하는 에르고스테린을 많이 함유 하고 있어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한다. 버섯 특유의 감칠맛은 구아닐산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내리고 심장병과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버섯의 생명은 신선도에 있으며 다른 식품에 비해 손질이 까다롭다. 그 독특한 향기가 살아나도록 양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물에 씻을 때도 빨리 씻어야 하고 오랫동안 물에 담가 두었다 껍질을 벗기면 효소작용으로 상처 난 부위가 검어지고 향이 사라지게 된다. 버섯의 향기는 열에 약하므로 불판에 구울 때는 살짝 굽고 찌거나 국에 넣을 때도 먹기 바로 전에 넣어 잠깐 끓여서 먹어야 그 풍미를 살릴 수 있다.

부드럽고 색이 곱고 단단한 묵편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를 볶아 끓는 맛국물을 부은 후 한천을 넣어 약간 되직한 농도가 되면 굳힌다. 더덕구이를 할 경우 소금물에 담가 둔 더덕의 물기를 제거하고 서늘한 그늘에서 12시간 ~ 1일 정도로 약간 말린 후 양념을 발라가며 구워야 쫄깃한 질감을 얻을 수 있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1. 개강 : 2013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2013년 10월 5일(토) 오후 1시
2. 4회 과정 선착순 각 5명 (수강료 120만원)
3. 누구나 쉽게 배우고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개인지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퇴마와 최면요법
2. 2명이상 지방출장지도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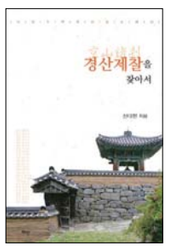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 한영중 3개국어판 〉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여행자의 시선으로 본 고찰 24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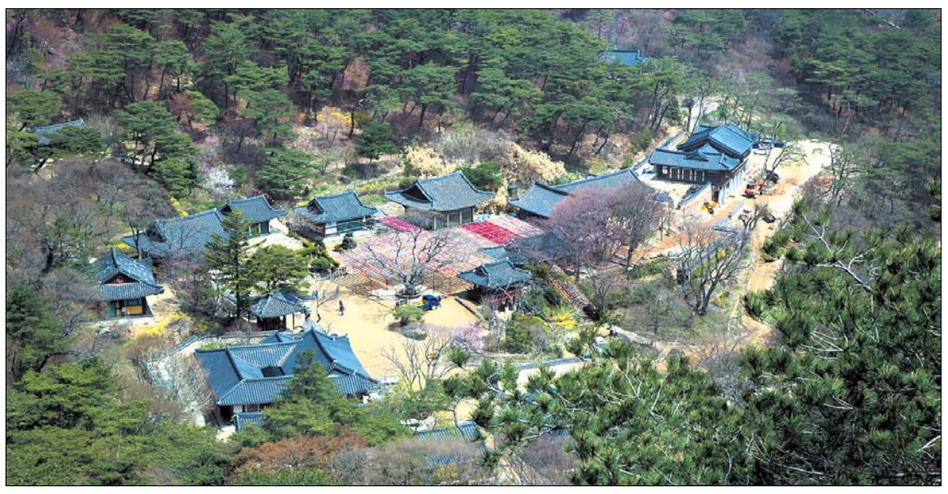


경산제찰을 찾아서
신대현 지음
혜안 펴냄
1만6천원

"어느새 두어 시간이 훌쩍 흘러갔다. 몇 번이나 같은 곳에 와도 그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곳이 절이다. 그게 절의 매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인에게 절이란 참으로 독특한 공간이다. 오로지 한 종교의 건축물이나 불교의 의식과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공간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다. 책은 〈전통사찰총서〉를 비롯해 〈한국의 사찰현판〉, 〈한국의 사리장엄〉 등 전통사찰과 전통문화에 관련된 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한 신대현이 서울 경기 일대의 천년 고찰 24곳을 순례하고 사찰을 소재로 한 시들을 통해 사찰의 유래로부터 역사적 사실, 가람 배치, 각 건물의 의미 등 사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읊은 여행기이다.

책에서 다룬 사찰은 널리 알려진 북한산 도선사나 진관사, 강화 보문사나 전등사, 양평 용문사 등의 큰 사찰뿐만 아니라, 정릉의 흥천사나 은평 수국사, 시흥 호압사, 인천 용궁사, 안성 석남사 등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들도 포함되어 새로움을 더해준다.


강화 전등사 전경

종로의 청룡사에는 조선조 최대 비극의 커플인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달픈 이별 스토리가 담겨 있고, 성북 개운사는 대한민국 건국 후 최초로 참가한 런던올림픽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 있다. 또 국내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본산인 성북 보문사, 故 지관 스님과 인연 깊은 정릉 경국사, 조선태조 이성계의 지극한 아내 사랑이 서려있는 정릉 흥천사, 조선조 한양을 수호했던 '호랑이절' 인 시흥 호압사, 19세기 병인양요 등 외세의 침략과 지금의 분단현실이 그대로 겹쳐 보여지는 김포 문수사 등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사찰들이다.

이밖에, 조선 세조의 원찰이면서 춘원 이광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양주 봉선사, 신라 원효대사와 아내 요석공주, 아들 설총의 전설이 어린 동두천 자재암, 빼어난 대웅전 외벽벽화를 감상할 수 있는 파주 보광사, 호란의 치욕을 이겨내기 위해 수많은 스님을 동원해 쌓은 남한산성의 역사를 증언하는 장경사와 망월사 등도 현재 살아 숨쉬는 불교문화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30년 동안 전국의 절을 찾아다닌 전문가가 아닌 여행자의 시선일까? 저자는 앞으로 절을 찾을 땐 더 이상 어려운 용어 대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그 맑은 모습을 가슴에 담고 나오면 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카메라 렌즈를 법당 이곳저곳 자세히 들이대지 않았고, 줄자로 입구에 선 부도나 비석의 크기를 재지도 않았으며, 절 주변에 특별한 무엇이 있는지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지 않았다. 이 책에서만큼은 그저 동행에게 말을 건네는 여행자로, 그 어떤 이보다 쉽고 편안하게 사찰이 품은 옛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다.

책에는 사찰에 관련된 여러 한시와 현대시를 소개하고 있다. 물론 한시의 해석은 저자에 의한 번역이다. 그래서 사찰을 다니고, 그와 관련된 한시를 해석하는 건 그 곳을 찾아서 글을 쓰는 이의 필수적 소양이자 감수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표의문자인 한자로 쓰인 한시는 한 자 한 자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서정적인 감수성을 담다보니 어떤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지 않는 번역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일은 사찰과 관련된 한시에 많이 보이는데 이는 그 사찰의 역사를 잘 모르고서는 시어에 담긴 의미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찰을 노래한 옛 시에 현대시까지 더함으로써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절에 대한 감상까지 그대로 담아냈다. 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현재의 나와 이곳에 수백 년 전에 왔던 옛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다. 책이 다룬 각각의 사찰과 또 그를 노래한 시들에는 우리 불교사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새겨져 있고, 이것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무심히 지나쳐버린 우리 불교사를 되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8 ~ 9/2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직지 길을 가르키다	이시우	민족사
4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5	육조단경 (고우 스님 강설)	고우	조계종출판사
6	심플한 생활의 권유	마스노 순묘	더난출판사
7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8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앤북스
9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쌤앤파커스
10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일체중생이 一心의 존재…중생이 부처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2만2천원



1~2세기경, 인도의 마명(100~?)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은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대승불교의 중심 사상을 종합한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로 평가 받고 있다. 책은 진제의 한역본을 저본으로 원효와 법장의 소를 비교 분석하며 일심(一心) 이문(二門)의 대의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240여개의 내용 설명 도표를 사용하여 상세하고 논리정연하게 해설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현상세계 우주만물인 법에 대해 그 일체를 있게 하는 궁극존재를 '법의 바탕 내지 기반' 이란 의미에서 '법체(法體)' 라고 부르고, 그 법체를 '참으로 그러함' 이라는 의미에서 '진여' 또는 '진여법신' 이라고 부른다. 기신론은 이 현상세계 우주만물 일체 경계가 모두 다 진여의 발현이고 표현이라는 것을 논하는 논서이다. 한마디로 진여 자체와 진여의 드러난 현상적 모습과 진여의 작용을 밝히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며 나아가 실천적 행을 닦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스크리트어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고, 한역은 진제가 번역한 1권본과 실차난타가 번역한 2권본이 있으며 이 중에서 진제의 한역본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종합적으로 회통하며 체계적인 논리를 세워 대승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의 일부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여래장사상까지 원숙하게 표출되어 있다. 또한 치밀한 구성과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대승(大乘)의 대의를 종합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영향도 대단해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주요 종파, 즉 화엄, 천태, 선, 정토, 진언 등에 골고루 미치고 있다. 대승기신론이 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석서도 많이 저술되어 근대이전까지 약 190여 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수나라 혜원의 〈대승기신론의소〉, 신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당나라 현수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3대 소라고 한다.

우리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 현상 세계 일체 경계가 모두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의 표현이라는 것은 곧 우리 각자의 중생심이 표층에서는 각각 별개의 존재처럼 보여도 심층에서는 결국 하나라는 것, 우리 각자의 마음 바탕이 각각의 체(體)가 아니라 하나의 체라는 것, 하나의 일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일심의 법, 즉 중생심(衆生心)이 곧 진여심(眞如心)이고, 중생이 곧 부처이며, 일체 중생이 모두 일심의 존재임을 믿는 것이 바로 대승기신론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대승적 믿음이다.

대승기신론은 이와 같이 독창적인 일심 이문의 사상체계로 대승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완성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사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저자 한자경 교수는 논증하며, 대승기신론의 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대승기신론〉은 진여의 체상용을 밝히는 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 '대승기신론' 은 '대승적 믿음 또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를 뜻한다. 대승에 대한 믿음은 곧 '진여에 대한 믿음'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기신론은 독자로 하여금 진여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박재완 기자

'마음' 설명하는 '아뢰야식' 의 발견

마음의 비밀–아뢰야식의 발견

요코야마 코이츠 지음 | 김명우 옮김 | 민족사 펴냄
1만8백원



"인류의 대발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로(0)' 의 발견일 것입니다. 인도인이 제로를 발견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문화가 커다란 진보를 이루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제로에 필적하는 대발견이 '아뢰야식' 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뢰야식도 인도인이 발견한 것으로, 마음의 제로 지점을 가리킵니다."

현대의 뇌과학조차도 규명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마음이 있다. 불교의 유식(唯識)에서는 이를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또한 일상 속 무의식의 행복과 불행의 정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마음의 상태가 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책은 마음이 변하면 뇌가 변한다는 역설적인 믿음을 통해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변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라는 맥락에서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다.

불교의 유식학파에서 설한 '아뢰야식' 은 마음을 표층에서 심층까지 여덟 가지로 나눌 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근본심' 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음의 작용이나 감정, 표정, 삶의 방식 등 모든 인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의 발견을 무엇 때문에 대발견이라고 하는 것일까.

첫째는 불교 이외에 마음의 심층에 있는 아뢰야식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뇌과학의 발달에 의해 뇌의 구조와 작용이 해명되었지만 마음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 을 설명했지만 무의식과 아뢰야식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교는 아뢰야식을 발견함으로써 마음과 바르게 접촉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 그런데 '마음' 과 바르게 사귀면 분노, 마음,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사라져 버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유식은 마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명하여 마음을 대변혁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는 것이 괴로운 시대이자 희망을 품기 어려운 시대인 오늘날에 아뢰야식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얼마만큼 한 사람의 인생이 생기 있고 빛나는 것으로 변하는가를, 이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몸과 마음을 주관하는 아뢰야식을 알아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을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원인불명의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박재완 기자

처음 만나는 불교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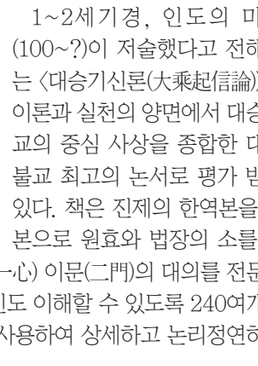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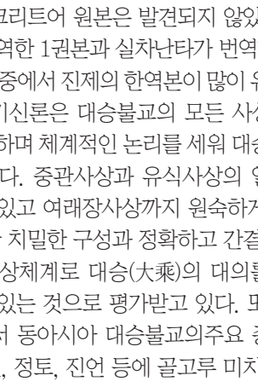
불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
주제에 대한 풍성한 이야깃거리,
에세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선한 글쓰기.

평이하고 쉬운 언어로
불교의 큰 바다를 헤쳐
나가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스님은 뭐하시는 분일까?
절은 어떤 곳이지?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 박이오 저/국판변형 | 168쪽/9,000원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 224쪽/10,000원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 206쪽/10,000원



템플스테이, 이것만을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엮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마음 다스리면 분노도 자율 조절 가능”



하루 15분 참선

혜거 스님 지음
책으로여는세상 펴냄
1만2천원

이 책에는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무명(無名)이다. 무명은 혜거 스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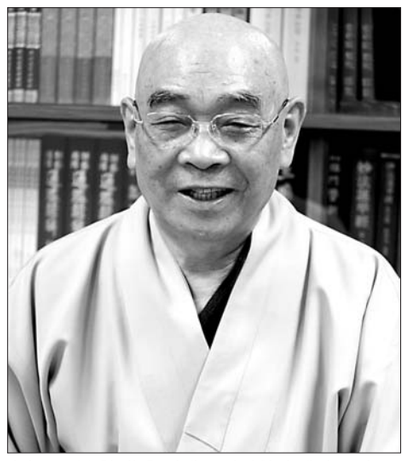
무명은 비록 중소기업이지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회사 팀장으로,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었다. 성공 했지만, 그래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사회적 조건들이 더 좋아질수록 그는 짜증과 분노가 더 했으며, 그러한 분노는 적당한 이유와 적당한 상황에 처해지면 통제 불능의 상태로 폭발하고 말았다.

그 폭발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리하여 상대방도 다치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하고 말았다. 그렇게 무명은 하루하루 자기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자 무명은, 도심 한가운데 선방을 열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참선을 가르치고 있던 혜거 스님을 찾아가게 된다. 무명은 참선을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참선을 배워 고장 난 자신의 분노조절 장치를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혜거 스님과 함께 하는 무명의 참선 여행은 시작되었다. 무명과 함께 참선 여행을 하기로 한 혜거 스님은 그 여행이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고 했다. 금방 끝이 날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함께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다행히 무명은 혜거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그래서 11번의 만남으로 그 여행은 끝이 났다.

혜거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무명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씩 깨닫게 된다. 하지만 혜거 스님은 무엇이든 무명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법이 없었다. 온갖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무명에게 뭔가 알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스스로 생길 즈음, 혜거 스님은 스쳐 지나는 말로 한마디 툭 던져주는 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처음부터 털옷을 입혀 추운 거리에 내 보내면 털옷의 고마움을 미처 알기 전에 춥다는 느낌을 먼저 갖게 되지만, 털옷을 입지 않고 길에 내 보낸 뒤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게 한 다음 털옷을 건네주었을 때, 그 털옷의 따뜻함과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과 비슷했다.

11번의 만남 동안, 무명은 하루 15분 참선부터 시작해 마침내 하루 50분 참선을 하게 되었다. 참선을 하면서 무명은 ‘생각 흘려버리기’, ‘생각 멈추기’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하루 15분 참선〉을 펴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혜거 스님과 함께한 11번의 참선 여행
‘생각 흘려버리기’ ‘멈추기’ 등 반복훈련
참선시 손모양과 호흡법도 소개

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 자신의 분노조절 장치가 어디쯤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알게 된다. 원인을 알게 되자 어느 순간 분노가 조금씩 다스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책에는 무명이 자신의 문제점을 알아차리고, 참선을 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 마치 한편의 소설처럼 그려져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를 분노를 품고 사는 현대인들은 걸어 다니는 인간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멈춰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다. 곧 마음 다스림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분노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분노는 궁극적으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참선하면 어렵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앉을 수 있고, 숨을 쉴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참선이다. 이 책의 맨 뒤 부록에서는 참선을 위해 간단하게 앉은 방법과 발과 손 모양, 그리고 호흡법과 시선 처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참선을 할 때 시선을 고정 시킬 수 있는 집중표도 딸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참선을 시작할 수 있다.

하루 15분, 조용한 곳으로 가서 홀로 앉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무명의 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혜거 스님은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탄허스님 회상에서 대교과를 수료. 현재는 금강선원장으로 있다. 진흥원불교문화센터 상임법사, 한국불교연구원장, 인터넷 불교대학(www.buddhistweb.com) 교수로 재직 중이며 불교TV에서 좌선 등을 강의하고 있다.

110개 인생 조언 통해 마음속 상처에 새 살 돋게 해

서천석의 마음읽는 시간

서천석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4800원



“시간이란 상대적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히 기억으로 남는 시간도 있고, 몇 달이나 몇 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짧은 행복의 순간을 길게 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주목하고 머무르며 충분히 느껴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 때 삶의 색깔은 달라질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습관입니다〉 중에서

매일 아침 라디오를 통해 고단한 일상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제의 프로그램 MBC 라디오 ‘서천석의 마음연구소’가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다.

마음의 병을 짚어내는 세심한 처방과 대안을 특유의 진솔한 목소리에 담아낸 이 프로그램은 방송 기간 내내 가장 많은 게시판 조횟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그 진솔한 감동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하기 위해 본문 중 14개의 글을 가려 뽑아 책 속 부록 CD로 담았다. 진료실에서, 라디오 부스에서, 강연에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현실적인 대안을 주고 싶었다는 저자는 이제 책을 통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진지한 위로와 충고를 건네며, 우리 시대 사람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날이 더 어렵고, 가족이 건넨 작은 말 한 마디에 큰 상처를 입고, 다른 집 아이가 우리 집 아이보다 더 뛰어나면 질투심에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작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한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별하기 위해 고민하고,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볼 때는 떨려서 제대로 마음의 갈피를 못 잡는다. 이런 일들은 내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함께 겪고 있는 우리 일상의 맨얼굴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처를 조금 덜 받고, 상처를 덜 주게 될까. 어떻게 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박사는 이런 고민들에 심리 실험의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혜안을 담은 처방을 들려준다. 생각도 하지 않고 흘러가는 나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보라고 조언한다. 내 마음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런 시간이 꾸준히 쌓이면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을 읽는 데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110개의 인생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우리 각자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생긴 많은 마음속 상처들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연고 같은 책이다. 삶의 어려움 극복하기, 행복해지는 기술, 인간관계, 감정의 문제, 하루 일상을 잘 사는 법, 마음의 병에 대한 처방을 주제로 하여 총 6개의 장으로 나눠 묶은 이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어려움과 궁금증을

저자 심리실험 결과로 처방
14개 글 뽑아 부록 CD로 제작

담고 있다.

“내가 완벽해야만 나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자신을 너무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내 수준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충고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려고 좇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라고 당부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선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솔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저자는 답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되도록 만나지 말아야 한다. 만나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그 사람이 던지는 말에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이라면, 되도록 빨리 내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좋다. 물론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당신이 기분 나빠서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김주일 기자**

기자가 쓴 철학과 사상 관련 에세이

그대 인연을 사랑하라

남달구 지음 | 행복에너지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기자가 이 세상에 내놓는 첫 번째 책이지만 안에 담긴 ‘맛과 멋’은 장인의 솜씨와 열정 그대로이다.

1부에서는 수차례의 수상 경력과 인지도 1위 기자의 명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보여준다. 데스크에 앉아 펜을 굴리기보다는 특종을 위해 현장 일선에 뛰고 또 뛰어야 했던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기사가 더욱 사랑을 받았던 까닭은 자극성보다는 ‘가치와 진실’에 초점을 맞춰 현장을 누볐다는 데 있다.

「세종대왕 친필 – 어사희우정」「잃어버린 국보 – 남명천화상송증도가」「동여비고 – 다시 쓰는 고대사」「가슴 아픈 민족의 혼 광개토대왕릉」 등에서 드러나는 우리 것, 우리 역사를 향한 애정 또한 남다르다. 눈앞의 이득에만 급급하다가 삶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다시 주목을 받는 까닭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잊은 채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 사회가 앓는 후유증 때문이기도 하다.

2부부터는 자신의 삶과 주변에 관한 이야기, 철학과 사상에 관한 에세이가 주로 이어진다.

제법 감칠맛이 나는 조곤조곤한 말투, 이따금 등장하는 촌철살인의 문장들은 과연 이 책이 첫 번째 작품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원숙한 맛을 낸다.

어지러운 세상사에 돌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참 나’를 찾아 길 아닌 길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갔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직접 와 닿는 파문처럼 힘이 있다.

또한 설파가 아닌 설득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는 곳을 향해 나아갈지를 이야기한다.

김주일 기자

수행통해 다져진 내공 50여편 시로

또다른 시작

최영희 지음 | 맑은샘 펴냄 | 1만원



前 녹색어머니회 부회장이자 前 샤프론 학부모봉사단장인 저자는 글을 통해 그리고 수행을 통해 다져 온 내면의 힘을 사회를 위해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세상,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집을 냈다.

저자는 세계적인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교육1번지인 대치동에 살면서 ‘인간성 회복’이라는 절실한 화두를 갖게 됐다. 인류의 미래 비전을 휴머니즘과 르네상스로 전환하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선 마음을 맑히고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글로서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 시집에는 ‘산사의 밤’ ‘기도’ ‘연꽃’ ‘수행한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 등과 같이 불교적 수행의 흔적이 역력하다.

시인인 저자가 생각하는 ‘수행’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수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닦아 가는 것 반복해 찌든때를 벗기고 맑아진 거울로 나를 반추하는 것, 오래된 습관을 바꾸고 갇혀있던 나를 넓혀 툭터진 허공처럼 열려지는 것, 과거 미래 떠다니는 생각을 찰나로 붙잡아 몰입하면서 온전히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도란 시를 읽어보면 기도란 무엇을 바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해준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것/물들고 오염된 나를 씻어 진실한 마음으로 맑히는 것/마음을 비우고 허공처럼 넓혀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나를 내리는 것이다”

저자는 시를 통해 마음을 털어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시인의 그런 본심을 잘 드러내 준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일어나는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촉에 이끌려 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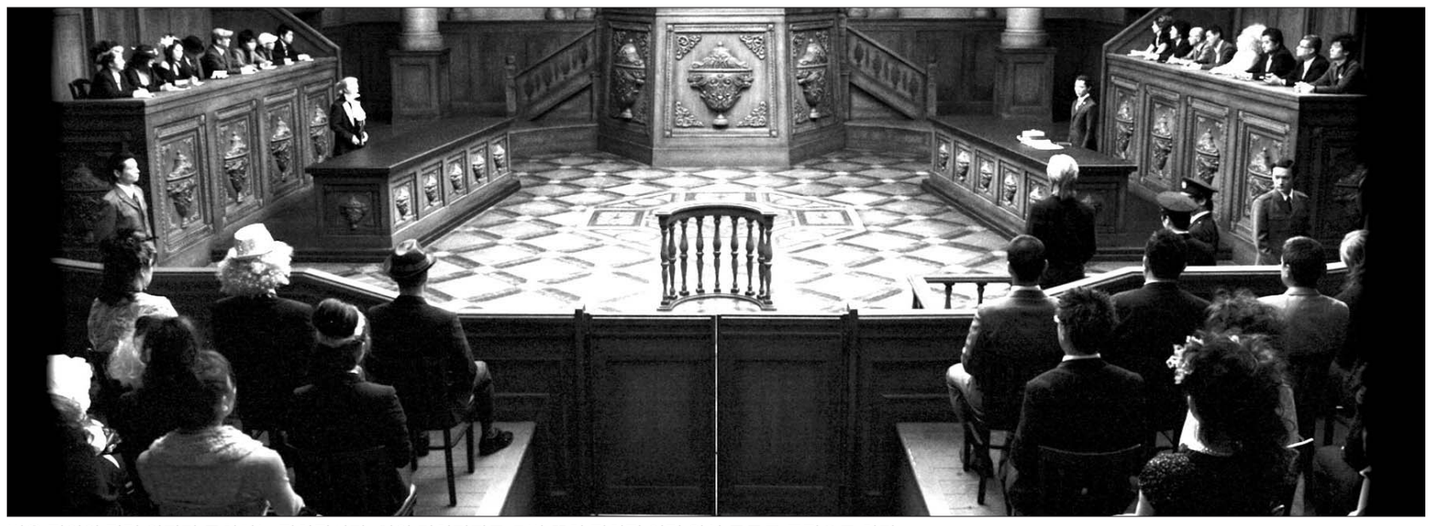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금강경과 법철학 ㊦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불법과 세속법의 교차점은 '행복 추구'



법은 정의와 권력 의지가 교착하는 평화질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법 또한 평화적 인격 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세간 법철학

8 · 15 해방이후 한국 법철학을 개척하고 체계를 세운 서울법대 황산덕 교수는 정의를 인간이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복례(克己復禮)에 두고 에로스적 노력을 하는 것이라 했고, 법은 정치사회단체의 도구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인 평화질서라고 보았다.

8 · 15 해방 후 황교수와 함께 한국법철학의 쌍두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법대의 이항령 교수는 풍토주의 법철학 체계를 세워,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서방풍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중방풍토, 평화를 이념으로 하는 동방풍토의 장소적(Topos) 법철학을 구분하고, 정의개념은 권리와 의무가 함께하는 직분적 정의를 내세웠다.

미국 하바드 대학교의 철학교수인 J.롤즈 박사는 정의의 원칙이 합리적 논의를 통한 합의로 설정되고, 정당성의 근거도 마련되는 칸트적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정의의 의미를 공정(公正, fairness)으로 파악하고, 그 제1원칙은 평등적 자유 원리이며, 제2원칙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목적의 차등원칙과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포함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법대 마이클 샌델교수는 개인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반대하는 공동체 주의적 정의를 제기하였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기동일성, 정체성이 선에 관한 특정한 관념과 그것을 추구하는 전통을 공유한 공동체의 내부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기(자아)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공동선이나 거기서 수행하는 역할 등에 의해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는 "위치있는"(Situated) 자기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다.

정의는 인간사회에서 인격평등을 전제로 자유를 확장해가는 평화질서일 것이다.

강제규범으로서 법은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이 법의 전부라고 보고(법실증주의) 법효력의 근거는 민족의 역사적 법확신(역사법설), 신의설(神意說), 사회계약설, 실력설, 승인설, 명령설, 사실의 규범력설, 여론설, 법내재 목적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다만 한스 켈젠교수의 법단계설은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으로부터 위임받아야 효력을 갖는데, 최상위 규범을 근본 규범(Grundnorm)이라고 했다. 이는 자연법이며 대자연법인 여여한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만 루돌프 예링은 강제규범인 법의 불비성을 지적하여, " '강제가 없는 법' 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타지 않는 불, 비추지 않은 등불과 같아 불완전법(Lex Imperfecta)이다"고 했다.

우리는 위에서 법과 정의, 법의 효력 등을 살펴보았는데, 법은 정의와 권력 의지가 교착하는 평화질서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세계의 법 철학자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법가(法家)인 법치주의자 한비자(韓非子)다. 그는 진나라가 6국을 통일하게 한 상앙과 신불해, 신도와 함께 형명학파(刑名學派)의 일원으로 형명법술의 집대성자이다. 형명학은 형의 이름인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명칭과 실상이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명실론을 법적용에 응용하는 법률학으로, 형명으로 나라를 다스려가는데 벼리를 삼는 학문이다. 한비자등 중국의 법가는 유가, 도가, 묵가, 병가 등 제자백가를 누르고 중국민족 춘추전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China, 진시황제)을 탄생하게 했다. 한비자의 핵심사상은 형명법술이다. 여기서 법은 법령(法令)을 말하는데 법은 모든 국민이 복종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며, 술(術)은 군주(최고통치자)의 신하 조종법이다.

한비자의 법치주의 부국강병책은 한 국왕에게 상주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을 멸망시키는 진시황제에게 채택되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낳았다. 진시황은 한때 한비자 저작을 보고, "이 책을 쓴 자를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사가 이를 듣고 한나라를 쳐들어가면, 한비자가 사자로 올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사 말을 들은 진시황은 한비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즉각 등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사(李斯)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다. 한비자가 등용되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을 받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사는 동료인 요가와 모의한 다음 그 틈을 타서 진시황에게 진언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한비자는 진에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돌려보내면 이쪽의 내정을 가르쳐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지금 처치함이 마땅합니다." 이 말에 흔들린 진시황은 한비자를 옥에 가뒀다. 이사는 여유를 두지 않고 곧장 옥중으로 독약을 보내 자살을 강요했다. 한비자는 진시황을 만나 직접 변명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 끝내 스스로 독약을 마셨다고 한다. 그때가 기원전 233년이었다. 그리하여 한비자는, 역사란 변한다는 명제에 착안해, 자주적 인생관, 노력하는 사회관에 기초한 형명법술로서 ①법은 국민이 절대복종할 유일한 것 ②절대군주 중앙집권체 아래서의 상명하복 ③신상필벌 ④권세조직 ⑤칠 술등을 지상에 남겨놓았다.

이는 전제주의 아래 법가의 사상이기에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현실에 맞게 변용돼야 할 것이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비교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두 인간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서로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부처님법은 진여일심의 불이법
세간법은 이분법 중심
한생명 상생법으로 조화 필요

석가모니께서도 승의제뿐 아니라 세속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승의제는 불변이나 세속제는 가변적이다. 또한 세속제는 그때 그때 구체적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모두 그대로 현재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주는 한 마음, 한 생명인데, 상대면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이 상생해야 함으로, 한 생명 상생법이 우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간이나 출세간이 같은 것은 한 생명 상생법 행복추구와 심기신 건강법 그리고 향상일로를 위한 조삼법(調三法, 調心, 調息, 調身)이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다 행복하게 죽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면 행복한 게 무엇일까?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 잠 잘자는 것이다"라고 노자처럼 말할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심기신이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몸과 마음과 호흡이 대생명의 조화 속에 건강한 것이다. 생명의 환희이다. 심신이 건강하여 기쁨의식이 확대되고 기혈이 제대로 흐르며 거기에 더해서 활기차고 자기 마음대로 기운을 쓸 수 있으면, 그런 생활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욕심으로 살아가는바 그것은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은 모두 허망하기 이를 데 없다. 무상(無常)이다.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잃는 것은 부분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한다. 삶은 파도타기인데, 이는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고 흐름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개체생명이 상생을 하고 한 생명으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생명의 비약적 진화를 위한 노력이 건강하면서도 자유자재롭고, 평등 · 평화의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이 심기신 수련법 또는 심기신 건강법이다. 부족한 나를 바꿔 완성해 가는 방법이다.

심기신 건강법은 체상용(體相用) 3대 논리로 볼 때, 마음은 본체, 기는 작용, 몸은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심기신을 영혼백(靈魂魄)이라고도 할수 있다. 성명정(性命精)이나 정기신(精氣神)이라고도 한다. 심은 영이나 신, 기는 혼, 신은 백이나 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심기신 수련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자기의 변모를 볼 수 있게 되고, 한생명 상생법의 선정삼매 등으로 자기의 한계 넘기로 무한으로 확대되면서, 드디어 유한자가 무한자로 탈바꿈하는 해탈로 나아간다. 한계넘기요, 초월이다.

심기신 수련법은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의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갈 때 그 뗏목과 같은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뗏목이나 배가 꼭 필요하지만, 건넌 다음에는 그 뗏목을 해탈의 나루터에 버리고 가야 한다. 이것을 뗏목의 비유라고 한다.

자기의 한계를 넘기는 마음수련에서의 자기확장, 용서 못할 일의 용서, 기수련에서의 단전 호흡, 몸수련에서의 기체조와 능력초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출세간법과 세간법의 차이는 출세간에 있어서의 불이법(不二法) 무소유법 여래법이, 세간에 있어서는 이분법(二分法) 소유법, 거래법과 대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불이법은 일심진여인 불이중도요. 무분별지라면, 이분법(유 · 무, 남 · 녀, 밤낮 등)은 생멸법이요, 분별지여서 집착이 문제가 된다.

불교의 기본은 공이며, 무상이고 무아인데 이를 소유관념과 연결지으면 무소유라 표현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대생명이고, 각 개체는 분신생명으로 공존할 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진 중생은 종교적 진리도 추구하면서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해탈을 막는 것은 부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초기교단의 소유체제를 출가자들은 공유체제(共有體制)로, 재가자들은 사유체제(私有體制)로 생활하게 했다.

출가자는 무소유를 관념적으로 전제하여 경제행위가 금지됐으며, 수도를 위해 삼의일발(三衣一鉢 : 옷 세벌, 밥그릇 한 개)만의 소지가 허락되었다.나머지 교단재산은 불가분물(不可分物)로서 사방승물(四方僧物)이라 했는데, 승가공동체의 공동소유였으며, 매매 · 대여가 금지됐으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는 있었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사회(Gemeinschaft)로 정법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지 않는 출가자 모임이 수승한 것으로 존경받았다.

재가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무소유 관념을 전제로 한다.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는 이익사회(Gemeinschaft)였으며 재물을 획득하는데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르도록 했다.

재가자들은 궁핍이 여러 가지 악행의 근원이 되므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생산에 정진하여 정법으로 재산을 증대하고 집적하며 부처님의 세계는 본래 무소유 세계이므로 주고받을 것이 없지만, 주고받는 경우에도 한생명 한살림으로, 가면 가고 오면 오지(如來=如去=Tathagata), 오고 감이 서로 조건지워져 있지 않고, 무한 발전소처럼 받지 않고도 한없이 공급해 줄수 있는 세계이다.

그러나 중생세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 의 소유세계요, 시장사회이므로, 에리히프롬의 이른바 시장형 인간들은 오고 감, 즉 주고 받는 것(give and take)이 서로 조건 지어져 있고, 생활이 거의 모두 장삿속으로 이뤄지는 '이익의 관계망' 즉 거래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다.

무소유법 계통에 속하는 개념이 무위법(함이 없는 법), 무소득법(얻을게 없는 법), 무상법(형상 없는 법), 무주법(머묾이 없는 법), 공법(텅빈 법), 구족법(모두 갖춘법), 출세간락(열반락)이고 소유법계통의 개념으로는 유위법(함이 있는 법), 소득법 (얻을게 있는 법), 유상법(형상 있는 법), 주착법(집착 머묾이 있는 법), 색법(물질법), 부족법(갖추지 못한 법), 세간락(식 · 색욕등 욕망 충족락)등이 있다.

끝내는 말

우리는 앞에서 대표적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철학과 복잡 다단한 세상살이 법철학을 알아본 다음, 불교철학과 법철학의 같고 다름을 비교해 보았다.

부처님 법은 진여 일심으로 불이중도 8불중도의 불이법이고, 세간법철학은 대자연법으로 소유욕의 이분법이 중심이 되어 대립갈등의 조화가 필요한 유위법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가 지적생명체로서 심기신 수련법으로 상생상극을 거쳐 대긍정으로 나아가는 한생명 상생법이 필요하게 된다. 한생명은 한마음이고 진여불성자리인데, 마음속에 알라야식이 있으며 이속에는 생멸심으로 업식과 여래를 함장하여 여래장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진여가 여여하게 연기되는 진여연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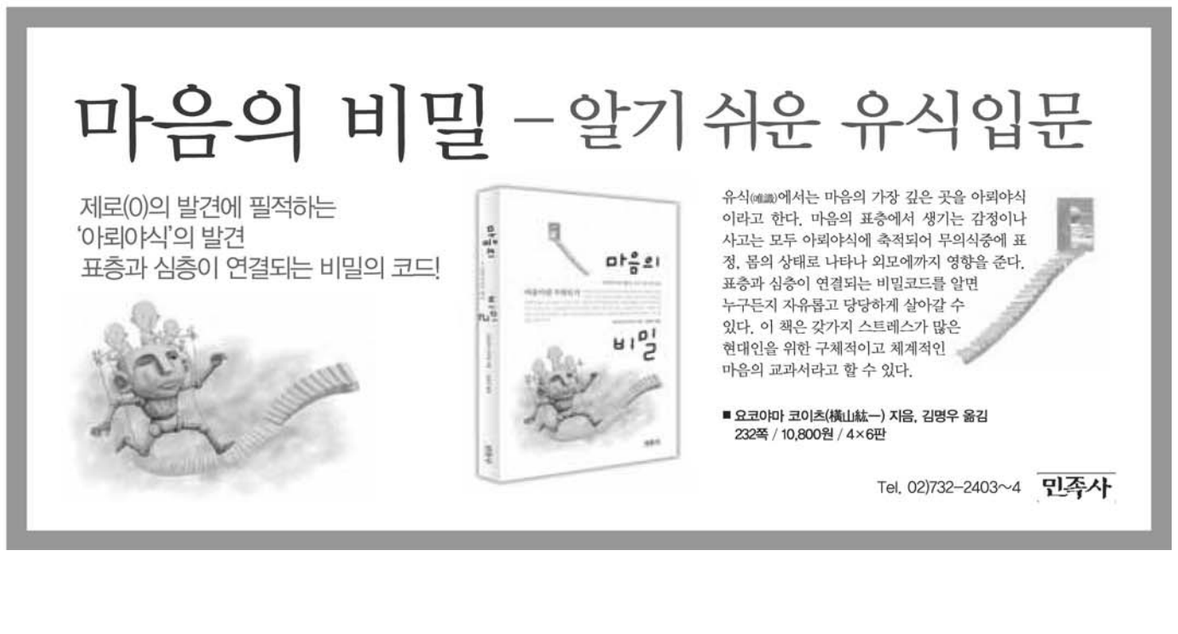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 자비, 용기를 바탕으로 절대적인 무분별지를 깨닫고 (識心見性) 분별지를 활용하되 분별 후 집착을 놓은 방하착으로 가야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이불이(二而不二)로 불이법과 이분법이 조화된 한생명 상생법이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 화엄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7회 완성) 출장가
•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사주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빠른 이해 강의
용신 및 격국 중점강의
통변과 실전을 겸한 강의
수강문의 010-3711-5072
(수도권, 영남권)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아 미 타 선 원
서울 강남,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사주카페 동업하실
보살님 구합니다
010-4633-4575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4793-9777
051)721-6444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수행할 비구니스님과
초보자 남녀행자스님
모십니다.
(경주지역)
011-534-3345
010-4580-8394

신심이 돈독하고
가족처럼 지내실
종무원을 기다립니다
– 운전, 컴퓨터 가능자
– 숙식가능, – 45세 이하
전남 화순 쌍봉사
061)372-3765

기도, 수행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산, 포교원)
010-9036-2131

최면 전생 빙의 특강
• 최면 우울증 심리치유 빙의치유
• 빙의, 몸안의 병 찾는법 (비법:6회완성)
•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기위주 속성)
• 최면 배웠으나 활용이 안되시는 분
• 예약상담 : 사주,심리상담,최면요법
• 빙의를 확인하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055)221-5182
다음카페 치우천왕정담 검색

범음 범패 학인모집
초급과정 : 사물(목탁,요령,태징,법고)다루는 법
사시예불,도량석,쇳송,각단예불,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천도재,49재,점안식,예수재,수륙재 등
작법과정 : 바라무(요잡바라,천수바라)나비무
수시모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연락처 : 010-8612-6914 (상담문의)
각종 법회 행사 모셔드림(상담문의)
경주시 내남면 덕천리 대승불교염불원

점안법회, 천도49제, 구병시식,
산신, 수륙대제 등, 법음범패
사물타법 요령,광쇠,태징,
천수북, 등,
천수바라,오공양작법무 회심곡 등
사찰의식 전문 실전위주 학인모집
법회도 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당뇨, 혈압 각종 난치병 치유 가능 합니다
010-4547-0023
해도 승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051)558-883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 권선문
소승은 기도중에 미륵존불님을 친견하여서 조성불사가 원만성취 하옵기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신도불자님께서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시주화주 동참 하셔서 무량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옵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대작불사에 지극한 신심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분에게는 대다라니에 이름을 새겨서 부처님 복장에 봉안하여 드리고 평생 미륵존불님께 가내 가정이 편안하길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경북 안동 054)853-3855 덕왕사 주지 만허 합장

산중암자 기도정진 하면서 관리 하실 분
(경북, 차량소유 스님)
010-4905-5697
070-4126-87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011-9782-321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6582-313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김해)
011-9514-3721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0-1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공양주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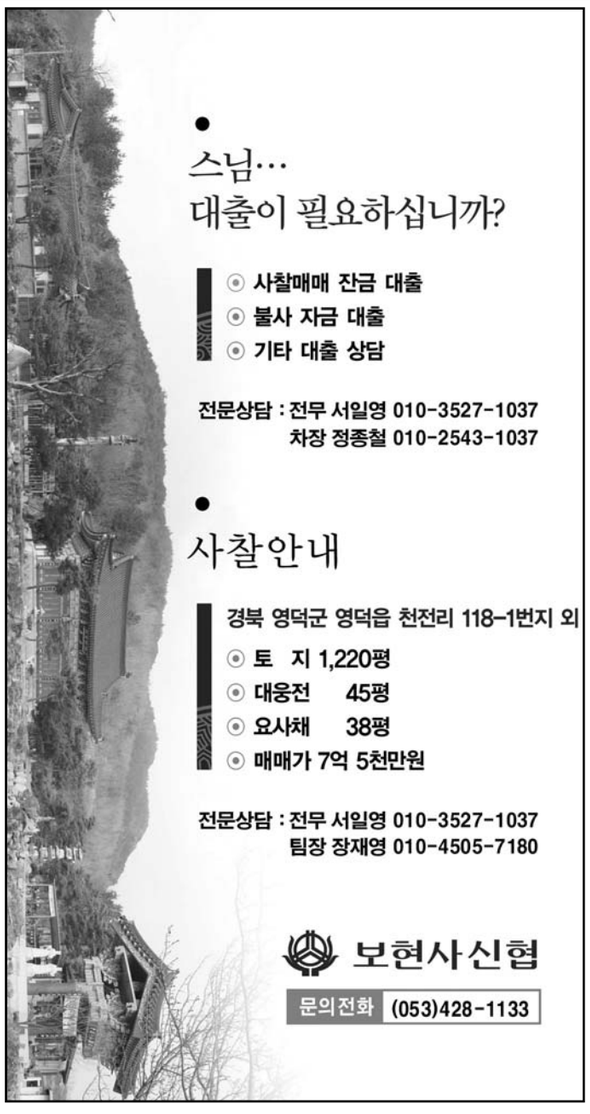
종무원 모십니다
역사,문화,자연적으로 천혜의
숨결속에 삼세의 살아있는 도량이자
안식처인 기방전통사찰입니다.
종무원0명 / 노무처님 0명
054)534-6331
(문의시간 오전 9시 오후 16시)

공 고

경호스님(김송택)은 전통불교조계종 종정직과 예술대학 학장직을 2013년 8월 30일로 사임하였음을 공고하며, 아울러 안정사 전통불교예술 일체를 전 문화재 보유자였던 김해광, 김진하 스님의 맥을 이어 현 문화재 보유자인 김경호 스님이 아는 것 만큼 나누고 함께 연구하여 끝없는 발전에 기여하고저 직강을 합니다. 진하 스님께 배우셨던 스님과 뜻 있으신 전국에 계신 스님 모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수강료 일체무료

◆ 교육일자 : 매월 2, 3주 토요일
◆ 교육시간 : 저녁 7시 – 8시
(우수한 스님은 부산영산재 등록)
◆ 교육과목 :
● 범패 – 모든 소리 일체
● 작법 – ① 삼귀의 작법 ② 다 계 작 법
③ 운신계작법 ④ 오공양작법
● 바라 – ① 천수바라 ② 사다라니바라
③ 화청 ④ 회심곡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17-5번지 법성사
◆ 교육문의 : ☎ 051)305-0053
017-572-3714 김경호 합장



특 강

우리말 천수경

대불정능엄신주

조상제사 잘 모시는 방법
10월 19일(토)~20일(일)

조상영가 태아 영가천도
준비물 : 쌀
(쌀은 노인 점심 공양 사용)

건강상담, 우 울 증
사업성공, 가족갈등

대학입시 기도
기도방법 회향은 중요합니다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은 혼란하여 지키기도 힘들고 억제하기도 힘들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쉽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 법구경-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부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3개
- 대지 : 120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및 토 굴 안 내

♣시도시 사찰안내♣

- 총부지 : 1200평(남향)
- 대웅전(목조)24평, 삼성각(목조) 6평, 요사채 2층 방6칸
- 백화점, 법원 300M 거리 , 대단지 아파트 7000세대
- 총양도가 : 9억 3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강원도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앞 대로변
- 1층 50평,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시설완비, 주차장,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임대 및 양도하고자 합니다
- 보증금 12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삼존불 (4자) 신중, 산신 포함. 음향 모든 집기 일체
- 바로 법회 가능(2000만원)협의가능

010-3373-8004

암 자 안 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가액3억(절충가)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함

010-8538-4458
010-6374-44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소재(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기와형 32평, 개인등기 법정보장
- 관련대지 : 약 360평.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 큰길변 교통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 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5백만원 시설비 절충

010-729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 평수 약 90평
- 3층, 방3개, 친견실1, 시설완벽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대세지(새로 조성)
- 전세금 2천만원 월세 無
- 시설비 3천 5백만원
- 1천만원 월 40만원 가능함

010-3750-5424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 3000평 (800평 정도 부지 만들어져 있음)
- 도로 있고 정남향 경관좋고 옆에 계곡 있음
- 사찰, 전원주택, 교육시설 최적지
- 가액: 2억 7천만원

010-9368-9612

대구사찰(급)안내

- 위치 : 팔공산에 위치한 사찰
- 법당약50㎡ 삼성각 약12㎡ 목조
- 요사채,스님실,공양간,방사건물
- 건물총면적 약950㎡ 토지약4800㎡
- 양도금액: 8억5천만원
- 실인수가액 6억5천만원(융자2억있슴)

010-7347-1010(사찰전문)

사찰(급)안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3억(절충가능)
- 전세 1억 . 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5037-6732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5547-8799

암 자 적 합

-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343평
- 퓨전한옥 30평(방3, 욕실2)
- 풍수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명당터
- 400여가구 면소재지 마을로 위쪽 한적한 곳
- 정남향, 원두막,황토방,텃밭 대형차 진입
- 스님 쉬는 공간, 암자, 선방 등 가능
- 시내에서 5분, KTX역 20분거리
- 주인직 3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477-497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 지하철 2 ~ 3분거리
- 조그마한 사찰 전세 및 달세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전화상담

010-5667-5453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 5분거리
- 3층건물의 1층, 30평, 마당 20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영단, 친견실, 공양간, 방2, 화장실2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 즉시법회. 절충가능

010-3293-307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대지 200평(문중땅)
- 건물 40평(지상권성립)
- 건물 5천 5백만원
- 법당 후원물품일체 2천5백만원
- 완벽하게 갖춰짐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유곡동 78-47. 주택 4층
- 시설완비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 달세 없음
- 방문 오후1시 이후 가능

팩스 055)745-6633
전화 055)748-6345
010-9892-3436

암자겸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소재
- 대지 145평, 건물 25평, 방4, 인법당
- 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자연생수
- (석간수)텃밭유, 마당까지 차 진입
- 차고유, 앞에는 계곡 있음.
- 마을에서 500m 떨어져 있음,
- 가액 : 9700만원

010-2505-8582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 대지: 370평, 법당 30평, 목조 단청
- 산신각, 요사채, 약 100평 기와
- 가액: 5억 1천만원
- 김해, 부산, 마산, 창원 1시간 거리

010-2591-47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 2층 상가건물 30평
- 사통팔달 시장통, 유동인구 상담스님 최상
- 법당, 친견실, 큰방, 거실, 온수기, 전기판넬
- 보증금 500 월 40 시설비, 750만원(약간 절충가)

051)555-8252
010-4080-845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 주택 4층
- 시설완비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 달세 없음
- 방문 오후1시 이후 가능

팩스 055)745-6633
전화 055)748-6345
010-9892-3436

명 당 토 굴 안 내

- 위치 : 남해 창선대교 부근
- 평수 : 대지 총 311㎡ 텃밭 포함
- 건물 총 45㎡
- 방4개, 주방, 아궁이방1 포함
- 가액 : 7천 3백만원

010-8837-39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 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입구)
- 2층 건물 2층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051)817-1326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전북 익산 논산 강경 인근 중앙
- 평수 대지, 전 포함 161평, 전망 최고임
- 부처님 삼존불, 탱화, 산신, 칠성, 신중
- 주지실, 상담실, 객실 3동 현대식 주방
- 앞마당에 7층 석탑과 석불 관음상 모셔져 있음, 주차장완비
- 가액 : 6700만원 조금 절충가능

010-5315-9226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성호동
- 기도스님께 적합
- 방2, 주방, 거실, 화장실
- 마당, 마산 시내가 다 보이고 바다도보이는 전망 좋은곳, 몸만 오세요
- 평수 : 26평
- 가액 : 3천 2백만원

010-4344-922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평수 : 약 300평
- 건물 :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 방4
- 가액: 전화상담
- 산세수려하고 공기 맑은 아담한 암자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기도정진이나 역학보실분 적합

010-4092-99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암자터안내

- 위치 : 밀양 IC인근
- 산림속에 위치
- 암자 적임지
- 주택허가필 , 5백평
- 평당 20만원

011-9323-8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재래시장 부근
- 지하철 2분 거리
- 4층 건물 중 3층, 32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시설양호
- 보증금 1,000만원/50만원
- 시설비 없음, 사거리 코너

010-2565-7200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관 사찰

- 경북 칠곡군. 과학대학근방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부지 약 2천 5백평
- 대출 1억 6천포함. 1억인수가능
- 총포함 2억 6천만원

010-7246-0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남면
- 남김천 IC 에서 5분거리
- 백마산자락 고즈늑한 사찰
- 토지 532평, 건평 60평
- 법당20평,공양간 20평, 종무소 20평
- 양도가액 1억5천만원

010-9367-101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 4층 건물에 2층
- 법당, 방2개, 공양간 (약 45평)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870-74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시 월피동
- 평수: 26평
- 법당완벽한 시설로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500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662-552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5천만원

010-7242-0993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충남
- 종교용지 : 33000평
- 산세수려
- 도로진입
- 가액 : 25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신 축 사 찰 안 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터 안 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화리
- 상면 소재지(서울에서 1시간거리)
- 서울에서 시내좌석버스 있음
- 버스도 진입가능한 도로 있음
- 가평군이 시(市)승격 예정지역
- 대지 170평 : 전(田) 265평 =435평
- 평당 70만원
- 사찰이나 요양원건립 최적지

010-9259-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 교 원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비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5〉 발휘[精進] 바라밀

아침 · 저녁 보리심 자각… '습관 · 法' 에 익숙해져

기본적으로 말해 발휘란 게으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 이란 단어는 알아차림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상태, 그리고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결여된 상태를 지칭한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기쁨과 감사의 느낌을 계발시킨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발휘 바라밀을 다룰 것이다. 그것은 휴가 떠날 때 느끼는 기분과 비슷하다. 그날 당신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난다.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휘는 휴가 가는 날 일어나기 전의 그 느낌과 같다. 그때 당신은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믿음을 갖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한다. 이처럼 발휘는 일종의 축하와 기쁨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게으름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불교 경전들은 이러한 발휘 없이는 결코 법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설해 왔다. 또한 규율이란 다리 없이는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가르침도 함께 펴왔다. 하지만 비록 다리가 있다 해도 발휘가 없다면 당신은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것이다. 발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한걸음 한걸음, 조금씩 조금씩 밀어 붙인다는 어감을 내포한다. 사실 당신은 길 위를 걸으면서 그 길에 당신 자신을 연결시키는 중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어떤 저항감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저항감은 게으름을 극복함으로써, 그리고 잠재의식적 잡담과 산만한 생각과 온갖 종류의 정서적 유희에 머물기를 그만둠으로써 극복해 낼 수 있다.

마음 훈련의 네 번째 요점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 수행을 완성시키는 것에 대해 다룬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과 죽어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의지를 다루는 다섯 가지 힘 기르기

삶 전체에 걸쳐 보디사트바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다섯 가지 요소, 또는 다섯 가지 힘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각각 강한 결단, 익힘, 덕의 씨앗, 꾸짖음, 열망이라고 부른다.

△강한 결단: 두 종류의 보리심을 지속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한 결단이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당신 자신을 수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당신은 수행을 통해 당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특히 전날 늦게 잤거나 한밤중에 파티를 했다면, 다소간의 불안감과 함께 자기가 약하다는 느낌이 밀려들 때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숙취에 쩔어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며 일어날 지도 모른다.

첫 번째 힘을 기르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창문을 내다보는 즉시 보리심 수행을 계속해 나아가겠다는 강한 결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 침대에 누워 잠속으로 빠져드는 순간까지 그날 일어난 문제, 좌절, 기쁨, 그리고 좋고 나쁜 온갖 사건들을 돌이켜 볼 때에도 아침과 똑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내일 아침 일어나자 마자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기쁘게 수행을 계속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린다. 그러면 당신은 내일을 고대하는 느낌, 다음 날을 기다리는 태도로 잠에 들게 될 것이다.

수행을 하려면 일정 정도의 힘을 발휘해야 하고 어느 정도 자신을 밀어붙이기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고 밤에도 기꺼이 잠자리에 든다. 심지어는 잠조차도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마음 상태가 온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가르침의 중심 의미는 근본적 선으로서의 알라야를 일깨워 자신이 올바른 지점에서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힘, 즉 강한 결단에 기쁨의 느낌이 배어들게 된다.

△익힘: 당신은 이미 강한 결단을 계발했기 때문에 수행의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 가끔씩 알아차림을 놓치거나, 집중과 자각을 일어버린다고 해도 주변 상황들이 당신에게 다시 수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준다. 이것은 익힘이라 불리는 과정으로, 이 지점에 이르면 법과 관련된 잠재의식적 잡담이 일상적인 잠재의식적 잡담보다 더 강력해지기 시작한다. 보리심은 이제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악행, 덕행, 중립)의 익숙한 기반이 됐다. 보리심을 끊임없이 자각해 거기에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알아차림과 자각은, 무아의 개념이 이미 마음속에서 무르익었다면, 즉각적으로 법을 환기시키는 자연스런 경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당신은 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법을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대신 법과 관련된 생각, 단어, 활동이 익숙한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한다.

콜라캔을 따거나, 물 한 잔을 따르는 것 같은 모든 행위가 당신에게는 환기장치 같은 기능을 해준다. 따라서 당신은 그러한 경향성을 제거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자연스런 습관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온전성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그 온전성이 당신 존재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일지 않을 것이다.

△덕의 씨앗: 당신은 엄청난 동경을 끊임없이 품고 있기 때문에 주의력을 풀고 쉬려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말해 그것은 수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수행에 만족해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느낌도 품지 않는다.

이 시점에 이르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당신들의 신경증이 재발할지 모른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지옥 바닥까지 다이빙하고 싶어. 난 그게 좋아. 난 그걸 사랑해!" 이런 식의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당신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결단 · 익힘 · 덕의 씨앗 · 꾸짖음 · 열망
삶 전체에 걸쳐 수행활력 불어넣는 힘
죽음의 상황에 다섯 가지 힘 적용해야
모든 존재에 봉사 · 모든 생에 수행 발원

지옥 바닥으로부터 다시 끌어 올려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온전성 속에서 느끼는 이 사소한 폐쇄공포증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덕에는 몸과 말과 마음 모두를 자기 내면에 보리심을 퍼뜨리는데 헌신시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꾸짖음: 자신의 자아를 꾸짖는 것은 삼사라에 대해 느끼는 혐오감과 연관돼 있다. 자기 중심적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삼사라를 방황하며 끝없이 고통 받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이 같은 집착 때문이야. 자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므로 자아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한 행복은 있을 수 없어. 따라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자아를 길들이려고 노력해야만해." 혼잣말을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해야 한다. 사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주 강력히 권고될 때도 있다. 하지만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다. 이 경우 당신은 자아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권고 받는다. "넌 내게 엄청난 골칫거리를 안겨 주었어. 난 네가 싫어. 너 때문에 삼사라의 낮은 영역에서 배회하며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어. 너하고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난 널 파괴시킬 거야. 그런데 이 '너' 란 놈은 대체 누구지? 아무튼 꺼져버려!"

당신 자아에게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당신 자신을 꾸짖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열망: 수행자는 명상 수행을 마칠 때마다 첫째 자신의 힘으로 지각 있는 모든 존재들을 구하고, 둘째 꿈에서조차 두 종류의 보리심을 잊지 않으며, 셋째 어떤 혼돈과 장애가 일더라도 보리심을 유지하게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당신은 수행을 하면서 이미 기쁨과 성취를 경험해 보았으므로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더더욱 큰 열망을 품게 될 것이다.

당신은 깨달음을 얻고자 열망하고, 자기 자신을 신경증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열망하며,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대에 걸쳐 '지각 있는 어머니 존재들' 모두에게 봉사하고자 열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세상은 자기 내면의 온전성을 향유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당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죽음의 순간, 다섯 가지 힘과 연계하기

죽음이란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고통과 덧 없음에 관한 진실을 깨닫는 것은 붓다의 가르침 전체를 깨닫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

근본불교,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죽음이 의도적인 행위라고 가르친다. 태어났으니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 양식 있는 견해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답게 죽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완벽히 무시하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너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헛소리마! 난 괜찮아."라고 답할 것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궁극적 추태를 피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인간이 취하게 되는 궁극적 추태로 여길 필요가 없다. 대신 우리는 그것을 다음 생으로 우리 자신을 연장시켜 주는 하나의 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이 몸을 놓아 보내도록 해주는 초대장으로 여길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인간에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불치병으로 죽을 수도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죽음이란 현상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것이다.

당신은 삶을 극도로 염원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 이런 저런 일들을 피한다. 따라서 죽는 법에 관한 이 주제는 죽음이 찾아올 때 취하는 자세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도 가르치고 있다.

앞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도 발휘 바라밀과 연관돼 있다. 발휘는 수행에 대해 느끼는 기쁨의 느낌이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온힘을 다해 수행한 뒤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해보자. 그때 누군가가 "이 친구 저 세상으로 가는 게 힘든가 보네. 내가 플러그 뽑아줄까?"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거 좋지. 고맙네."라고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죽는 법은 다섯 가지 힘과 연관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섯 가지 힘, 또는 다섯 가지 의욕과 다시 마주친다. 이 수행들은 아주 간단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주제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죽음의 상황에 다섯 가지 힘을 적용하는 법은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첫 번째 힘인 '강한 결단' 은 다음과 같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과 연관된다. "나는 근본적 무아성과 근본적 온전성을 죽는 순간에 조차 유지할 것이다." 또한 당신은 두 가지 보리심에 집중하며 다음 구절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어야 한다. "죽기 이전과 '바르도' 를 거치는 동안 그리고 탄생의 순간 내가 두 가지 보리심에서 분리되지 않기를."

'익힘' 은 죽어간다는 사실에 겁먹지 않도록 일상에서 닦은 알아차림과 자각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두 가지 보리심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익힘이란 힘을 계발해야 한다.

'덕의 씨앗' 은 죽음의 불안에 끊임없이 직면하며 도망치지 않는 것과 연관된다. 또한 그것은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꾸짖음' 은 자아라고 불리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대체 뭘 두려워하는 거지? 자아, 너는 사라져버려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자아이고 모든 죽음도 자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당신은 자아에 대한 혐오를 계발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서원을 세울 수도 있다.

마지막 힘인 '열망' 은 자신에게 수행을 계속해 나가며 스스로를 개방시키겠다는 엄청난 열의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죽음을 후회할 필요가 없다.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성취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할 바를 다했다. 당신은 좋은 수행자가 됐고, 기본 수행을 완전히 익혔으며,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의미를 깨달았고, 보리심의 의미도 깨달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해야 한다. "나의 모든 생에 걸쳐 고귀한 보리심을 수행하게 되기를. 내게 보리심을 가르쳐 줄 스승을 만나게 되기를. 삼보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소서."

그런데 이 모두를 포괄하는 지점에 가면 흥미로운 역설이 벌어진다. 죽음에 대한 궁극적 지침은 절대적 보리심의 본성에 머물면서 그저 쉬려고 시도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알라야의 본성 속에 마음을 쉬게 하면서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이 글은 '참글세상' 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 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반 구절 게송 들으려 천개의 상처를 내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9)

전륜왕의 공덕

전륜성왕이 부처님의 법을 구하기 위해 염부제에 두루 물었다.

"누가 부처님 법을 아느냐? 대전륜왕이 그 법을 얻어서 소중하게 익히려 한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사문이 있는데 부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로 그를 궁으로 들여 부처님의 법을 청했다. 그러자 사문이 말했다.

"왕은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느라 오랫동안 부지런히 노력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비로소 이룰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왕께서는 지금 어찌하여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법을 얻어 들으려 하십니까?"

왕이 말했다.

"내가 어찌하면 되는 것이오?"

"저에게 공양을 하십시오."

"무엇을 공양하면 되겠소?"

"왕의 몸을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붓고 등불 심지를 놓아 공양한다면 저는 왕을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설할 것입니다."

왕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처소로 돌아가 부인들에게 알렸다.

"이제 그대들과는 그만 이별을 해야겠소. 나는 몸을 깎아 천 개의 등불을 만들어 큰 스승에게 공양하려 합니다."

부인들이 말했다.

"천하에 소중한 것은 자기 몸보다 더한 것이 없거늘 어찌 자신의 몸을 해치려 하십니까?"

"부처의 법을 구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한 일이오. 어둡고 깜깜한 방에 지혜의 등불을 켜서 그대들이 나고 죽는 광명 없는 캄캄한 곳을 비추어 주려 하는 것이오. 그대들 쌓여 있는 많은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하려 함에서 그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대들은 어찌 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오?"

왕비들은 슬펐으나 왕의 말에 더 이상 다른 말을 달 수 없었다. 왕은 궁의 모든 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법을 청했던 사문에게 돌아가 몸에 걸치고 있던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벗어놓고 몸을 바르게 한 후 대중에게 말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몸을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어 주겠소?"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차라리 나의 눈을 뽑을지언정 절대 내 손으로 왕의 몸을 깎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때 성질이 모질고 포악한 전다라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왕의 말을 듣자 바로 나아가 여러 왕비들과 태자들에게 말했다.

"걱정하고 괴로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없게 하고, 다시 나라를 다스리면서 본래와 다름없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왕비들과 태자들은 전다라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다시 전다라가 말했다.

"대왕께서 몸을 깎으려 하신다며,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너야말로 이제 나의 위없는 도반이로다."

이때 전다라는 커다란 칼을 왕의 몸에 갖다 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빠르게 깎아 천 군데의 상처를 만들었다. 이 정도면 왕도 그만 두고 싶을 거라 생각하고 칼을 던지고 도망쳤다. 그러자 왕은 그 상처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는 털실로 심지를 만들어 상처에 심었다. 이때 사문이 왕에게 말했다.

"실로 어려운 공양을 하시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드리겠습니다."



삽화 · 강병호

그리고 사문은 반 구절의 게송을 읊었다.

"무릇 태어남은 곧 죽음에 나아가니 / 이것이 사람짐(滅)이 즐거움이리라."

게송을 들은 왕이 말했다.

"나에게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법을 기억하고 지녀야 한다. 모든 나라 땅마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이 왕명을 널리 펴 알려라.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다 알아야 한다. 대전륜왕은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보고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몸을 깎아 천 개의 등불을 켜서 이 반 구절의 게송을 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게송을 읽고 외우며, 소중히 익히며 그 이치를 생각하여 이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한다."

대중은 이구동성으로 대왕을 찬탄했다. 사람들은 이 게송을 종이와 비단에, 돌과 나무에, 기와와 조약돌, 풀잎에까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모두 적어놓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도의 마음을 내게 되었다. 왕은 천 개의 등불을 켜서 큰스승께 공양했으며, 그 광명은 멀리 시방세계를 비추었다. 그 등불의 빛 속에서도 역시 음성이 들리면서 이 반 구절의 게송을 말했으니, 그 법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구도의 마음을 낼 수 있었다. 그 광명이 위로 비추어 도리궁에까지 이르러 하늘의 광명을 다 가릴 정도였다. 도리천의 왕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여 천안으로 세간을 들여다보았다. 사실을 알게 된 도리천의 왕은 몸을 바꾸어 세간으로 내려가 전륜왕에게 물었다.

"이런 어려운 공양을 하여 천왕이나 마왕, 아니면 범왕이라도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구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하여 보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를 구하는 이는 오랫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서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빠른 시간에 그것을 구하려 한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까?"

"설사 뜨거운 쇠 수레바퀴를 나의 정수리 위에서 돌린다 하여도 그 괴로움 때문에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천왕 제석을 속인 것이라면 내 몸에 난 천 군데의 상처를 끝내 낫지 않게 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상처의 피가 젖으로 변하고, 천 군데 상처가 모두 아물게 해 주십시오."

천제석은 큰 광명을 놓아 왕의 몸을 두루 비추었으니, 백천의 모든 하늘이 함께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왕비와 태자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왕의 상처가 본래대로 아무는 것을 보고 한량없는 기쁨으로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대방편불보은경〉 제3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㊴



마음이 하는 일

명절의 행복

명절 때면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딸 네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곳 부산으로 온다. 차례를 장남인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명절마다 지내는 차례와 웃어른들의 제사를 여러 해 모셔왔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늘 마음을 내서 하는 일이기에 항상 즐겁다.

서울에서 내려온 식구들까지 모두 6남매의 식구들이 차례를 모실 때는 그 모습이 참으로 든든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 여러 식구들 중에서 나와 마음이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있다. 넷 째 시동생이다. 그는 유난히 정이 많고 모든 생활이 모범적이며 정직하고 인내심과 배려심이 깊어서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

내가 시집와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때마다 말수가 별로 없는 이 시동생의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가 큰 힘이 되어주곤 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란 것이 모습은 없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만은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는 것 같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우리 내외가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 되었다. 평소에도 경우 밝은 그는 늘 우리 내외를 어른으로 챙기기 시작했다.

명절에 모인 식구 보며 '행복' 생각
'나' 보다 '너' 를 생각하는 삶 살아야

차례를 지낸 후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온 딸 식구들을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윷놀이도 하고, 극장에도 가는 등 오랜 만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 한가위 분위기를 즐겼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모두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용돈으로 쓰라며 돈봉투를 서로 내밀었다. 아이들이 잘 커줘서 기쁘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큰 만큼 우리 내외가 늙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서글퍼지기도 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나니 우리 내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동서들과 함께 북적거리며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도 썰렁했다.

평소보다 많이 나와 있는 수저들과 그릇들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식구' 에 대한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다.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 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스민다.

제법 늙은 티가 나기 시작한 내외들과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는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모두가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슬프지 말고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했다.

명절은 식구들이 모일 수 있고 식구들 생각을 하게 되어 좋은 것 같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아울러 기도했다. 가정마다 행복이 넘친다면 우리 사는 세상의 괴로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것이 부처님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다.

생활 속의 수행

살다보면 언제나 '나' 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인데,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다. 좋은 일에도 좋지 못한 일에도 누구나 말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 로 시작한다.

어쩌면 '나' 라는 말에 갇히어 생각도 '나' 에 갇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서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로 인한 것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의 심정을 알 수가 없고, 나무를 키우면서 나무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인간이 어항 속의 물고기나 숲 속의 나무들과 이야기할 수 없고, 인간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새로운 원을 하나 세웠다. '나' 에서 조금 멀어지는 일을 조금씩 해보려고 한다.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내가 '나' 에서 멀어지는 일. 그렇게 '나' 에서 멀어지면 '나' 를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늘 새로운 나와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나' 가 새로워지다 보면 '나' 보다 '너' 를 위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도 오늘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들이 살아 있었고, 또 내가 없는 먼 훗날에도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을 이 세상이다.

세월은 나이가 없고 우린 나이를 먹고 죽어간다. 이토록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상이 부처님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으려면 지금의 우리부터 조금씩이라도 '나' 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어야 하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귀로는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가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음들을 알게 되고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용서' , '위로' , '사랑' 등 우리가 나누기 힘든 것들을 좀 더 많이 나눠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



대행 스님

자기 주인공을 믿고 패기있게,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인간들이 점점 더 흉악해지는 것일까요

문) 요즘은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걸 보니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인간들이 이렇게 점점 더 흉악해지는 걸까요?

답) 우리가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길러지는 자식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걷는데, 궤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이것이 자석처럼, 마음이 자석처럼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머니라는 인정, 그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기네 가정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인간이라는 자석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는 그 마음이 벌써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철을 모르고, 어른이라도 철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철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 중심을 잃고 사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패배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난 살아야겠어.' 하고선 잘되고 잘못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배고프니까 저지릅니다. 무댓방 저지릅니다. 죽입니다. 또 착취합니다. 이 국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지금 각국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이 야단들을 하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오신통이라는 자체는 내가 자성을 깨달아서 주인이 돼 가지고 오신통을 부려야 말이지, 만약에 내가 내 안의 자성을 찾지 않고 바깥으로만 만날 신을 찾아 돌아다니고, 학문으로만 가지고 저거 하고, 그렇게 집이 빈 사람들은 항상 끄달리게 돼 있어요. 항상 끄달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고 저기에서 들어와도 들어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유법으로나 무법으로나, 하여튼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나 생명들이나, 보이는 생명들이나 모든 것이 끄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끄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내 몸을 가눠 가면서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생활을,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니, 사회를 국가를 세계를 어떻게 끌고 나갑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이끌어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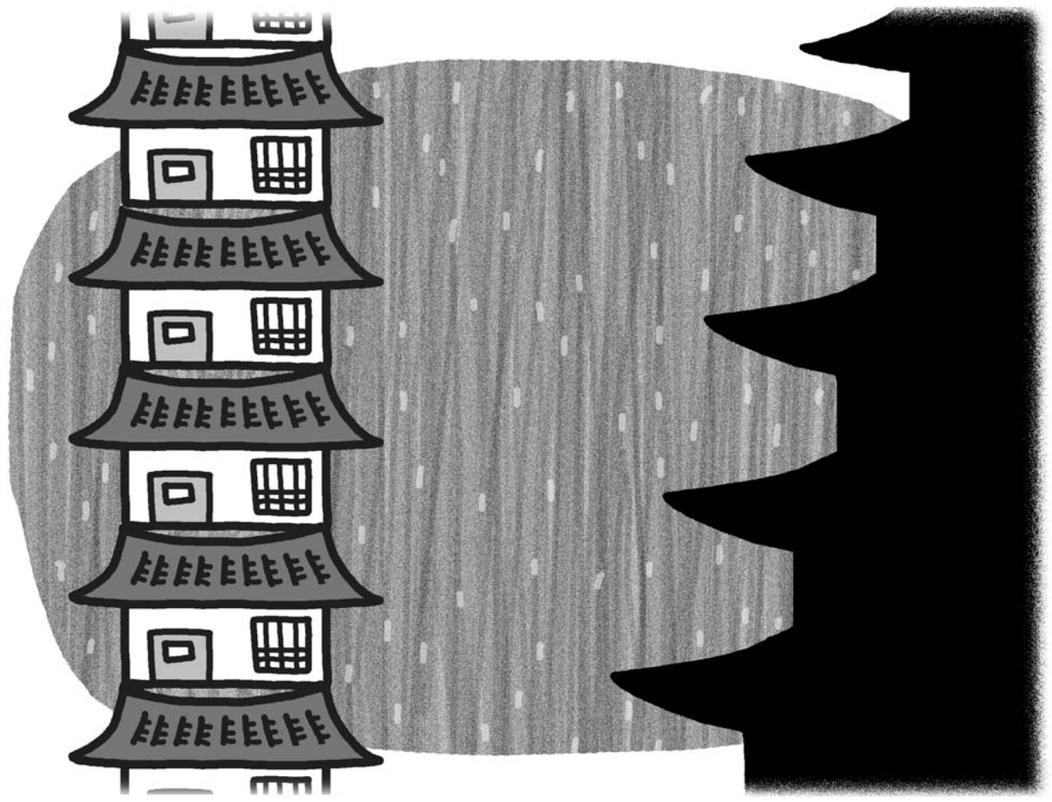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안에서만 굴리고 내 안에서 배신하지 말고 자기 주인공을 믿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 거기서 나고 드는 것인데, 만법이 일심에서 나고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고 무시하고 자기는 아주 나는 모른다, 나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 신이시여! 아무개 신이시여! 용신이시여! 관세음 신이시여! 무슨 부처 신이시여!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내 신도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이 신 저 신 찾다 보니까 내 신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신을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가는 내 신을 말입니다, 자성신.

그런데 그 말을 하려니까 이거 괜히 신까지 말을 하게 됐습니다만, 내 주인이 없는 집은 귀신, 유체, 유령, 세균, 윤회, 유전, 이런 것이 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뚱이의 그 모든 생명들이 자기 분야 분야 소임을 맡아 가지고 다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지금 지탱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 내 생명체도 다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만 그런가. 이 세상을 삼차원에 기준을 둔다면 중세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차원이냐 이차원이냐 삼차원이냐 이런 때, 우리는 지금 삼차원이기 때문에 이차원이나 일차원에 있는 거를 갖다 막 집어다가 바로 실험대에 올려놓고서 실험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차원 세계라면 삼차원에 있는 거 막 붙잡아다가 실험대에 안 올려놓겠습니까? 이 모두가, 이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 이렇게 차원이 있는데, 만약에 탑이 있다면 십이층 탑이 있다면 그걸 한데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서 바로 한 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십이 층이 어떤 것이 층층이냐. 이렇게 세울 수 없으니까 공했다. 그 하나도 없다. 물감을 갖다가 여러 가질 갖다 놓고 "어떤 게 물감, 진짜 물감입니까?"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물감입니까? 물감이 지금 열여덟 가지가 있다면은 열여덟 가지에서 "진짜 물감이 어떤 것입니까?" 한다면 진짜 물감이, 다 진짜 물감인데 어떤 거를 진짜 물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것은 전부 공했다.'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세울 수 없으니까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차원이 계단이 있으면서도 계단이 없는 원인이 바로 아까 물감 얘기 했듯이 그러한 까닭에 그런 차원이 바로 평등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평등이면서도 그 차원은 엄연히 있고, 엄연히 있으면서도 우리 살림살이의 차원은 엄연히 있어서 소소영영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씀씀이를 쓰고 있으면서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그 철없는 사람들 얘기 했죠? 그러면 딴 혹성이라고 철없는 게 없을까요? 그리고 국방이라든가 또는 정보국이라든가 또는 의학계의 연구 실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라도 갖다가 붙잡아다 실험대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차원 세계의 문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지만, 사차원에서는 이 삼차원에 자기 문 드나들듯 해요. 사차원 오차원에서 드나들어요. 그렇다면 사차원에서는 삼차원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다 드나들게 돼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사차원이라는 권리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모두 병이 많이 일어났다, 이럴 때는 우리가 에너지를 작간에 뺏기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빈 집인데요, 뭘. 주인이 없는 집이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면 놓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데

문) 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론으로라도 그 이치를 알고 배운다면 놓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 것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사랑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이 중요합니다

☞ 29면에서 계속

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말로 배우려고 하고 글로 배우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공한 주인공,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공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공했기 때문에 세상도 공하듯이 전체가 공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쑥 빼놓으시고 항상 놓는 습을 가지셔야 합니다.

억겁을 거쳐 오면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지금 이 시점에서 억겁을 거쳐 온 그 자체의 습이 지금 현실의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각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시점에서 내가 공한 줄 알고, 공한 데서 나오는 거 바로 공한 나 자체가 화두인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놓는다면, 진심으로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의 일체 생동력 있는 생수물이 자기에게 맛을 보일 수 있고 상봉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거나 경이 자기를 보고 자기가 경을 보고 학으로다가 말로다가 이론으로다가 이렇게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백네 날이 가도 공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밝고 아주 화창한데 꽃이 피었다고 합시다. 봄이 돼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떨어지면 왜 여러분의 마음이 허황되고 또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러겠습니까. 꽃이 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꽃이 진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꽃이 피는 것도 아니요, 지는 것도 아니라면 그 가운데 무엇이 나한테 일체 이익하게 할 수 있는가. 일러 보실 수 있다면 일러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 놓는다 안 놓는다 말 없이 여여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런 문구 자체를 내 스스로서 함이 없이 이를 수 없다면, 저 아주 날은 창창하지만 안개와 아지랑이가 끼어서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선지식들은 "이 눈을 봤느냐? 봤으면 일러라!" 하고서 주장자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르지 못했을 때는 "그 참, 날은 어둡구나!" 하고선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읊으시고 내려가고 이러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린 근본적으로 말과 그 흉내 내는 거를 떠나서 진실한 '참나'를 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뭣고.' 화두나 '무' 자 화두나 '시삼마' 화두를 쥔다고 해서 그것을 들면은 드는 대로 벌써 상대방에서 나를 들게 해 줬으니까 의식적으로 벌써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공해서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받아서 그것을 들고서 온종일 헤매도, 해는 점점 저물어 가는데 온종일 들고 헤매도 도대체 알 길이 없어서 그만 저녁에 옷을 벗게 되는 그런 이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이 없으면, 공한 몸이 없으면은 또 무효입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어서 무효니만큼 우리 몸이 있을 때 바로 그 이치를, 부처님이 바로 마음을 전달하신 그 뜻을 알면은 부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부터 헤아릴 줄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몸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면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번뇌를 '끊어라'가 아닌 '녹이라는 이유

문) 일반적으로는 번뇌를 다 '끊어라' 라고 하는데 선원에서는 '녹이라' 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지요.

답) 일어나는 망상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녹이라는 겁니다. 녹이라는 거지 끊을 게 어디 있습니까? 망상이 없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으니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것이고 한마음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저놈, 조거, 너!' 이렇게,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너, 두고 보자. 들어오기만 해 봐라.' 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들어와도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엉뚱나가게, "야! 뭐!" 그러고 꽥꽥 악을 쓰고 외려 한술 더 뜹니다. 그러니깐 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로 본다면, 자기와 같이만 본다면 자비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의리도 나오고 도의도 나오고, 거기에서는 무궁무진하게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는 거기까지도 다 밝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려 들어오기도 전에 바깥에서 '아, 이거 미안한데….' 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보! 나 참 미안했어." 이런 말 한마디를 들을 때 그냥 겨울에 고드름이 녹아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녹아 떨어지죠. 그러한 마음이 녹아 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장본인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도 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받게끔 돼 있으니깐요. 내가 해놓은 거 어디 가겠습니까? 나쁜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이고 좋은 일을 해 놨어도 나한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준다면, 자비롭게 의리를 도모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인내가 있다면, 물러서지 않는다면, 모두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이렇게 생활이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나쁘고 좋은 게 다 그냥 우리 죽어서 끊어진다면 별 문젠데, 세세생생에 억겁을 거치면서 자기 한 대로 그게 얽히고설킬 테니 그거를 어떻게 끊으렵니까? 물질이라면 아예 단번에 끊어 버리고 말겠는데,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찔깃찔깃한 인연줄! 그 인연줄은 아무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둘이 되니까 녹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이 한 거, 당신이 해결해라!' 이겁니다. 나왔던 자리로 다시 놓는 거죠. 나온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다시 들어가서 하나가 돼 가지고 만법을 응용하게끔 거기에서는 생동력 있게 계발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모든 걸 내 안의 자동적인 컴퓨터에 놔라.**
>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만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라.**
> **그렇게 되면 실험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된다.**
>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참 선의 직속길이다.**

참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문)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도 사랑 사랑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건 자식이 물에 빠질 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뛰어드는 그런 마음이라야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즉 말하자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든가, 사랑도 가지가지 여러 사랑이 있죠?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또는 부모자식지간의 사랑…. 사랑도 많죠, 왜?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싫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걸랑은 놔 줘라.' 이런 말 있죠. 또 여자가 싫다 한다 하더라도 조건을 잘 만들어서, 싫다 하는 걸 붙들고 생전 살아 봤자야 그 타령이니까 사랑하면은 놔 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면서 모두 이기인 사랑이요,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비라고 그랬거든요. 자비라는 것은 아무나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조건 없이 차비를 주는 게 자비예요. 또 셋방을 얻을 돈이 없어 거리로 나앉았을 때 누가 조건 없이 준다면 그게 자비죠. 조건 있는 거는 자비가 못됩니다. 그건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들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부모들은 이상스런 부모들도 또 많습니다만. 물론 마음을 어떻게 돌리질 못해서 자식들한테 해가 가게끔 하는 수도 많죠.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부처님이 뭇 중생들을 나 아님이 없다고 사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작고 크고 이것뿐이지, 아마 그것이 자비일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조건 있는 것을 만날 붙이죠. 무얼 바라고, '저놈이 잘돼야 내가 저거 할 텐데….' 하고 이렇게 기대는 게 있다면 자비가 못되죠.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기어가는 벌레라도 나 아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달마 대사가 구렁이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비켜서 딴 데다 갖다 놓고 자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몸뚱이 속의 모든 중생들을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이 공부가 그 공부예요. 내 마음을 한마음으로 따라 줄 수 있는 그런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벌레가 울든 짐승이 울든, 어떠한 생명들이 다 용도에 따라서 청하면 청하는 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백억화신이라고 해도 천백억화신으로만이 그 숫자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천백억이라면은 숫자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생각에서 수만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작용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알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나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내 자리 아님이 없이, 내가 높다는 생각도 없이,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자비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도리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수억겁 광년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도리를, 하나로 들고나는 그 도리를 알고….

이게 아주 알려면은 모든 게 복잡하니까 모든 거를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다가 놔라.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진행되는 걸 지켜봐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험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참 선의 직속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말로 사랑 사랑 하는 이름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해지니 몸이 게을러져요

문) 주인공에게 맡겨 놓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이 자꾸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 여러분은 편안하게 사시라 하면은 몸이 편안한 거를 생각하시는데 몸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면은 마음이 아무리 뛰어도 편안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많이 해도 군색함이 없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일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깐 모두 일하고 밥 먹고 똥 누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똥 못 눠도 참 편안치 못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깐 일을 하시는데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거니와 변소에 가도 시원하고. 이거 모두가 좋은 거 아닙니까. 소화 잘되니 좋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편안한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일이 닥치게끔 하고, 내가 부지런히 뛰게끔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편안하단 얘깁니다. 우리가 몸이 편안한 거를 말하지 마시고 하루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의 이 승려들도 그저 한 치도 쉬지 않고 움죽거립니다마는 편안합니다. 편안하게 삽니다. 이유가 없으니깐요. 누구의 탓이 없고 이유가 없으니까. 일이 나한테 닥치면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깐요.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한자경 지음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리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칸트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제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색』, 『자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해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416면
값 22,000원

(사)불교시대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
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불자 세상보기

인도주의에 어긋난 이산가족 상봉연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9월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함으로써 개선조짐을 보이던 남북관계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은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산가족상봉행사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 5월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펴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최근의 남북대화를 남측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성중단 카드에 폐쇄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연기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금강산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 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정상화→이산가족상봉→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대화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이전에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남측이 응하지 않고 상봉당일 갖기로 했던 실무회담마저 10월 2일로 연기하자 남측이 관광재개에 미온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상설면회소가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재개를 희망했다. 하지만 관광대가로 지불하는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인식하는 남측 일부의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가 관광재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이 머물 숙소로 관광중단 이후 사용하지 않던 선상호텔인 해금강호텔과 현대아산 직원숙소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외금강·금강산 호텔을 주장하자 상봉행사를 연기하고 이산가족상봉을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6자회담 등 다자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미국과 한국 등이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차원이 크다. 하지만 북·미 대화 등 '평화로운 대외환경 조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북관계 복원 속도를 늦춘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을 미룬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인도적 문제를 정치상황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이산가족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들을 인질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천륜과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미뤄진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조속히 성사되기 위해서는 순수한 인도주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담긴 불편한 진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교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에서는 2011년부터 해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 사회여론조사에서는 새 정부의 국민통합 성과, 국정원 개혁,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 종교의 사회참여, 템플스테이, 힐링 욕구와 과제, 종교인의 수행법,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호국불교, 불교 발전 방안 등 정치, 사회, 종교 분야의 핫이슈들이 조사됐다.

우선 관심을 끈 것은 사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종교(특히 불교)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갑을관계'로 대변되는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잘못된 사회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다시 한 번 표출된 바 있다.

종교의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하는 이들은 당대의 부조리와 사회문제를 극복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종교에 부여하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종교가 잘못된 사회적 관행을 방지하는 개혁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종교는 사회의 일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거나 불국정토를 이룸으로써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종교적 사명이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불편한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종교와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어떤 종교문화가 이 같이 종교와 사회를 분리해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한국의 종교들이 혹은 종교지도자들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공공선에 무관심했던 과보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한편, 힐링 욕구와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이 경시되는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24.4%), 과열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22.9%), 경제적 궁핍(16.4%), 직장/삶에 대한 불만(14.6%), 고독감(14.4%) 등으로 인해 힐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안, 스트레스, 궁핍, 불만, 고독 등 눈앞에 닥친 고통의 회오리로 인해 현재 한국인들은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할 만큼 여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우선 내 안의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다. 그렇기에 종교에 대해서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구한다.

어찌 보면 그런 고통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련만, 사회적 불합리를 해결하는 적극적 행동보다 힐링 프로그램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불편한 질문을 던져보자. 눈앞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일까?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된다.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야 하고,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 개인의 고통과 그것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이 양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힐링'의 방법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 수행일 것이다. 힐링을 위해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수행을 하고 있을까? 불교 신자의 약 70%와 다른 종교 신자의 약 60%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스로를 수행의 종교라고 규정하는 불교 신자들의 수행 실태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또 다시 던져보는 불편한 질문 하나. 신도들에게 변변한 수행 방법조차 가르치지 못한 종교지도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교는 스스로의 힘이든, 혹은 절대자의 권능에 기대든 사람들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종교의 기능적 관점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의 종교 모두가 치열하고 냉철한 성찰과 전향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외고는 한국종교문화연구소 뉴스레터에 기고글을 허락을 받고 개제한 것입니다.

社說

총무원장 선거, 비방 대신 종책 대결을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 대우 스님, 장주 스님, 혜총 스님 총 5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이로서 조계종은 완연한 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은 등록 직후 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종책 등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종책에 있어서도 자승 스님은 지난 4년간 성과의 안정적 계승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보선 스님은 종단의 청정성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혜총 스님이나 다른 후보들도 종책 발표를 준비하거나 앞두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선거전 아래에는 비방과 폭로 등 흑색선거에 대한 조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각 후보 스님들의 승적에 문제를 삼은 문자와 E-메일 등이 유포되기도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9월 25일 밝혔듯이 흑색 비방은 종단과 불교에 대한 사부대중과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사회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라면, 범계, 승적 문제 등은 공동체 내부 해결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공동체의 자정능력이 향상된다.

이런 흑색 선거보다는 종책 선거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서 종도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시작은 종책 토론회가 될 것이다. 모든 후보 간의 종책을 평가·토론하는 종책 토론회는 선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각 후보자들간의 종책 검증을 위한 종책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빠르면 10월 초에 열린다고 한다. 9월 24일에는 각 후보자 진영 관계자들이 일시와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비방과 폭로를 넘어 공명정대한 종책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종책 선거의 출발점이다.

생명나눔 대작 불사 '명예의 전당제'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 예술 등 특정 분야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불교계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이다.

이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희망등록자 추천 100명 이상을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제도다. 1년이 채 안됐지만 일단 효과는 성공적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지경 스님,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정행 이익수 법사 등 3인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민 스님은 협약식 당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2장을 전달했으며, 6월에는 197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정행 이익수 법사도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했다.

이어 지경 스님은 104명을 추천해 세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특히 이 제도는 개신교, 천주교 등 이웃종교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에 새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일회성 캠페인으로는 장기기증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뿐 더러,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섣불리 희망등록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명예의 전당제는 희망등록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인이나 주변인들의 추천 및 독려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더욱 효과적이며, 이곳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동기부여가 돼 희망등록 확대에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히 스님들과 영향력 있는 불자 및 명사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면 장기기증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옷 お金 옷가네 17년 전통 참옻의 명가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토종참옻으로 헐은 위, 지친 간 다스린다!!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과 산림청신지식인에 선정된 옻안타는 토종참옻 국내최초 개발자 池龍禹

힘들수록 건강이 재산 …

요즘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도 어렵고 회사도 어렵고 …
이럴 때 일수록 건강 챙기면서 더 열심히 매진해야 어려움을 이겨 내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옻가네에서는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회사의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건강도 지켜드리고 저희 회사도 박리다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고객님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080-838-2500

옻가네 창립 17주년 기념
할인!
500셋트 한정 할인판매
• 본 제품은 기획상품으로서 조기에 품절될 수도 있습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의 명가 (주)옻가네는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옻가네 창립 17주년 기념으로 토종참옻천하진액을 특별할인가로 500셋트 한정 선착순으로 특별 보급하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옻가네는 2011년 농수산물 과학기술대상에서 대통령포장이라는 최고의 큰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주)옻가네가 되겠습니다.

▶ **(주)옻가네 "참옻천하" 진액 500셋트 한정 특별할인가**

• **2박스**(30포+30포)
= ~~198,000원~~ → **128,000원**

• **4박스**(30포+30포+30포+30포)
= ~~396,000원~~ → **198,000원**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미국식품안전청 FCS/SID 제조업체등록, 공정과정등록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사례공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옻가네로 건강한 삶을… 작성날짜:2012.7.5 이름:한○○ 나이:49세 지역:경기도 시흥

안녕 하세요. 시흥시에 사는 49세 여성입니다. 20년 동안 식당일을 하다가 3년 전 남편을 따라 시흥시로 이사를 와서 전보다 더 편한 생활을 하는데도 온몸이 저리고 기운이 없고 힘들던 차에 1년 전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옻가네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병에는 옻이 최고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다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저는 옻이 두 번이나 온몸에 타서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번을 망설이다가 옻이 안타다고 하니까 먹어보자 하고 참옻진액을 주문해서 계속 먹었는데 신기하게도 옻이 안타는 거예요. 먹으면서 부터 피곤함도 없고 몸이 저린것도 없어졌어요. 남편도 5년 전 인두암이라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고 좋다고 하는 식품은 다 먹어 봤는데도 항상 기운이 없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하더니 참옻진액을 먹은 후 부터는 얼굴에 윤기가 돌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뭘 먹였기에 얼굴이 좋냐고 물어봐요. 우리는 옻가네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식품을 개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옻가네와 함께하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성 위염, 위궤양으로 고생했으나 김○○ 1968년 12월생 45세

저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는 김○○ 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신경성 위염, 위궤양으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먹어보고 약은 다 먹어보고 위를 단련해봤지만 병원약은 그때뿐이고, 안 먹으면 또 재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계속 뭉쳐있어 통증 크리닉을 찾아가서 벼주사도 맞아보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머리도 수그릴 수 없었으며 설거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주면 목부위가 숨이 뻥기면서 눈알이 튀어나올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스포츠 신문에서 옻가네를 알게 됐는데 이것이 나한테 딱이구나 하는 생각에 방신반의하면서 만두 일반형을 구입 해 먹었더니 신기하게도 온 몸이 후끈후끈 달아 오르면서 위 아픔 증세도 모두 사라지고 어깨에 뭉쳐있던 어혈도 풀리기 시작했으며, 목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졌습니다. 할머니나 하며 옻가네를 그대로 복용하면서 아무약도 안먹고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엔 확실하게 완치하여 내 상사도 좀 해볼까 하여 고농축을 또 주문하였습니다.
병원약은 먹으면 끊으면 몇 개월 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옻가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인을 모르는 반복되는 고통…

냉적(冷積)이 아닐까?

'참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

●만성위장병
利小將(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피부 질환, 아토피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九服俾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 골을 채워줌, 골다공증 치료.

어혈을 파하면 저절로

消瘀血痺結腰痛(소어혈비결요통) : 어혈을 풀어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削年深堅結之積(삭년심견결재적체) : 몸안에 오래묵은 병덩어리를 없애줌.
破日久凝結之瘀血(파일구응지어혈) : 오래묵은 어혈, 응혈을 파하여 피를 맑게함.

50대 전후에 많이 생긴다하여 이름붙여진 오십견은 어깨가 굳고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든 질환이다. 통증은 낮에도 나타나지만 주로 밤에 특히 잠을 청할 때 나타난다.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증거이다. 오십견 통증은 양상이 대부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데 이것 역시 오십견의 원인이 어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어깨 힘줄에 쌓이고 굳어진 어혈을 파하여 어깨 주위의 힘줄을 부드럽게 하면된다.



든든한 보양식 옻닭, 집에서 안심하고 드세요!

1. 토종닭(또는 오리)한 마리에 참옻진액 300ml~50ml에 물을 500ml~1000ml 붓고 압력솥에 17~20분간 끓인다.
2. 고기가 다 익으면 전골냄비에 옮겨서 부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이면서 드시면 좋다.
3. 남은 국물에 불린 찹쌀을 넣어서 끓이면 옻죽이 된다.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고 고기가 쫄깃쫄깃하며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무색소 / 무방부제 / 무과당 / 100%국내산



• 구성 : 4박스(80ml×120포)

• 60포(2박스)= ~~198,000원~~ → 128,000원
• 120포(4박스)= ~~396,000원~~ → 198,000원



(삼계탕은 1병으로 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98,000원

17th Anniversary 옻가네17주년기념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옻가네 17주년 기념으로 홍삼참옻위간보, 참옻다슬기진액제품 구매 고객분께 토종참옻환(7만원 상당)을 무료로 드립니다.

제 2013-서울-0790 호
옻 お金 옻가네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참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구입문의: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